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책임자 : 손 태 주

연구기간 : 2016. 1월 ~ 6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제주지역 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친화마을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가족 형태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양육과 같은 돌봄 역할을 지역사회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돌봄 책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존의 공보육과 공교육의 돌봄 지원 외에도 부모들의 자율적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은 사회적 돌봄 활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가족친화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맞는 모델 제시를 위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욕구를 수렴하고 더불어 물리적 환경 조사를 통해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실천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모델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내실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폭넓은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녀 돌봄이 양육자들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돌봄을 분담하여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인터뷰 조사 응답자 분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 자문위원님과 조사과정에 협조를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담당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혜 순**

연구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의 급속한 가족형태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추세는 돌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정·협약을 맺은 후 정책적 파트너십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지역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돌봄 공동체를 목적으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사업화함
- 가족친화 환경 조성의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2012.6.11)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기존 현황 자료와 조사 결과분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모델개발의 방향과 용어를 정의함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 본 연구에서의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 정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양육일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통합을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델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방향 도출
- 관련 법·제도 및 제주지역의 현황 분석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 통해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 본 계획 수립 연구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연구 추진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설정 •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방법 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착수보고 실시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방향 도출 •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해 가족친화마을 법·제도 현황과 사례 등 검토 • 제주의 가족친화환경현황 및 공동체 참여 의향 관련 2차 자료 검토·분석
3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전반적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 방법·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모델개발 방향 등을 위한 의견수렴 등
4단계	면접조사 및 현장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다양한 가족유형별 면대면 인터뷰 실시 • 제주도내 사례 선정지역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결과분석 근거하여 사례대상지역 거주자·활동가 면접조사와 물리적 환경 조사 실시
5단계	공무원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근거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 협의
6단계	모델개발 및 운영 방안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제안

제2장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마을 개념

- 2007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에서는 ‘가족친화 마을 환경’을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제2조 4항)이라고 규정함

-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가족친화마을 개념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가족친화마을 개념
장입숙 외(2015)	· 지역사회 내 직장가 가정, 부모와 자녀, 노인과 청년의 공간적·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과 요구를 지원하는 가족중심의 마을공동체
조한혜정 외(2012)	· 여성이 가정 내에서 떠맡아 오던 역할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공동체를 통해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구성원들 각자에게 행복한 공간이란 가족 공통의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환경
차성란(2010)	·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
이송지 외(2009)	·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
홍승아 외(2007)	· 아동, 성인, 노인 등 가족의 책임 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박소현 외(2007)	·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한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욕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
여성가족부(2006)	· 가족구성원별 요구시설을 고루 만족시키며, 이들이 걷기 좋은 가로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마을환경
Voydanoff(2001)	· 지역사회조직, 사회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공식적인 자원봉사, 비공식인 지원, 지역공동체 의식, 지역공동체 만족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 지역사회

- 본 연구에서의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 정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양육일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통합을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로 정의함

2. 가족친화마을 모델과 구성요소

- 가족친화마을 모델에서 제시한 유형은 대상자별로는 아동, 성인, 노인으로, 지역별로는 농촌형, 도시형으로, 주민주체별로는 기관주도형, 주민 주체형으로, 돌봄 수혜자별로는 맞벌이형, 재택맘형 등으로 다양함.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역시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세대통합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 역량강화,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한 사용여건 마련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일치함

3. 가족친화마을 사업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 본 연구의 가족친화마을 사례 대상지 선정기준은 첫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협력정도, 둘째, 지역에서 상호 연계하여 과급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 셋째,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사업추진 역량, 넷째,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과 활동가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친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곳으로 함

4. 국내·외 사례

- 독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의 사례는 가족의 문제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는 지역연대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으로 재택맘과 직장맘의 근무시간과 자녀양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 추진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민관 협력 지원이 요구됨

5.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제주지역의 현황 분석

1.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관련 법·제도 현황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 제10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조례(2015.10.6.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정의) 4.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23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20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간에는 ‘가족 돌봄’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2006년 이후 3년간 추진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 마을단위나 기관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장임숙권진아, 2015) 등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마을단위로 주민이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적 유대가 가장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여 주민이 중심이 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나. 타 시도 가족친화마을 관련 조례 현황¹⁾

다. 마을공동체 사업현황과 추진체계

- 중앙정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공동체 회복과 경제적·문화적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관련 사업과 예산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고, 2015년 9월 현재 행정자치부 포함 6개 부처 14개 사업의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임(행정자치부, 2015)



-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중심의 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장임숙권진아, 2015)

1) 타 시도 가족친화마을 관련 조례 현황은 본문 참조

2. 제주지역의 가족친화환경 현황²⁾

3. 소결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6.11) 제10조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2.4.6) 제17조에 관련 조항을 명시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09.1.7제정)는 제정 이후 2015년 10월 6일 행정환경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등 변화에 따라 전부 개정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26조와 제39조 조항이 반영되지 않음. 일·가정 양립지원 및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비율은 2010년 이후 순이동 인구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양수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령별 순이동 인구 중 14세 이하 유년 인구가 가장 많이 나타남. 동시에 부부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율의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제주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35세 이후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 곡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가사노동 시간과 출산전후 휴가 등 육아와 돌봄 책임은 여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측면과 집단 측면에서 60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노인세대를 위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와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범죄위험과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함이 2014년 기준 59.2%로 2010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불안도가 더 높음

2) 제주지역의 가족친화환경 현황은 본문 참조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조사한 종합순위(1순위+2순위)결과, 이웃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서로 가깝게 지내기가 66.1%로 가장 높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향은 40대와 부부+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높음
- 제주지역의 유형별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객이 증가되는 것과 달리 연간 문화행사 수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질문한 결과, 지역 돌봄 서비스와 공공사회복지시설,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에 대해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학생 및 취학 전인 부모가 낮음
 - 제주지역의 작은 도서관 상당수가 마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과 문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을 내 작은 도서관 및 공공시설 연계 활용방안이 요구됨

제4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1. 면접조사 분석³⁾

2. 제주도 사례 선정지역 조사 분석⁴⁾

3. 소결

가. 마을의 범위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 본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의 범위에 대해 마을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0~20분 내 걸어서 이동 가능한 살고 있는 동네로 인식함. 급한 일이 있

3) 면접조사 분석 내용은 본문 참조

4) 제주도 사례 선정지역 조사 분석 내용은 본문 참조

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을 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라고 응답함. 반면 자녀와 함께 이주해 온 이주민들은 원래 지역 주민과는 달리 알고 지내는 지역민이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친정 부모님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나. 사회적 돌봄의 우선 수혜자에 대한 의견

- 사례지역 조사 결과, 마을 내 경로당은 대체로 시설이 마련되어 마을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아이들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을 위한 공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를 마친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부모들에게 갑작스런 일이 생기거나 야간근무가 있을 때 혹은 농촌 지역의 일손이 바쁜 시기 등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머무를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수렴됨

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 욕구

■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정책욕구

- 재택맘과 직장맘 고려한 차별화된 돌봄 시스템 마련
 - 재택맘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양육정보 교환과 정서적 교류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직장맘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위한 자녀연령, 부모 근무시간 고려한 공보육과 공교육 돌봄 사각지대 시간 돌봄 품앗이 운영
- 부모들의 커뮤니티 돌봄 소통 공간 조성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유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공공시설 내 돌봄 품앗이 활성화
 - 부모에게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아이가 아팠을 때 등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긍심 회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관계 증진
 - 자녀 양육기 부모 대상 육아 스트레스 해결법, 양육방법, 정보 등 제공
 - 자녀 연령별 학습독서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역 돌봄학습 프로그램 :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노인을 돌보는 자녀의 입장에서의 정책욕구

- 공공시설 내 세대 통합 돌봄 공간 활성화
 - 지역 노인이 혼자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 주기
 -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노인을 위한 돌봄 공간 필요
 -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 노인들과 교류 및 소통 증진을 통한 돌봄 지원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나 방과 후, 농번기 때 등 세대통합 돌봄 운영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성인지적 관점 마을 문화 확산
 -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및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소통 기회 제공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활동하기
 - 지역주민에게 빙떡, 사투리 등 배워주면서 소통하기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활동 프로그램 등

라.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정책 욕구

- 물리적 환경조사 결과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평대 초등학교 인근 돌봄 관련 공공시설 연계 활용 방안 필요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곳 설치 불과
 - 정보 이용과 평생학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필요
 - 안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놀이 공간, 간이체육시설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돌봄기관의 안전성 점검 필요
- 삼성초등학교 주변 안전성과 접근성 점검 필요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아동의 놀이공간 안전성 점검 필요
 - 근린공원의 안전성과 접근 용이성 점검 필요
 - 학교 주변 유흥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도로 개선방안 필요

○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사람중심 보행로 확보 방안
 - 안전한 등굣길과 하굣길 조성(학교 주변 유흥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충분한 인도 폭 확보
 - 사회적 약자 위한 차도와 보도 간 단차 높이 및 완만한 경사로 확보
 - 주민 안전을 위한 주차관리 방안(농촌 관광지 렌터카 주차 공간 조성)
- 안전한 보행길 확보
 - 마을 안전지도 제작
 - 마을 방범과 안심귀가 서비스
 - 밤길 안전한 가로등 정비(농촌지역: 밤길 대안적 조명 마련)
- 안전한 놀이터 및 근린공원 조성
 - 놀이터 및 근린공원 주변 개방적 공간으로 개선
 - 안전한 놀이시설 및 놀이터 바닥 등 정비
 - 놀이터 및 근린공원 내 소통 공간 마련

○ 지역의 접근 편의성에 대한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공간
 -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활용)
 - 수놓음 돌봄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 내 유희 공간 등 활용)
 - 방과 후 돌봄 공간(지역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 혹은 세대통합 돌봄 공간)
 -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정보 교환 및 소통 공간
 - 아이들의 실내 놀이 공간 및 돌봄 공간으로 활용
 - 마을 주민 회의장소 및 나눔 공간 활용
 - 건강관리 및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용

마. 가족친화마을 조성 방향과 구성요소

○ 가족친화마을은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과소평가되었던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 어린이, 노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 공간 및 시설 지원을 통해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임

○ 이를 위한 구성요소를 대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 신뢰관계 형성
-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
- 초심을 잃지 않는 철학
- 국공립 시설의 세대별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지속성과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
- 마을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 활성화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 소통과 배려
- 주민 의식개혁 교육
- 장기적 행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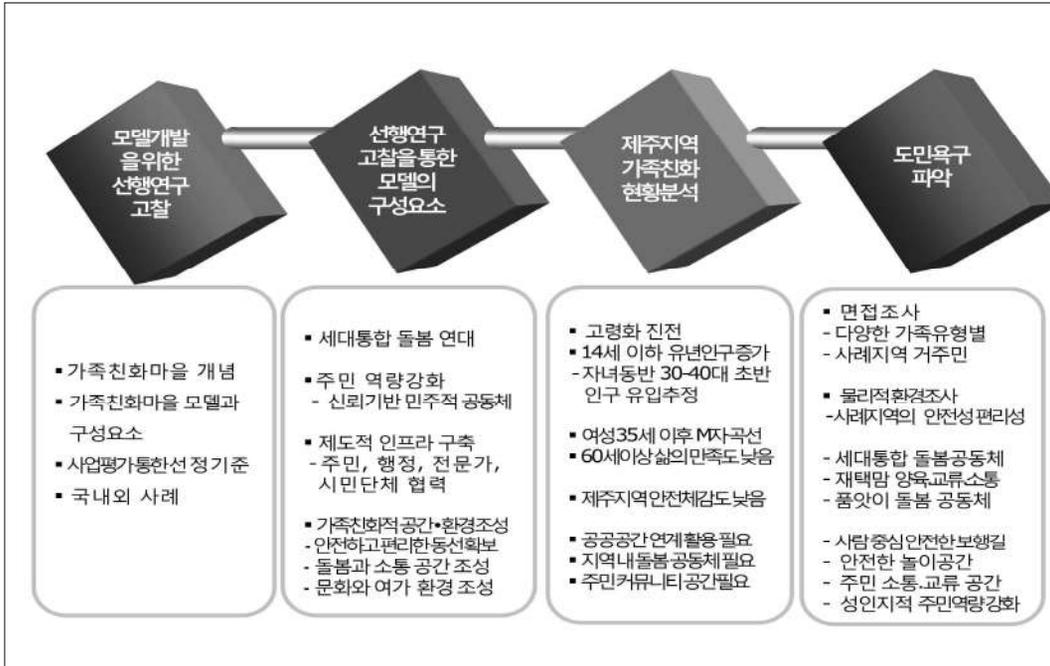
○ 본 조사결과, 사회적 돌봄 가능 공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다는 점과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됨(아래 그림 참조)



제5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1. 모델개발 과정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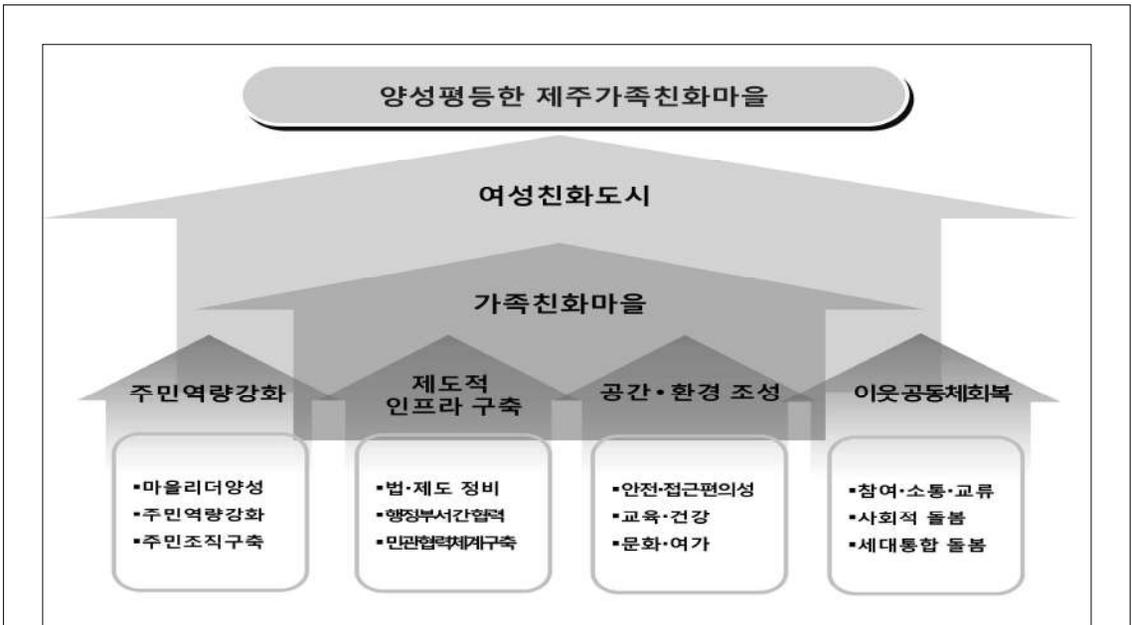
2. 구성틀

가. 기본방향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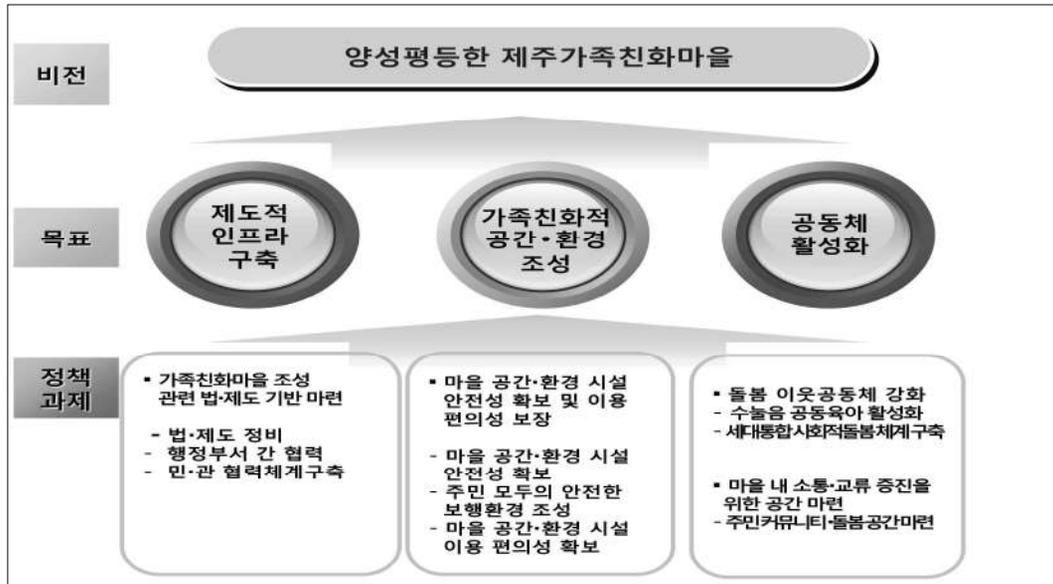
나. 구성요소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을 위한 구성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음



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인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은 다음과 같음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은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9개의 세부과제임. 9개의 세부과제는 행정부서 간, 민·관 협력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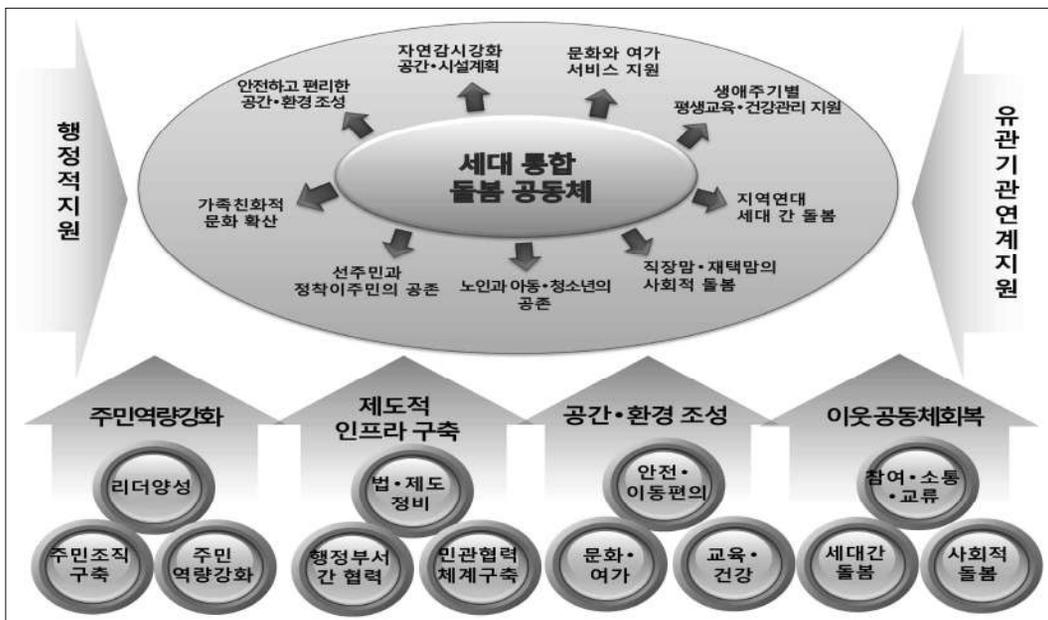
비전 : 양성평등한 제주가족친화마을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추진부서	연계사업
1. 제도적 인프라 구축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⁵⁾		
	1.1.1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1.1.2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중간지원 조직
	1.1.3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포상조례
2.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2.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⁶⁾		
	2.1.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권역 추진 사업
	2.1.2 주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2.1.3 마을 공간·환경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3. 공동체 활성화	3.1 돌봄 이웃공동체 강화		
	3.1.1 수놓음 공동육아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 책사업
	3.1.2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3.2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3.2.1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 마련	여성가족정책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 책사업	
계 : 3개 정책 목표, 4개 정책과제, 9개 세부과제(연계사업)			

5)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제도 정비는 관련 부서 간의 유사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
6) 성인지적 관점으로 공간환경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과, 디자인건축지적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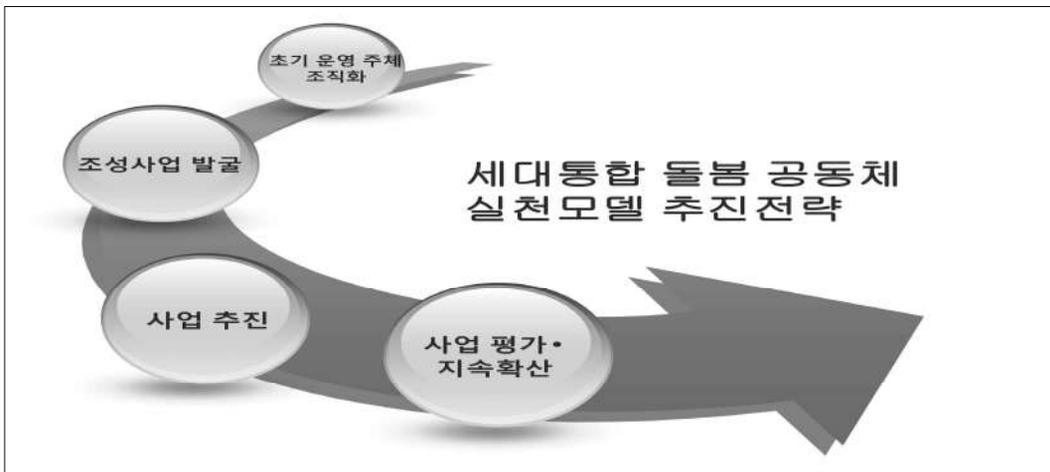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실천됨
 - 실천모델은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주민 역량강화와 누구나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추진 전략을 위해 장기적인 행정적 지원과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이 전제될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실천모델은 아래와 같음



- 실천모델의 세부 유형은 초동주체 형성에 따라 부모 중심 돌봄 조직유형(유형1)과 지역사회 돌봄 조직유형(유형2)으로 분류됨. 두 유형은 지역 상관없이 돌봄 공동체 운영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거나 동시에 운영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제주가족친화마을을 만드는 것임
- 실천모델의 추진전략은 소수의 주체로 시작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

는 것이 중요함. 반대로 현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나 기 추진되었던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에 사회적 돌봄 가치에 대한 재조명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여 실행될 수 있음

- 추진전략은 실천 유형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순서는 아니며, 기존의 마을만들기 경험 여부, 인적 자원의 역량, 물리적 환경 등 마을환경 조성 준비 여건에 따라 서로 교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음



4.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추진방안

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정책과제	세부 과제	추진 부서	필요성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1.1.1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법적 연계사업 기반 마련
	1.1.2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법적 행정협업 기반 마련
	1.1.3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촉진 기반 마련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연계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 : 백만원)	
가칭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마을단위 역량강화 활성화 ※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 지원	2016-2020 (3,390)	지역균형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2016-2020 (30)	여성가족정책과

○ 세부과제에 따른 필요성 및 사례, 추진 방법은 본문에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정비에 따른 개정안
- 가족친화마을 조성 행정 협력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안
- 가족친화마을 지구 내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후원에 따른 표창 및 가산점 부여 방안 제안.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정책과제	세부 과제	관련 부서	필요성
2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2.1.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2.1.2 주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2.1.3 마을 공간·환경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연계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백만원)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설치	2016-2020 (8,998)	재난대응과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와 가로등 조도 개선	2016-2020 (23,500)	건설과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지원 강화	2016-2020 (35)	여성가족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16-2020 (2,050)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사업	2016-2020 (600)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지침 활성화	2016-2020 (1,500)	디자인건축지적과
(여성·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16 (20)	여성가족정책과
주차문제 해결(Green Parking 확대, 주차시설 확충 등)	2016-2020 (106,123)	교통정책과

○ 세부과제에 따른 필요성 및 사례, 추진 방법은 본문에 제시함

- 범죄예방 요소 적용한 자연 감시를 통한 마을 내 위험 요소 제거
-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도로환경 확보
- 마을 내 보행로와 공원(놀이터)을 연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 문화복합공원 조성(개방적 공간 조성)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정책과제	세부 과제	추진 부서	필요성
3.1 돌봄 이웃공동체 강화	3.1.1 수놓음 공동육아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3.1.2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3.2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3.2.1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 마련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연계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 백만원)	
(제주형 수놓음 육아 나눔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 교육,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육아나눔 정보 제공 등 지원	2016-2018 (2,618)	여성가족정책과 ※ 협력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2016-2018 (900)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성장 아카데미)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 ‘찾아가는 학교+가족학교’ 운영	2016-2018 (300)	여성가족정책과 ※ 협력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민을 위한 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2016-2020 (536)	평 생 교 육 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2016-2020 (1,300)	문 화 정 책 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	2016-2020 (20,800)	여성가족정책과

○ 세부과제에 따른 필요성 및 사례, 추진 방법은 본문에 제시함

- 자발적 돌봄 나눔 공동체 조성 과 가정과 마을 주민들 연계로 사회적 돌봄 및 지역 내 작은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을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으로 활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교+가족학교’ 연계 운영

제6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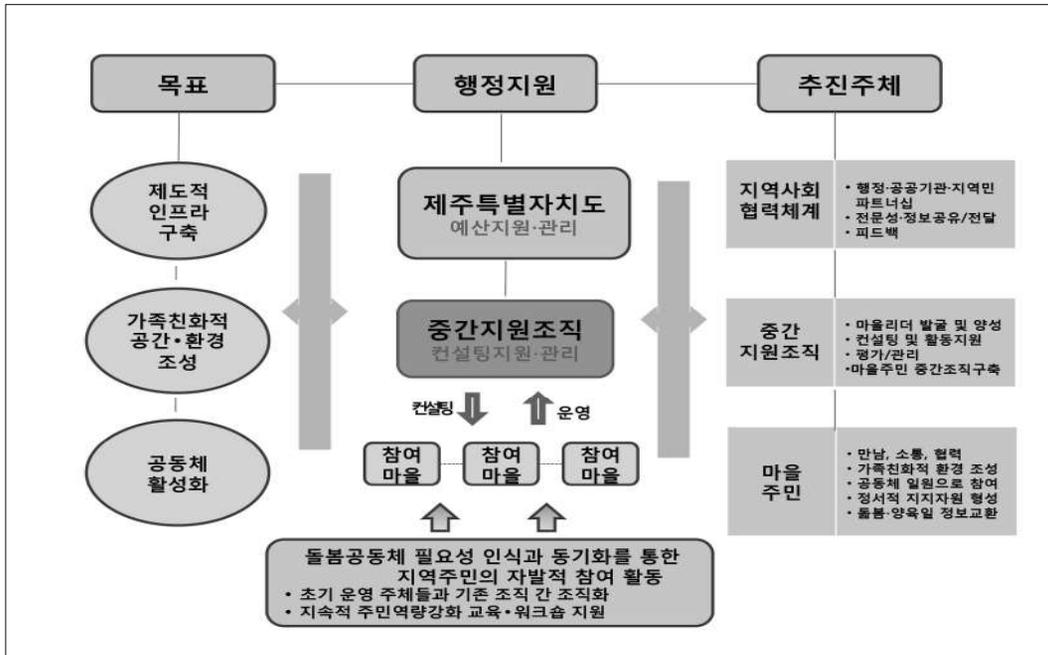
1. 추진체계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의 추진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 지원조직, 참여마을의 주민 조직으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과 같음.

2. 단계별 운영방안

가. 관련 사업 연계방안

-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임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인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델에서 제안한 정책목표와 기존 정책안에서 지향하는 목표 간 연계점을 찾아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추진체계들 간 업무협력이 요구됨
- 육아품앗이 사업이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손태주정여진, 2016)을 감안하여, 연계를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마을만들기 유사사업 간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와 기존 관련 부서의 사업들 간 연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임

나. 단계별 운영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운영은 기반구축기, 정착기, 발전 및 확장기를 통해 실시됨



○ 기반구축기(2016년)

- 법적 연계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흩어져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 자녀의 발달연령별 부모교육, 양성평등 가족학교 및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NGO단체 간 협력 기반 마련
- 사업 컨설팅 및 평가 관리 위한 중간지원 조직 기반 마련

○ 정착기(2017년)

- 공모를 통한 행정시별 시범마을 운영 : 가족봉사단·주민 모니터단 구성·활동지원
- 여성인권단체의 시범마을 주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연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부모교육·상담·양육정보 등 연계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가족학교, 아빠학교 등 연계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족친화센터 연계한 마을만들기 운영 과정 컨설팅 연계지원

○ 발전 및 확장기(2018년 이후)

- 시범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주민 모니터단 확산
-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와 인식 확산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제도 정비

-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 효과를 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수행의지와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행정지원은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족의 삶과 관련되어 단기사업보다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송지 외, 2009)이 감안되어야 함. 즉 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분절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하나의 총체적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주민대상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등의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정비

- 지역사회의 공간과 환경 시설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성되어야 함

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족친화마을의 조성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마을 행사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개선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함.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가 미래세대 육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아이들을 포함하여 3년간의 여론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사례도 하나의 방법이 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절차	6
가. 연구방법	6
나. 추진절차	6

제2장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마을 개념	11
2. 가족친화마을의 모델과 구성요소	13
3. 가족친화마을 사업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16
4. 국내·외 사례	19
가. 국외 사례	19
나. 국내 사례	29
5.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35

제3장 관련 법·제도 및 제주지역의 현황 분석

1. 관련 법·제도 현황	39
가. 관련 법·제도 현황	39
나. 타 시도 가족친화마을 관련 조례 현황	41
다. 마을공동체 사업현황과 추진체계	43
2. 제주지역의 가족친화환경 현황	45
가. 인구학적 현황	45
나. 경제·사회학적 현황	50
다. 물리적 현황	58
3. 소결	64

제4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분석

1. 면접조사 분석	69
가. 조사개요	69
나. 조사결과	71
2. 제주도 사례 선정지역 조사 분석	93

가. 조사개요	93
나. 조사결과	96
3. 소결 : 조사결과 요약	116
가. 마을의 범위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116
나. 사회적 돌봄의 우선 수혜자에 대한 의견	116
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 욕구	116
라.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정책 욕구	118
마. 가족친화마을 조성 방향과 구성요소	120

제5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1. 모델개발 과정	125
2. 구성틀	130
가. 기본방향	130
나. 구성요소	131
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133
가. 비전과 목표	133
나.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137
4.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추진방안	144
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144
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150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157

제6장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운영방안

1. 추진체계	163
2. 단계별 운영방안	165
가. 관련 사업 연계방안	165
나. 단계별 운영방안	167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169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제도 정비	169
나.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정비	169
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170
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170

참고문헌	171
------------	-----

부록	175
----------	-----

표 목 차

〈표 2-1〉 가족친화마을 개념	12
〈표 2-2〉 가족친화마을 관련 선행연구 현황	14
〈표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방향	17
〈표 2-4〉 가족형 모델의 긍정적·부정적 평가	17
〈표 2-5〉 시범사업 대상지의 선정기준	18
〈표 3-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40
〈표 3-2〉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조례 현황	41
〈표 3-3〉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42
〈표 3-4〉 타 시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44
〈표 3-5〉 행정시별 아동과 노인 인구	46
〈표 3-6〉 저출산 해소 정책	49
〈표 3-7〉 삶의 만족도	53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현황	58
〈표 3-9〉 사회복지 시설(2007~2014)	59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현황	61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현황	62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현황	62
〈표 3-13〉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	63
〈표 4-1〉 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70
〈표 4-2〉 동네 자투리 공간을 지역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	72
〈표 4-3〉 문화센터 등 공공평생학습시설 이용 편리성	73
〈표 4-4〉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중요도	75
〈표 4-5〉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주민문화센터 조성 중요도	78
〈표 4-6〉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 추진 중요도	84

<표 4-7> 지역 돌봄 학습모임(양육, 건강, 문화 등) 운영에 대한 욕구	88
<표 4-8> 사례 선정 후보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94
<표 4-9> 사례 선정지역 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95
<표 4-10> 사례지역 일반현황	95
<표 4-11>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안전성 평가 결과	112
<표 4-12>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접근성 평가 결과	114
<표 5-1> 제주 여성친화도시와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간 목표 연계 ...	134
<표 5-2>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35
<표 5-3> 부모 중심 돌봄 조직 유형 적용사업 예시	138
<표 5-4> 지역사회 돌봄 조직 유형 적용사업 예시	139
<표 5-5> 실천모델 워크숍 진행방법(예시)	141
<표 5-6> 실천모델 추진전략	143
<표 5-7> 정책 목표 1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144
<표 5-8>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사업	144
<표 5-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안 ...	146
<표 5-10> 행정 협력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 정비	147
<표 5-11>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149
<표 5-12> 정책 목표 2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	150
<표 5-13>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150
<표 5-14> 정책 목표 3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157
<표 5-1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157
<표 6-1> 분야별 사업 예시(안)	165
<표 6-2> 실천모델을 위한 연계사업	167

그림 목 차

〈그림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배경	3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7
〈그림 2-1〉 독일의 가족센터 운영 모델	23
〈그림 2-2〉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가족센터(2013/2014)	24
〈그림 2-3〉 뉴질랜드 지역책임모델(CRM) 의사결정 과정	25
〈그림 2-4〉 고희쿠의 도로뿌 내부 공간	27
〈그림 2-5〉 성미산 마을	29
〈그림 2-6〉 도토리 방과 후 프로그램 활동모습	30
〈그림 2-7〉 느티나무도서관	31
〈그림 2-8〉 공릉동 꿈마을 축제	34
〈그림 3-1〉 중앙정부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비중 및 주요 사업	43
〈그림 3-2〉 성별 총인구(2007~2015)	45
〈그림 3-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07~2014)	47
〈그림 3-4〉 성별 순이동 인구(2007~2014)	48
〈그림 3-5〉 가족형태별 가구(2000, 2005, 2010)	48
〈그림 3-6〉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2009, 2014)	49
〈그림 3-7〉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4)	50
〈그림 3-8〉 취업자의 일·가정생활 우선도(2011, 2015)	51
〈그림 3-9〉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2014)	52
〈그림 3-10〉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2007~2013)	52
〈그림 3-11〉 성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도(2014)	53
〈그림 3-12〉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4)	54
〈그림 3-13〉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 2014)	55
〈그림 3-14〉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안전도	55

<그림 3-15> 범죄·폭력 등 위험요소 없이 안전한 정도	56
<그림 3-1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56
<그림 3-17>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	57
<그림 3-18> 봉사활동·체육대회 등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57
<그림 3-19> 특수 어린이집 현황(2010, 2014)	59
<그림 3-20> 공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생활 실태	60
<그림 3-21>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성	61
<그림 3-22> 지역의 공공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63
<그림 3-23>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	64
<그림 4-1> 공공시설 내 돌봄시설 활성화 중요도	74
<그림 4-2> 지역에서 보행 시 느끼는 불편함 1순위(장애유무별)	76
<그림 4-3> 안전한 도시디자인 설계와 가로등 정비에 대한 욕구	80
<그림 4-4> 지역과 학교 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욕구	81
<그림 4-5> 사례지역 놀이시설 환경	101
<그림 4-6> 사례지역 도로환경	102
<그림 4-7> 사례지역 실외 놀이(공간) 환경	103
<그림 4-8> 사례지역 주차환경	104
<그림 4-9> 사례지역 주변 시설 분포	111
<그림 4-10>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안전성 평가 결과	112
<그림 4-11>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접근성 평가 결과	113
<그림 4-12> 사례지역 근린생활 환경 평가 결과	115
<그림 4-13> 사례지역 사회적 돌봄 가능 공간	121
<그림 5-1>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과정	125
<그림 5-2> 제주형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	131
<그림 5-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133
<그림 5-4>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실천모델	137

<그림 5-5> 비엔나 시 마리아힐프 자치구 도로 시설 배치도	152
<그림 5-6>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	152
<그림 5-7>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로 요소	154
<그림 5-8> 이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	156
<그림 6-1> 추진체계	164
<그림 6-2> 실천모델 추진전략	166
<그림 6-3> 운영 로드맵	168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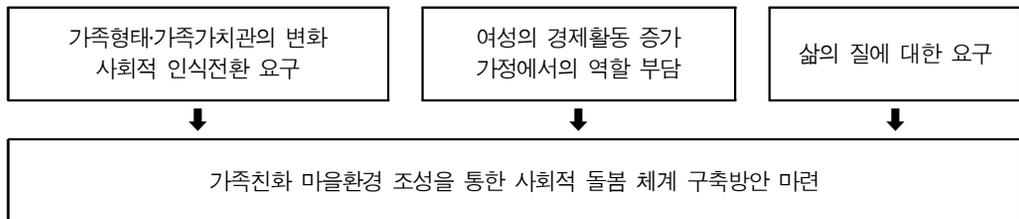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의 급속한 가족형태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추세에 따라 돌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기존의 ‘남성-생계책임, 여성-돌봄책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됨
-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을 제정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해 오고 있음
 - 같은 법령에는 가족친화 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명시하고, 가족친화 제도와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지원함

〈그림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배경



-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9가지 모델 중 하나인 가족형 모델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여성가족부가 강원도 영월, 충남 논산, 전남 장흥 3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음
 - 가족형 모델이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도시정비(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사업의 효과가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임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9년부

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정·협약을 맺은 후 정책적 파트너십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돌봄 공동체를 목적으로 ‘가족친화마을’을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진행함

- 이러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필요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1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한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가능하다는 접근으로 가족친화마을 시범운영, 수놓음 육아나눔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여 사회적 돌봄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국가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2015.7.1)으로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제주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안적 사회적 돌봄과 일·가정양립 정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현황 자료와 가족유형별 면접조사 및 사례 선정지역 현장조사 결과분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모델개발의 방향과 용어를 정의함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 본 연구에서의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 정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양육일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통합을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로 정의함

2. 연구의 내용

○ 모델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친화마을 개념과 모델을 위한 구성요소, 시범마을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방향을 도출함

○ 관련 법·제도 및 제주지역의 현황 분석

-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와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함. 또한 도민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질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의 욕구조사」(2015.5.) 2차 자료 결과를 분석함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분석

- 제주지역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가족유형별 의견수렴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 생활 경험과 가족친화마을 운영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동시에 도시지역에 비해 돌봄 공간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 선정지역의 다양한 가족유형별 면접조사와 물리적 환경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 제주지역에 맞는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의 과정과 구성틀을 마련하여 모델의 기본방향과 구성요소를 도출함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개발에 따른 비전과 목표,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실천 모델의 유형과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별 세부추진 방안을 제안함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 실천모델의 추진체계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안함

3.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위한 관련 선행자료 및 가족친화마을 관련 각종 법률 및 자치법규 등 현황자료 수집·검토 분석 실시함. 또한 국내외 사례 검토를 위한 관련 연구보고서와 웹사이트 검색자료 수집·분석 실시함

○ 질적 연구

-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30명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면접조사 실시함.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천 받은 제주도 읍면 4개 지역 중 기존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과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례 선정지역의 다양한 가족유형별 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함

○ 양적 연구

- 질적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주지역 가족친화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자료와 2015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자료 및 제주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 욕구조사(2015.5.)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함
-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시한 물리적 환경조사는 선정된 사례지역 외에 자녀 돌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 구도심 중 중소형 아파트단지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한 후, 조사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나. 추진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적 설정 •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방법 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착수보고 실시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을 위한 방향 도출 •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해 가족친화마을 법·제도 현황과 사례 등 검토 • 제주의 가족친화환경현황 및 공동체 참여 의향 관련 2차 자료 검토·분석
3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전반적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 방법·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모델개발 방향 등을 위한 의견수렴 등
4단계	면접조사 및 현장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다양한 가족유형별 면대면 인터뷰 실시 • 제주도내 사례 선정지역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결과분석 근거하여 사례대상지역 거주자·활동가 면접조사와 물리적 환경 조사 실시
5단계	공무원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근거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 협의
6단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제안

모델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마을 개념
2. 가족친화마을 모델과 구성요소
3. 가족친화마을 사업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4. 국내 · 외 사례
5.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1. 가족친화마을 개념

- 마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뜻하며, 거주공간, 일터, 쉼터 등 물리적 측면의 생활환경 이외에도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주민, 시민, 이용자 등)이 이루고 만들어 내는 ‘마을 공동체’ 를 말함(추용욱, 2010)
- 가족친화마을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과 여성의 경제활동 일상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가족 내 역할의 변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지원 체계를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조성됨
-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형성은 1990년대 이후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육 및 생활 문제 해결을 모색한 서울 성미산마을과 한 개인의 담장허물기부터 시작된 대구 삼덕동 마을 등 민간차원에서 시작됨(장임숙권진아, 2015)
- 지방자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행정의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중앙정부는 2000년대 들어 부처의 특성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그 중 2006년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형 모델은 당시 여성가족부가 강원도 영월, 충남 논산, 전남 장흥 3개 지역을 시범으로 조성함
- 2007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을 제정하여, 가족친화제도와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같은 법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을 노인 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제2조 4항)이라고 규정함
- 한편,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가족친화마을의 개념은 기존 가족 내 돌봄을 가족중심의 마을공동체,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가 공유, 돌봄 공동체 등으로 전제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둠
- 가족친화적 접근은 사회적 역량과 인프라의 모든 요소들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가정과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와 이웃이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지원(장임숙 외, 2015)과 같이 돌봄자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돌봄자의 관점에서 가족친화정책은 직장파와 지역사회가 서로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

며, 가족과 그 가족 안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에 대한 여성친화적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안희정·이갑숙, 2010)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지자체와 지정·협약을 맺은 후 정책적 파트너십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가족친화마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웃 간 상호소통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사업화함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가족친화마을환경’ 은 돌봄과 소통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가족친화마을이며, 가족친화마을 조성의 핵심 주체로 여성 활동을 활성화하여 가족친화마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여성가족부, 2010)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족친화마을은 ‘지역사회 정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양육일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통합을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로 정의함
-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가족친화마을 개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 가족친화마을 개념

구분	가족친화마을 개념
장임숙 외(2015)	· 지역사회 내 직장과 가정, 부모와 자녀, 노인과 청년의 공간적·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과 요구를 지원하는 가족중심의 마을공동체
조한혜정 외(2012)	· 여성이 가정 내에서 떠맡아 오던 역할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공동체를 통해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구성원들 각자에게 행복한 공간이란 가족 공통의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환경
차성란(2010)	·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
이송지 외(2009)	·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
홍승아 외(2007)	· 아동, 성인, 노인 등 가족의 책임 수행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박소현 외(2007)	·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한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욕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
여성가족부(2006)	· 가족구성원별 요구시설을 고루 만족시키며, 이들이 걷기 좋은 가로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마을환경
Voydanoff(2001)	· 지역사회조직, 사회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공식적인 자원봉사, 비공식인 지원, 지역공동체 의식, 지역공동체 만족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 지역사회

2. 가족친화마을의 모델과 구성요소

-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연구는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맞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된 가족형 모델의 시범사업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관련 연구가 시작됨
-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서울대학교 박소현 교수 등이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따른 가족친화환경 평가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고, 가족친화시설의 질적 평가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수행함
- 홍승아 외(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통해 개인의 생활과 가족의 돌봄책임,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모형개발연구를 수행하였고, 아동, 성인, 노인 등 수혜대상별로 실천전략을 제시함
- 2009년 정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맞춰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된 이송지 외(2009)의 연구에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모델을 제시하였고, 도시형에서는 주민주체 수준별로 기관주도형과 주민주도형으로 구분함
- 2009년 이후 가족친화마을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10대 사업에 포함되어 주민의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련연구는 육아품앗이나 마을육아공동체 모델개발 등으로 돌봄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수행됨
 - 이런 배경에 맞춰 육아품앗이 모델 연구(김현희 외, 2014)와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남승연 외, 2015)을 통해 자녀의 돌봄을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와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지역주민으로 구성주체별 모델을 제안함
- 장임숙 외(2015)의 연구에서는 수혜대상별, 주민주체별로 모델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지역특성별로 도심형과 도농복합형 모델과 기능별로 가족돌봄형, 가족복지형, 문화여가형, 마을경제형 모델로 세분화하여 제시함. 또한 장임숙 외(2015)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구성요소로 차성란(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보다 확장하여 사람키우기, 마을세우기, 관계맺기, 일감나누기로 제시하여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강조함
-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족주체의 민주적 자치 공동체, 민관 협력, 장기적 과정, 양적·질적 공간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

고 있음. 즉,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세대통합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 역량강화,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한 사용 여건 마련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일치함

1)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개별 가족 간, 세대 간 서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과 돌봄의 가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분담으로 인식하고, 마을 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돌봄의 세대통합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임

2) 주민 역량강화

개별 가족 간 서로 협력하여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 내 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마을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마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임

3) 제도적 인프라 구축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적 과정으로 지역민의 대상별 요구를 수렴하여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4)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이 확보된 ‘돌봄과 소통 공간 조성’은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건강’과 ‘문화여가’ 환경을 확보하는 것임

〈표 2-2〉 가족친화마을 관련 선행연구 현황

연구명(출처)	조사방법	구성요소	주요원칙	모델유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장입숙 외, 2015)	<사례연구> · 표본수: 3곳 · 현장방문 및 활동가 심층면접 <설문조사> · 표본수: 545명	· 사람키우기 · 마을세우기 · 관계맺기 · 일감나누기	· 민주적 자치공동체 · 가족 주체 · 민관협력 · 질적인 장기적 과정	<지역특성별> · 도심형, 도농복합 <기능별> · 가족돌봄형, 가족복지형, 문화여가형, 마을경계형

연구명(출처)	조사방법	구성요소	주요원칙	모델유형
경기도형 마을육아 공동체 모델개발 (남승연 외, 2015)	<사례연구> · 표본수: 5곳 · 운영자 및 참여자 인터뷰	<정책방향> · 자발성 · 지역네트워크 · 시범사업	· 재택맘(전업주부) -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정보공유 · 워킹맘(직장여성) - 돌봄공백 해소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대상별> · 재택맘: 전업주부 - 구성주체: 부모 - 육아품앗이 or 부모협동어린이집 · 워킹맘: 직장여성 - 구성주체: 지역주민 - 사회사업 or 지역연계
지역사회 육아품앗이 활성화 모델 개발 (김현희 외, 2014)	<설문조사> · 표본수: 139명 · 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품앗이 참여자 <면접조사> · 표본수: 10명		· 정서적지지/공감대 · 정보교환 · 프로그램 제공 · 공동체 역할학습 ·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가족품앗이 사업 · 지역사회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구조 지향
여성친화 도시 조성 매뉴얼(여성가족부, 2010)				· 비전 :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 가족친화마을조성은 여성친화도시 10대 과제 중 9번째 심화과제 - 목적 :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 돌봄 참여 등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차성란(2010)	<사례연구> · 선행연구 분석	· 삶터 만들기 · 사람 만들기 · 공동체만들기	· 과정에 대한 검토와 이해 · 장기적 관점, 접근 · 지역주민 자발적 해결방식 · 행정의 장기적 지원	<추진모델 제시> · 동기화 · 비전, 공동체, 기본이념 · 체계화 - 리더/활동가 교육진행 · 참여와 실천 -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이송지 외, 2009)	<사례연구> · 표본수: 5곳 · 현장방문 및 활동가 인터뷰 - 표본수 : 18명	· 기본권 · 돌봄 · 문화 · 교육 · 건강 · 경제 · 환경 · 통합 · 생활	· 협력과 지원 - 개별 가족 간 - 마을과 가족 간 - 사회적 지원 간	<현재 주민주체 수준별> · 도시 I: 기관주도형 · 도시II: 주민주도형 · 농촌형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홍승아 외, 2007)	<실태조사> · 표본수:500명 - 12세이하 자녀 양육하는 부모 (300명) - 65세이상 노인 (200명)	· 지역사회 철학 · 서비스인프라 · 시민참여 및 네트워크	· 경제적 지원 - 양질의 서비스/이용 · 공간적 지원 - 접근성/안전성 · 시간적 지원 - 가족친화적 운영	<수혜 대상별> · 아동 · 성인 · 노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홍승아 외, 2007)	<실태조사> · 직장환경조사 - 표본수:16명 -대상:인사담당자와 근로자 · 지역사회조사 - 표본수:500명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병행 ·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경제적 지원 - 양질의 서비스/이용 · 공간적 지원 - 접근성/안전성 · 시간적 지원 - 가족친화적 운영	<수혜 대상별> · 가족친화적직장환경 - 생애주기별 근로자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 아동 - 성인 - 노인

연구명(출처)	조사방법	구성요소	주요원칙	모델유형
	- 12세이하 자녀 양육하는 부모 - 65세이상 노인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연구 (박소현 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가족친화마을 조성의 기초작업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지표개발 · 방법 -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시설지표(보육, 교육, 문화, 여가, 사회복지, 근린상업 등)와 네트워크 환경(시설 간 이동 안전성과 접근 편리성 등)지표 마련 - 사례대상지 선정 후 적용 평가 			
가족친화형 마을조성, 「가족형 모델」 (여성가족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 경쟁력 있는 근로환경 ·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소통과 관계증진 · 돌봄의 사회화 - 육아와 노인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p><연령별 · 대상별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네트워크, 연대 -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직장여성, 미혼모, 노인 등

3. 가족친화마을 사업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 2000년 이후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부처별 사업의 성격에 맞춰 도시정비(개발)와 거점형 주거환경개선, 지역자원 활용 사업,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사업 등과 마을만들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최인수 외, 2014)
 - 이러한 사업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에 의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지역자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생활기반 조성, 삶터 가꾸기 등을 위한 지원을 지향함
-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기획을 시작하여 이후 3년간 진행된 사업임(박소현, 2012)¹⁾
 -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도시로 편중된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 악화, 획일적이고 지역특성 상실, 관 주도 방식에 따른 자발성 소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9개의 기본모델을 기획하여 2007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됨
 - 주목할 점은 주민참여를 뜻을 가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중앙정부와 해

1) 김기호·김도년·김세용·김은희·박소현·박재길·안현찬·이영범·이윤석·장옥연·허윤주·황희연. 2012. p.235~260.

당 지자체가 강력히 주도하고 지원하는 체계 안에서 소위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임

〈표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방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깨끗한 자연 이웃 공동체 경제적 성장 가능성 편리성	마을 (농촌, 어촌, 산촌, 도시)	꿈을 그리기 관계 만들기 마을 보물 찾기 사람 세우기 공통의제/일감 발굴 민주적 협의체 더불어 나누기

- 가족형 모델을 통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학제 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융합될 수 있도록 고려되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동시에 사업초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공무원과 관련이 깊은 주민대표 중심으로 시설계획 위주의 추진으로 인해 목표설정 대비 큰 성과가 없었던 부정적 평가도 공존함

〈표 2-4〉 가족형 모델의 긍정적·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제 간 논의, 마을만들기 새로운 개념 정립 · 지역특성 반영, 주민참여 기반 기본 계획 수립 ·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융합 고려 · 지속적인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 바람직한 목표설정과 달리 후반기에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 답습 - 시설계획 위주로 진행한 행정의 실책 · 새로운 계획 내용에 대해 불편해 하는 지역 담당 공무원의 관성 · 해당 지자체 인정받는 주민대표와 다양한 주민조직 간 소통부족 및 괴리현상 · 사업시행 후 제대로 된 평가분석 없이 유사사업 진행에만 집중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을 분석한 신중진 외(2013)의 결과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지원한 52개 대상마을 중 36개소(69.2%)가 마을만들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마을만들기 경험의 유무가 10.3%의 지속율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불

때,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장기적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즉 공모사업이 제한된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을의 리더의 역량 정도는 사업의 추동세력으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는 그 과정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마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됨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내는 기반인 주민역량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율에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지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역할로 작용됨. 그 대표적인 마을공동체의 사례가 대구 삼덕동, 성미산마을, 부산물만골의 마을공동체 사업임(이윤석, 2012)²⁾

〈표 2-5〉 시범사업 대상지의 선정기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 민+관 사업추진협의회. 역량, 다양한 주체의 협력 · 실현가능성 Feasibility - 예산확보, 여건확보, 기대효과 · 사실여부 Fact Confirm - 사업계획서 내용 사실확인 · 지자체 의지 Municipalities Volition - 단체장 의지, 행정의 지원 체계 구성, 계획단계에서의 행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 민+관 사업추진협의회, 역량, 다양한 주체의 협력,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 실현가능성 Feasibility - 예산확보, 여건확보, 기대효과 · 지자체 의지 Municipalities Volition - 단체장 의지, 행정의 지원 체계 구성, 계획단계에서 행정의 참여,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operation - 시범사업에의 주민참여, 주요 단체, 기관의 참여 - 마을만들기 센터 및 조례 운영 - 유사 공모사업의 운영 여건 확보 · 실현가능성 Feasibility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내용의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의 파급효과, 상호연계를 통해 특성화 가능여부 - 단계별 추진 여건 및 잠재력, 단계에 맞는 예산배분 · 사업주체 추진역량 Project Promotion Capabilities - 추진협의회회의 경험, 실적, 역량,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내용이해, 협력 의지 · 지자체 의지 Municipalities Volition - 예산 및 행정측면의 지속적 지원의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적 혹은 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

자료: 신중진 외(2013). p. 46.

- 이상의 결과, 본 연구의 가족친화마을 사례 대상지 선정기준은 첫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협력정도, 둘째, 지역에서 상호 연계하여 파급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

2) 김기호·김도년·김세용·김은희·박소현·박제길·안현찬·이영범·이윤석·장옥연·허운주·황희연. 2012. p.266.

셋째,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사업추진 역량, 넷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활동가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친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곳으로 함

4. 국내·외 사례

가. 국외 사례

1) 독일의 세대 간 통합 지역연대 및 가족센터 운영모델

- 독일은 오랜 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지방분권적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에 대한 분담과 동시에 세대 간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를 만듦
-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2004년부터 각 지역사회 간에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상호교류와 후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돌보는 활동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노인세대도 젊은 세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접근으로 변화되어 진행되고 있음(홍승아 외, 2007)
- 지역연대의 활동영역은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노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주체적 삶의 자세를 갖추고 그동안 노인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BMFSFJ, 2006; 홍승아 외, 2007 재인용)
 - ① 아이들 교육의 책임은 마을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영역
 -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고, 아이들 역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적 역할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영역임
 - ② 세대 통합 공동 활동을 강조하는 영역
 - 노인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참여의 기회와 적절한 활동을 강조하는 영역임. 아이들은 노인세대와 만들기를 한 다거나 학교 숙제를 해결하는 등 학업수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에 노인세대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영역임

③ 아동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역

- 아동보육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에 맞춰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소, 시간, 형태 등에 따라 융통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원칙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원칙이 강조되는 영역임. 특히 아동보육의 영역은 지역연대 활동 중 중요한 부분으로 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필요한 경우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보육이 제공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유아 돌보미 공간마련 등 과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이 영역의 지역연대는 지역 아동들의 양육에 대해 지역의 교육가, 기업인, 부모,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해결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음

④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영역

-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은 아동보육과 함께 지역연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가정과 연계된 서비스, 융통적인 보육과 돌봄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⑤ 지역 시민의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는 영역

- 지역연대의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에 지역의 다양한 기관, 시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역으로, 시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심에 따라 기꺼이 참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음

⑥ 아동과 가족을 배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영역

-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을 배려하지 못하는 교통정책이나 거리환경 등에 대한 생활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과정에 지역연대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임

⑦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을 강조하는 영역

-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들의 출생부터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건강과 예방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아동뿐 아니라 노인, 환자 등에 대한 관심까지 강조함

- 한 예로 독일의 헤센 주는 ‘가족을 위한 지역’으로 불릴 정도로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홍승아 외, 2007)
- 모범적인 가족친화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① 캥거루

- ‘캥거루’라 불리는 지역연대의 프로그램으로서, 취업부모의 아동이 갑자기 아플 경우나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지원함. 이 지역의 주부협회회원인 8명의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후원활동을 하고 있음

② 대(代)부모관계와 멘토링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2-3명의 청소년이 대부(代父)나 대모(代母)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상담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대부모들은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2000년 Nuernberg에서 개최된 독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이 지역의 프로그램이 ‘세대 간의 대화’라는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하였고, 2005년 헤센 주의 공모전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로 Neu-Isenburg가 수상함

③ 방과 후 과정

- Felsberg의 지역연대는 초등학생(6세-14세)을 위한 방과 후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둠. 이곳에서는 과제물 지도와 자유여가 시간을 활용한 공동의 점심식사를 위해 함께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철저하게 전문가에 의해 교육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과제물 지도는 노인세대들이 명예직으로 함

④ 청소년 취업 지원

- Neu-Isenberg의 청소년부는 1997년부터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노인세대를 활용하여 매주 1~2회 정도 청소년과 노인세대의 만남을 통해 상담과 훈련, 취업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의 멘토링을 구축하고 대부모제도도 도입하여 이 지역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되었고,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함

⑤ 조부모의 환경수업

- Ahlheim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 아동들을 위해 환경 전문가 되다’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업을 통해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 공생의 삶을 재조명하도록 진행함

⑥ 노인들의 아동보육

- Frankenberg의 ‘대(代)할머니와 대(代)할아버지’ 는 노인들이 아동들을 보육하는 프로그램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학교 방과 후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들을 보육하는 형태로 활발히 참여함

⑦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만남의 공간

- Kirchhain의 “모든 세대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만남의 공간” 은 광범위한 아동, 청소년과 어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하나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냄
- Melsungen에서도 지역 내 공원을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친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범죄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둠

○ 동시에 독일은 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아동가족 친화적 정책을 실행함. 이를 위해 새로운 육아지원 모델로서 지역 내 ‘교육보육돌봄’ 중심의 돌봄기관(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을 가족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가족센터로 확장하는 정책인 Family Center 프로젝트를 실행함(서수경, 2014)

○ 대표적인 운영모델은 한지붕 모델, 파일럿 모델, 갤러리 모델이 있으나, 한지붕 모델과 갤러리 모델이 공간, 인력, 시스템 마련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로 인증 받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파일럿 모델을 취함

- ① 한지붕 모델은 가족센터로 인증 받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이 돌봄과 상담은 물론 가족교육과 지역카페 등 운영을 통해 모든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형태임. 통합 프로그램의 총괄은 어린이집 책임자가 총괄하게 되며, 지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센터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수행함

- ② 파일럿 모델은 지역의 어린이집이 중심이 되어 학교, 상담, 치료기관 등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형태임. 즉, 어린이집이 개인과 서비스 기관 간 연결기능을 하여 중앙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상담, 자조모임 등 협력체계로 관련 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연합가족센터도 있음
- ③ 갤러리 모델은 가족센터 내에서 각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그러나 공간과 인력 등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 운영에 제한적인 모델임

<그림 2-1> 독일의 가족센터 운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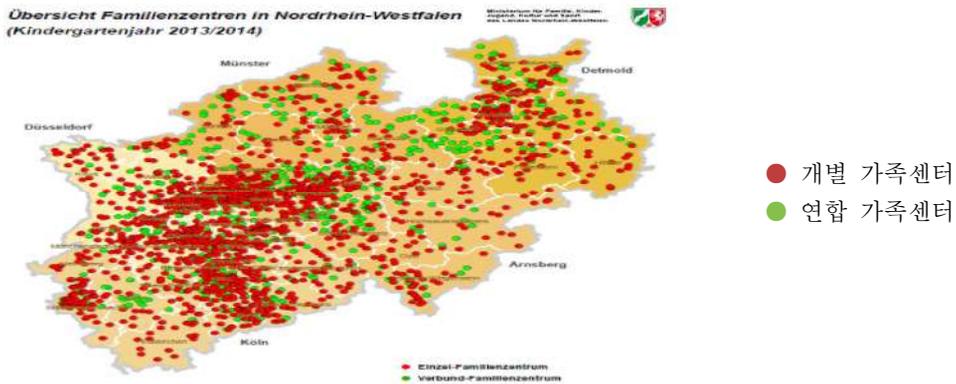
자료: 서수경, 2014.

- 제시된 운영모델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족센터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임
 - ① 기존 어린이집을 교육·보육돌봄을 위한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함
 - 독일 가족센터 프로젝트는 지역 내 흩어져 있는 가족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 사업, 프로그램 연계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게 가족센터 인증을 부여하여 기능을 확장한 사업임. 이는 기존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서비스와 지역 주민들 간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함
 - ② 지역 접근성을 두고 거주지와 가깝고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함

- 가족센터는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함

○ 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최고의 아동가족친화적 주정부 목표를 세우고 2006년 시작한 가족센터 확대·전환 프로젝트 결과, 가족센터로 인증받은 기관은 개별 가족센터와 연합 가족센터를 포함하여 2009년에는 1,750개, 2013년엔 2,950개에 이룸

<그림 2-2>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가족센터(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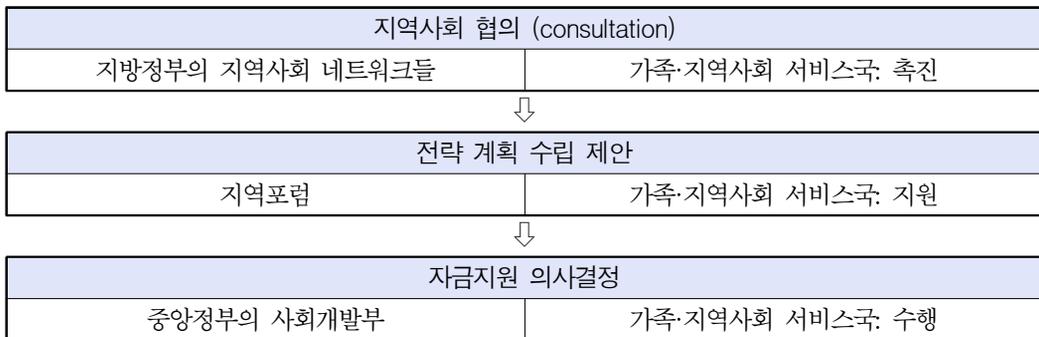
자료: 서수경, 2014.

- 독일의 가족센터 프로젝트의 성과는 첫째,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영유아 돌봄과 다양한 가족의 포괄적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내 가족친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둘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신뢰성과 접근 용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점임
- 독일의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 사례는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의 돌봄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동시에 노인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세대통합 공동체 모델을 제시함. 제주 지역 내 가족친화 환경을 위해 접근하기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춘 거점 돌봄기관에 대한 고민과 가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 기반으로 인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줌

2) 뉴질랜드의 지역책임 모델

- 뉴질랜드의 아동 친화적 가족정책은 사회 개발부의 가족·지역사회 서비스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발전계획과 실행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
- 뉴질랜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역책임모델(CRM: Community Response Model)을 도입하였으며, 책임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개별 가족들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해결책을 찾음(김선미 외, 2011)
- 동시에 뉴질랜드의 지역책임모델은 중앙 정부의 사회 서비스 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14개 지역 전역에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을 제안함
- 뉴질랜드의 지역책임모델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3> 뉴질랜드 지역책임모델(CRM) 의사결정 과정



자료: 김선미 외, 2011.

- 일레로 오클랜드 시는 미래세대 육성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여성과 가족이 자녀를 기르면서 안전하게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가족 간 상호지원 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지역조성을 목적으로 가족정책을 실시함
- 오클랜드 시는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눈높이 정책과 3년간 여론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가졌으며, 2002년 ‘함께 키우자(Grow up together)’ 를 모토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시작함(김선미 외, 2011)

- 이런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오클랜드 시 S.K.I.P(Strategies with Kids-Information for Parents)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의 하나로 자녀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이 기관은 ‘부모는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 가족의 식사 챙기기,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과 옷 기부, 부모가 쇼핑하는 동안 아이 맡아 돌보기, 아이돌봄 팁, 도서관 책 반납해주기, 놀이동영상 등 작은 도움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뉴질랜드 사례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줌
 - ‘자녀를 지역이 함께 키우자’는 모토에 맞춰 최근 아빠들이 연차 휴가를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부모들 사이에 자녀 돌봄과 양육 방법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즉, 제주 지역의 안전한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의 정보 교류 등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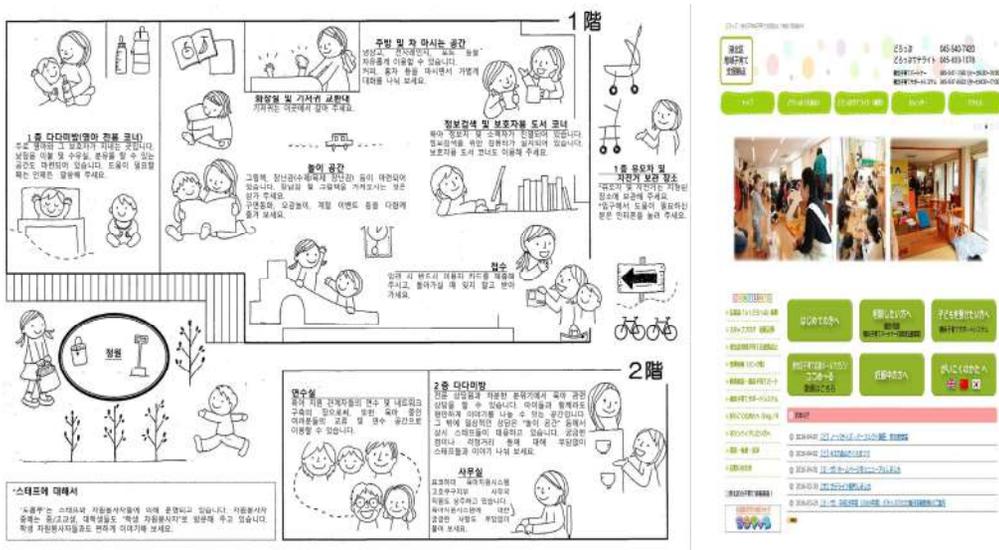
3) 일본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공동체 조성

- 일본의 자녀양육정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족을 고려하여 지원됨.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육아와 동시에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가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양육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 정책은 육아기에 있는 개인과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는 접근임. 지역사회는 물론 앞으로 육아기를 맞이할 예비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시행의 주체가 국가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례로 일본의 요코하마 시 고호쿠 구는 2011년 현재 ‘개성있는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실현’을 시행하

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이 꾸준히 시행됨(김선미 외, 2011)

- 지역사회 협력체계인 ‘비노비노’는 자녀를 키우는 한 주부가 집에서 엄마와 아이가 고립되어 육아를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초가 되어 만든 부모모임임. 이 모임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수월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양육지원을 시민활동의 하나로 생각해 스스로 해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것을 행정에 요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 ‘비노비노’가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인 ‘도로뽀’는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육아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아이의 성장과 육아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요구하는 열린 모임으로 운영됨
- 운영방식에서도 ‘비노비노’는 육아 지원 서비스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행정과 운영 법인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의방식으로 진행함

<그림 2-4> 고히쿠의 도로뽀 내부 공간



자료: 고히쿠의 도로뽀 홈페이지(www.kohoku-drop.com).

○ 또 다른 예로, 도쿄도 세타가야 구는 1970년 지역 난개발을 거부하며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

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단과 공간을 만듦. 이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의 보건·복지·의료 분야까지 확대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개됨(김선미 외, 2011)

- 세타가야구는 1999년 ‘아동을 둘러싼 환경 정비 플랜’을 만들고 그 기본 방향의 하나로 양육지원을 설정함. 2000년 초반 이후에는 젊은 인구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양육 불안의 해소, 상담, 양육커뮤니티의 형성, 양육 지원, 양육문제의 발견-해결, 양육 의식 만들기, 양육 즐기기 등의 사업을 통해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을 펼쳐옴

① 육아살롱은 재택양육지원 사업의 하나로 육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서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할 뿐 아니라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소통하며 친구가 되는 공간임

② 마마체리네트는 일과 양육 병행에서 오는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이 양육에 도움을 준다면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접근함. 양육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 지역 밀착형 신뢰할만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함

③ NPO법인 세타가야 육아네트는 지역 내 다양한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녀양육 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위한 ‘육아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목표로 다양한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지원함.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인 ‘카키오맵’은 마을의 다양한 육아정보를 인터넷 지도에 표시해 어머니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함

○ 일본의 사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육아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지역이 함께 돌보는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된 ‘육아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줌. 이는 제주 지역에서 육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모들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촘촘한 관계망을 통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줌

나. 국내 사례

1) 함께 돌보고 배우는 ‘마을이 놀이터’인 성미산 마을

○ 성미산마을은 서울에 있는 ‘돌봄’ 과 ‘배움의 공동체’ 를 실현한 마을공동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곳으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들의 네트워크’ 를 말함

-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후, 2001년 성미산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과 성장에 쫓겨 공동체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모여 마을과 개인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을 협력하여 즐겁게 해결하고자 만든 주민 자발적 참여 공동체가 바로 성미산 마을임

<그림 2-5> 성미산 마을



협동조합-작은나무



일공동체-성미산공방



공동육아협동어린이집- 또바기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도토리방과후

자료: 성미산마을 홈페이지(<http://cafe.daum.net/sungmisanpeople>)

○ 성미산 마을은 육아와 교육 등 안전망이 없는 사회로 인한 일상적인 불안을 ‘혼자’ 가 아닌 ‘함께 ‘ 풀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일상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낸 마을공동체라는 점이 큰 특징임(박재동·김이준수, 2015)

-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서로 간에 결집과 공동 실천의 능력을 키우게 되어 더욱 강한 연대의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까지 확장함. 그 성취감에 힘입어 이후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순간부터 맞벌이 부모의 저녁 퇴근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도토리 방과 후’ 배움터도 실천되고 있음

<그림 2-6> 도토리 방과 후 프로그램 활동모습



출처: 도토리방과후홈페이지(<http://cafe.daum.net/mapodotori>)

- 성미산 마을은 행정이나 지역의 리더가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든 소통과 정보교류의 문화가 지역 주민의 삶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실현해 낸 산물임.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시작한 공동육아가 성미산 학교와 방과 후 학교까지로 확장된 사례는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함

2) 부산 반송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느티나무 도서관’

- 부산 반송마을은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도심 철거민의 집단이주에 의해 형성된 마을임(장임숙 권진아, 2015)
 - 1998년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공무원, 주부, 청년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을 결성하였고, 이들이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문제 토론회 등 소모임 활동이 만들어짐. 마을사

람들은 개인적인 활동 자체들이 단체와 전체 마을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키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됨

- 여성과 주부 중심의 모임으로 시작된 초기 반송 마을공동체는 2000년대 이후부터 남성이 참여하는 ‘좋은 아빠모임’ 이 개설되었고 차츰 ‘좋은 아버지 학교’, ‘자녀와 함께 떠나는 캠프’ 등으로 확대됨. 이런 변화는 2001년에 주민대표들 중심의 반송지구발전협의회를 창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됨
 - 지역공동체가 꾸준히 활성화되면서 2005년 희망을 꽃피우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으로 명칭을 바꿈. 반송 마을공동체는 반송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2007년 느티나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됨
- 느티나무 도서관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청소년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하였고,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는 학교가 되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 아줌마 아저씨들과 수다를 떨며 서로 어울리는 주민의 소통공간인 ‘마을학교’ 임(조한혜정·박영숙 외, 2012)
- 그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 상관없이 날마다 마을의 어른들은 물론 친구들과 서로 어울릴 수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더 큰 배움’ 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터가 됨
- 느티나무 도서관 사례는 마을의 다목적 소통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엄마가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방이나 놀이터가 되면서 지역 주민 누구와도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보여줌

<그림 2-7> 느티나무도서관





자료: <http://injelibrary.tistory.com/172>

3) 파크리오 아파트의 놀이터 공유 도서관

[아파트 공동체 ‘파크리오맘(<http://cafe.naver.com/parkriomom>)³⁾]

- 파크리오는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임.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만들어낸 ‘파크리오맘’은 아파트를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인터넷 카페 ‘파크리오맘’을 개설한 카페지기 ‘미달이(별명)’는 첫아이를 낳으면서 예전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었고, 주위에 친구가 없어서 우울할 때 주변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경험 등을 통해 파크리오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인터넷 카페부터 개설하게 됨
 - 회원들의 주 연령층은 30~40대이며 이들의 공감대는 “너도 엄마, 나도 엄마”임. 모두 엄마라는 정체성을 공유한 것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시작이 되었으며, 엄마들끼리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파크리오맘을 열게 된 것임. 이웃들이 많아지면서 2009년 봄, ‘새봄 초록 파티’라는 소규모지만 제1회 정기모임을 열게 되었고, 10회 이상 하면서부터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파크리오 단지의 행사로 받아들이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가 됨
- 파크리오의 또 하나 주목한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놀이터 공유 도서관’임. 보통의 아파트 놀이터와 달리 파크리오의 놀이터에는 놀이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과 놀다가 책을 읽으며 쉴 수도 있고, 아이를 데리

3) 박재동·김이준수.2015.

고 나온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됨. 놀이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을 익히고 말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아파트 내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됨. 이와 같은 사례는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임

- 놀이터 공유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는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주민들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차츰 결실을 맺게 되면서 노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세대 교감의 장소가 됨
 - 놀이터를 매개로 진행된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가 함께 책을 읽어 주는 모습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고, 지금은 동화 구연과 독서 토론, 독후감 대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장되어 진행됨
- 파크리오맘 개설자인 ‘미달이(별명)’는 “마을이라는 곳은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집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 지 관심을 두고,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도 아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삭막한 아파트지만, 파크리오맘은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물론 누가 낫 집 아이들인지 알고 같이 키워간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함. 이는 아파트가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아파트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 진다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소통의 즐거움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찾고 교류하면서 그곳에 오래 눌러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란 것임
- 파크리오맘의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복지관, 놀이터 등 공공의 장소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4) 서울 공릉동의 교육격차를 없애는 마을 ‘꿈마을 공동체’

-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꿈마을 공동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문화공동체임. 극단 ‘즐거운 사람들’과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인연이 되어 16개모임으로 구성된 꿈 마을 공동체는 공릉동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마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회의에서는

마을과 관련된 현안을 얘기하고 마을의 축제와 같은 행사를 마을 주민들과 꿈마을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박재동·김이준수, 2015)

〈그림 2-8〉 공릉동 꿈마을 축제



꿈마을 선언문

꿈마을 어린이 잔치



공릉동 청소년문화센터

아이들과 함께 콩주머니를 힘차게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gov.seoul.go.kr/archives/533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h1973730&logNo=220367532478>

- 마을의 리더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끈 일례로 2013년부터 진행된 마을 축제가 있음. 이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추진인력은 공릉동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자기 삶과 일의 터전인 리더와 그 외 참여 주민들 및 학부모들임. 이들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매년 5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와글와글축제’ 를, 9월에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각종 모임이나 단체들이 함께 하는 ‘꿈나르샤 축제’ 를 개최함
- 공동체 사례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지만, 실제 마을의 축제와 같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협동’ 과 ‘공유’ 의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 지를 보여줌

5.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을 위한 방향의 핵심은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보장, 행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의 공간환경 조성임
 - ①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해 개인과 가정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서 육아기를 맞이하는 예비부모부터 황혼기 노인들까지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가 요구됨
 - ②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추진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보장되어야 함. 즉, 가족친화마을이 지역 주민들의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끼리 만남과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자치민주주의 공동체가 실현이 요구됨
 - ③ 행정적 지원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가족정책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실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모임과 지속적으로 지역연대를 결성하는 것임. 즉 안정적 행정의 지원과 동시에 민관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는 필수적인 요소임
 -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환경의 시설계획은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연친화적이어야 함. 따라서 다양한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안전하고 이동 동선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지역민 모두에게 위험요소가 없도록 자연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조성되어야 함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관련 법 · 제도 및 제주지역의 현황 분석

1. 관련 법 · 제도 현황
2. 제주지역의 가족친화환경 현황

1. 관련 법·제도 현황

가. 관련 법·제도 현황

- 2007년 정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과 같은 법 시행령(2008.6.11)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함
 - 여성가족부는 2012년 같은 법 제13조 2항의 개정(2012.2.1)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 마을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주 도민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촉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6.11)를 제정하고, 제2조 4항에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해 명시함
-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여성가족부가 지역의 성 평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1년 12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로 지정되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2.4.6)를 제정함
- 한편, 국가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양성 평등 정책 추진과 실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됨
 - 따라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근거하여 제주도민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가족행정 간 협력체계 활성화가 필요함

<표 3-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3.27.,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 제10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2015.10.6., 전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정의) 4.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23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20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타 시도 가족친화마을 관련 조례 현황

- 과거 자녀 양육과 돌봄의 역할은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과된 책임영역이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돌봄의 영역이 가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변화하게 됨(장임숙권진아, 2015)
 - 정부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하고, 제1·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중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계획에 따라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타 시도의 가족친화마을 관련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12.14)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있어서 지역별 조례의 목적,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며, 가족친화 마을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함

〈표 3-2〉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조례 현황

지역(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제개정구분)	
1	경기도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4.9.24	일부개정
2	전남 광양시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9.23	제정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0.15	제정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4.20	제정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1	일부개정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	2015.7.15	제정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3.20	전부개정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6.5	제정
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19	제정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5.14	제정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7.3	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6.11	제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 같은 법 13조 1항에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 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간에는 ‘가족 돌봄’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연령별 ‘돌봄’ 사업은 외부기관이 지원하는 형태가 많았음. 이에 반해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가족 돌봄’ 사업 자체가 주요 현안과제로 표면화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됨

〈표 3-3〉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중앙부처 마을공동체 사업	가족친화마을 사업
진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을 통한 지역 현안 발굴 · 비전과 목표 설정 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 과제 표면화 : ‘가족 돌봄’ - 지역 내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발적 해결 + 국가의 공적 책임을 통해 사회적 분담하여 해결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를 주민들의 동의, 사업추진 · 지역별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 많거나 또는 노인인구 많은 지역의 가족돌봄 외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기능의 사회화는 타 사업과의 공통 사항 - 가족돌봄 + 여가 및 문화, 건강 프로그램 지원
핵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 - 가장 기본적 요소이며, 그 자체가 가족친화 기능 담당 - 다양한 정보, 지식, 정서적 자원들의 교환·매개체 ⇒ 주민들의 자발적 방식에 의해 가족돌봄 교환되거나 상호부조 형태로 진행되며, 마을만들기 한 유형이 아닌 마을 내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

- 2006년 이후 3년간 추진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 마을단위나 기관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장임숙권진아, 2015) 등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마을단위로 주민이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적 유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주민이 중심이 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 마을공동체 사업현황과 추진체계

- 중앙정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공동체 회복과 경제적·문화적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행정자치부 포함 6개 부처의 14개 사업임
- 2015년 9월 현재 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6개 부처의 주요 14개 사업의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에 이룸(행정자치부, 2015)
 - 각 부처는 다양한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현장에서선 ① 체험·숙박시설 조성, ② 제조·가공·판매 시설 조성, ③ 환경개선·생활편익시설 조성이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희망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평화생태우수마을 등은 예산금액과 지원 지역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음

〈그림 3-1〉 중앙정부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비중 및 주요 사업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중심의 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장임숙권진아, 2015)

- 제주, 서울, 경기, 수원, 4개 지역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민·관·거버넌스는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역 모두 구성되어 주민과 행정 간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함

〈표 3-4〉 타 시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구분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수원
비전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다함께 행복한 자생·자립 마을	따뜻하고 복된 행복한 삶터 복원	도민 주도의 지속발전가능한 마을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의 마을 공동체 회복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천 • 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람 키우기 • 마을살이 함께하기 •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시민사회단체/전문가/행정이 만드는 계획 • 사람중심 마을만들기 사업시행 • 지역맞춤형 마을만들기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 협동경제 • 순환적 호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주체역량 강화 • 마을발전 조성사업 • 네트워크 협력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중심 주거 쾌적성 추구 • 진정한 시민참여로 전환 •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마을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사업팀)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기획조정실 따복공동체 지원단	마을발전 담당부서	마을만들기 추진단
거버넌스 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따복공동체 위원회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좋은마을 만들기 위원회
행정지원 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군행정지원협의회	따복공동체 행정협의회	협력자문단	마을만들기 추진단, 행정지원 협의체, 공무원 서포터즈
민간지원 조직	서울시마을넷 (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광역/기초), 부산마을공동체연구포럼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위원	마을르네상스 파트너, 마을르네상스 서포터

자료: 장임숙권진아. 2015. p. 28.

2. 제주지역의 가족친화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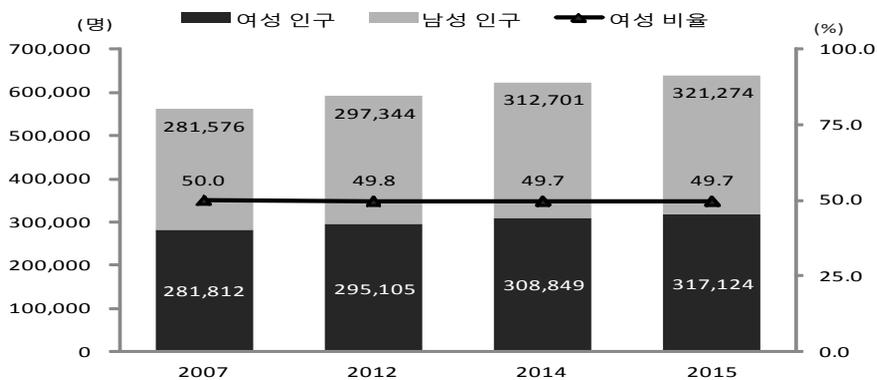
가. 인구학적 현황

1) 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07년 563,388명에서 2015년 10월 말 기준 638,398명으로 75,010명(13.3%)증가함
 - 여성인구는 2007년 281,812명에서 2015년 317,124명으로 35,312명(12.5%)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함. 남성 인구는 같은 기간 281,576명에서 321,274명으로 39,698명(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성별 총인구(2007~2015)

(단위: 명, %)



주: 총인구는 외국인 포함한 인구이며, 2015년 인구는 10월 31일 기준임.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별 14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제주시는 아동 75,449명(16.4%), 노인 56,914명(12.4%)이며, 서귀포시는 아동 22,362명(13.6%), 노인 28,979명(17.6%)을 차지함
 - 읍면동별(추자면·우도면 제외) 아동 인구는, 애월읍 4,61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조천읍 2,740명, 대정읍 2,590명, 한림읍 2,363명 순으로 나타남

〈표 3-5〉 행정시별 아동과 노인 인구

(단위: 명, %)

읍면동별	아동1)				노인2)				전체인구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남	여	
제주시	75,449	16.4	39,324	36,125	56,914	12.4	22,973	33,941	459,876
한림읍	2,363	11.9	1,310	1,053	3,909	19.7	1,468	2,441	19,827
애월읍	4,618	14.9	2,413	2,205	5,362	17.3	2,112	3,250	30,944
구좌읍	1,529	10.4	818	711	3,631	24.6	1,318	2,313	14,746
조천읍	2,740	13.0	1,466	1,274	3,874	18.4	1,562	2,312	21,065
한경면	795	9.3	410	385	2,279	26.8	827	1,452	8,516
추자면	141	7.0	75	66	577	28.5	238	339	2,022
우도면	145	8.5	62	83	411	24.0	131	280	1,710
일도1동	328	9.6	173	155	624	18.3	260	364	3,417
일도2동	6,015	16.5	3,118	2,897	4,093	11.2	1,693	2,400	36,481
이도1동	1,095	13.7	571	524	1,160	14.5	476	684	7,987
이도2동	9,608	18.6	4,943	4,665	4,461	8.7	1,880	2,581	51,565
삼도1동	2,270	15.5	1,128	1,142	2,136	14.5	898	1,238	14,684
삼도2동	1,141	12.5	585	556	1,448	15.9	590	858	9,123
용담1동	1,054	12.6	542	512	1,306	15.6	545	761	8,363
용담2동	2,311	13.9	1,219	1,092	2,478	14.9	1,020	1,458	16,594
건입동	1,327	13.1	708	619	1,587	15.7	700	887	10,112
화북동	4,963	19.1	2,625	2,338	2,407	9.2	971	1,436	26,050
삼양동	3,571	20.7	1,897	1,674	1,693	9.8	708	985	17,235
봉개동	373	11.8	224	149	607	19.2	252	355	3,160
아라동	4,635	19.2	2,347	2,288	2,355	9.8	963	1,392	24,123
오라동	1,926	19.3	1,030	896	1,053	10.5	429	624	10,003
연동	6,732	15.6	3,490	3,242	3,318	7.7	1,430	1,888	43,148
노형동	10,367	19.4	5,346	5,021	3,675	6.9	1,503	2,172	53,491
외도동	4,387	23.5	2,291	2,096	1,587	8.5	647	940	18,699
이호동	565	14.2	311	254	529	13.3	213	316	3,973
도두동	450	15.9	222	228	354	12.5	139	215	2,838
서귀포시	22,362	13.6	11,656	10,706	28,979	17.6	11,703	17,276	164,519
대정읍	2,590	14.0	1,350	1,240	3,749	20.3	1,475	2,274	18,492
남원읍	2,172	11.6	1,150	1,022	3,939	21.1	1,600	2,339	18,650
성산읍	1,466	10.2	769	697	3,137	21.8	1,224	1,913	14,388
안덕면	1,200	11.9	644	556	2,140	21.2	797	1,343	10,118
표선면	1,270	11.1	657	613	2,228	19.5	889	1,339	11,433
송산동	578	12.0	300	278	898	18.6	387	511	4,831
정방동	254	9.3	132	122	465	16.9	187	278	2,745
중앙동	450	10.3	230	220	742	16.9	301	441	4,383
천지동	375	9.6	200	175	701	18.0	315	386	3,900
효돈동	591	11.6	320	271	1,073	21.0	451	622	5,108
영천동	563	11.2	288	275	1,105	22.0	451	654	5,029
동홍동	4,326	19.1	2,186	2,140	2,433	10.8	1,014	1,419	22,625
서홍동	1,938	19.3	1,002	936	1,169	11.7	505	664	10,034
대륜동	1,642	14.7	871	771	1,722	15.4	706	1,016	11,192
대천동	1,066	13.2	579	487	1,230	15.2	501	729	8,103
중문동	1,485	15.2	777	708	1,500	15.4	621	879	9,738
예래동	396	10.6	201	195	748	19.9	279	469	3,750

주. 1) 14세 이하 인구수, 2) 65세 이상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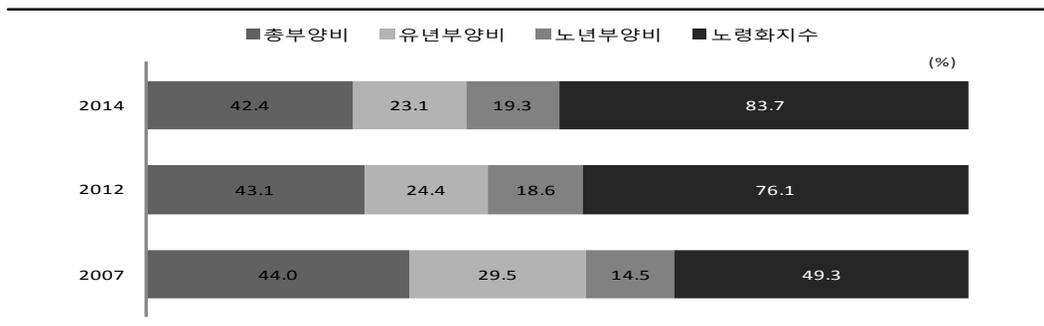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전국 추세처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제주지역의 유년(0~14세)인구는 2007년 113,218명에서 2014년 98,461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같은 기간 61,734명(인구의 11.0%)에서 82,411명(인구의 13.6%)으로 증가함
 -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유년부양비는 2007년 29.5%에서 2014년 23.1%로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4.5%에서 19.3%로 증가함
 - 유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07년 49.3%에서 2014년 83.7%로 급증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임

<그림 3-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07~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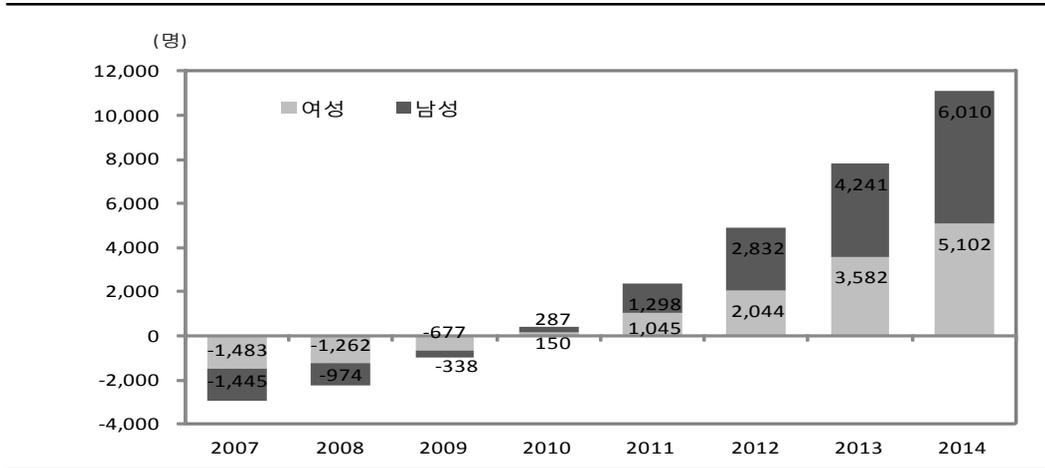
- 주: 1) 외국인 제외임.
 2) 총부양비=((1~14세 인구+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100.
 3)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4) 노년부양비=(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100.
 5)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순이동 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2009년까지는 음수, 즉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양수로 변화하기 시작함.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37명(여성 150명, 남성 287명)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112명(여성5,102명, 남성 6,010명)으로 급증함
 - 2014년 연령별 순이동 인구는 14세 이하 유년인구가 2,09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34세 1,889명, 35~39세 1,762명, 40~44세 1,375명으로 주로 자녀를 동반한 30대~40대 초반 인구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3-4> 성별 순이동 인구(2007~2014)

(단위: 명)



주: 순이동=총전입인구-총전출인구.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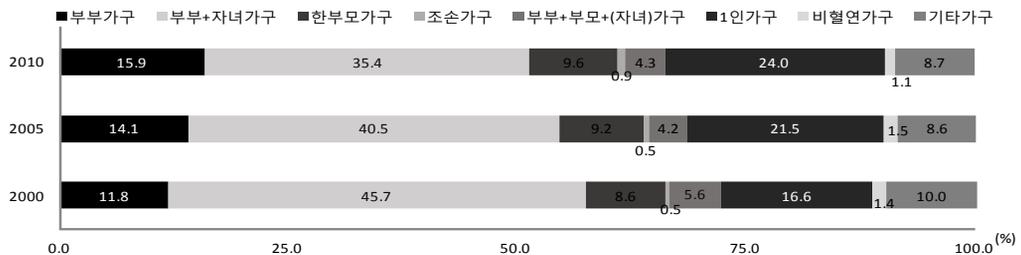
4) 가족형태별 가구 현황

○ 제주지역의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5>와 같음

- 부부가구의 비율은 2000년 11.8%에서 2010년 15.9%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00년 8.6%에서 2010년 9.6%로 꾸준히 증가함. 한편,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10년 35.4%로 10.3%포인트 감소함

<그림 3-5> 가족형태별 가구(2000, 2005, 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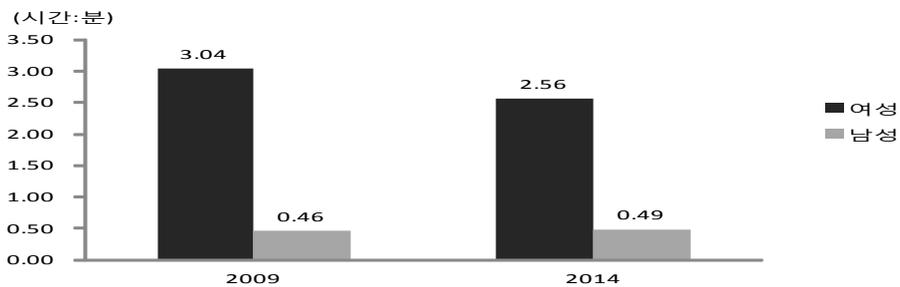
주: 부모에는 양친 또는 편부모만 있는 경우가 포함됨.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 2014년 제주지역 남녀의 일주일간의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 2시간 56분, 남성 49분으로 나타남.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차이는 2009년 2시간 58분에서 2014년 2시간 7분으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2009, 2014)



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임. 가사노동 시간에는 가정관리(음식준비, 빨래, 청소 등)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자녀, 배우자, 부모, 동거하지 않는 가족 돌보기 등)가 포함됨.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 저출산 해소 정책요구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저출산 해소 방안 중 ‘좋은 보육환경 조성’ (69.9%)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7.2%) 순으로 나타남
 - ‘좋은 보육환경 조성’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 74.3%, 30~39세 73.5%, 50~59세 69.1%, 20~29세 67.5% 순으로 나타남

<표 3-6> 저출산 해소 정책

(단위: %)

	사례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주부의 재취업 지원	추산지원금 제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불임부부(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기타	
전체	5,785	69.9	37.2	28.2	27.2	17.1	14.0	1.0	
권역별	제주시 전체	3,623	72.9	37.9	26.9	26.2	17.6	12.7	0.5
	제주시 동부	2,457	74.3	40.5	26.6	27.3	15.6	9.9	0.3
	제주시 읍면부	1,166	68.2	29.0	27.9	22.5	24.6	22.0	1.3

		사례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주부의 재취업 지원	추산지원금 제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불임부부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기타
	서귀포시 전체	2,162	61.8	35.3	31.9	29.7	15.7	17.5	2.5
	서귀포시 동부	1,178	60.4	37.8	31.8	23.5	17.6	20.9	3.1
	서귀포시 읍면부	984	63.5	32.2	32.0	37.2	13.3	13.4	1.7
성별	남자	2,703	69.5	36.6	26.0	28.5	18.0	14.3	1.2
	여자	3,082	70.4	37.8	30.5	25.9	16.2	13.6	0.9
연령별	15~19세	343	67.0	47.2	22.2	34.0	15.0	9.1	0.9
	20~29세	453	67.5	44.1	24.8	32.4	17.1	10.7	0.2
	30~39세	776	73.5	40.3	25.8	32.3	12.4	10.9	0.2
	40~49세	1,162	74.3	33.9	32.2	24.6	14.7	14.1	0.6
	50~59세	1,064	69.1	35.0	31.5	22.1	20.4	15.7	1.1
	60세 이상	1,987	66.3	31.9	27.9	24.3	20.9	18.4	2.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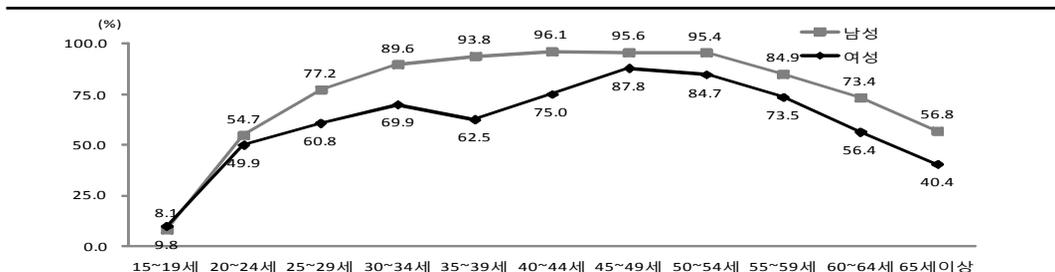
나. 경제·사회학적 현황

1) 경제활동

- 2014년 제주도민의 연령별 고용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5~19세 9.8%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34세에 69.9%로 높아졌다가 35~39세에 62.5%로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을 보인 후 40~49세까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15~19세 8.1%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0~44세에 96.1%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50대 초반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나타내고, 남성의 고용률은 전형적인 역 U자(∩)의 곡선임

<그림 3-7>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4)

(단위: %)



주: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4 하반기 A형).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취업자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201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자의 일과 가정생활 중 더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성은 둘 다 비슷하다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고, 남성은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인식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1년과 2015년의 응답을 비교하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은 여성의 경우 2011년 35.4%에서 2015년 38.2%로 증가하고, 남성은 2011년 62.8%에서 2015년 57.1%로 감소하였음.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은 여성은 2011년 20.9%에서 2015년 19.0%로 소폭 감소하고, 남성은 2011년 7.7%에서 2015년 10.1%로 증가함

<그림 3-8> 취업자의 일·가정생활 우선도(2011, 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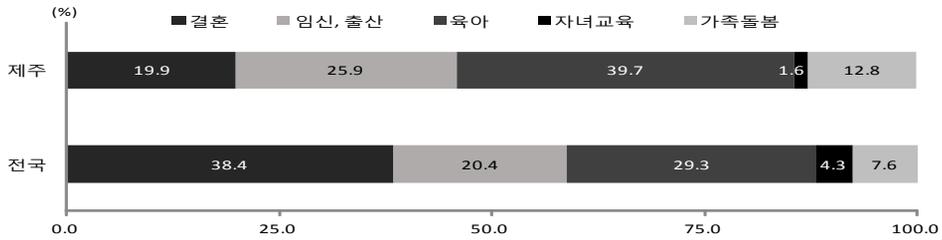


주: 통계청, 『사회조사』. 현재취업중인 19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 제주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가 3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신출산(25.9%), 결혼(19.9%), 가족돌봄(12.8%) 순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아(29.3%), 임신출산(20.4%), 가족돌봄(7.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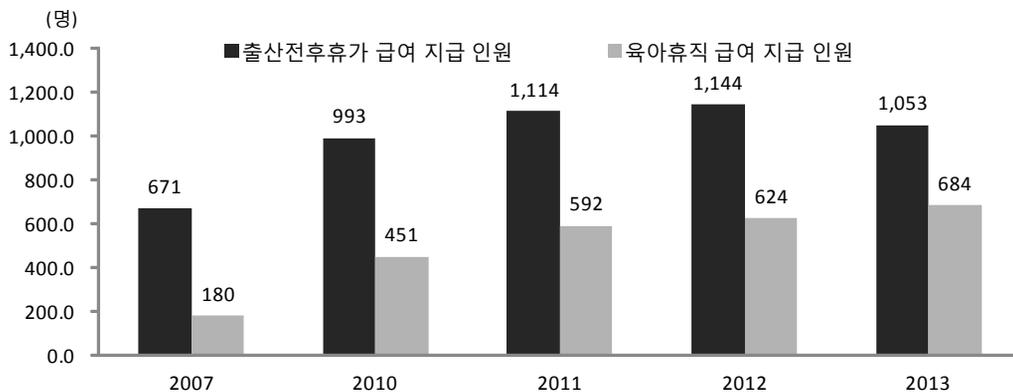
주: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4 하반기 C형).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

- 제주지역 근로자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인원은 2013년 1,053명으로 2012년(1,144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0~2012년 사이 출산전후휴가 지급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육아 휴직급여 인원은 2007년 180명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684명으로 증가하였음. 성별로 육아휴직 이용자를 살펴보면, 2014년 684명의 육아휴직 이용자 중에서 남성은 23명(3.4%)에 불과함

<그림 3-10>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2007~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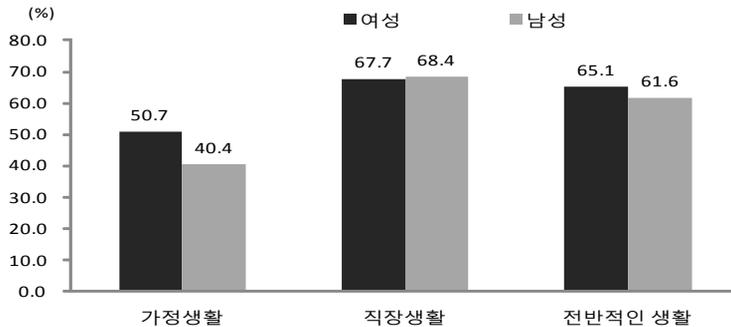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2014년 제주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여성 67.7%, 남성 68.4%로 나타나고,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여성 50.7%, 남성 40.4%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성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도(2014)

(단위: %)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 삶의 만족도

- 2015년 제주도민 만족도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족하다는 응답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의 성취, 성격, 건강 등)에서는 60세 이상 44.9%, 40~49세 45.4%, 30~39세 47.4%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측면(가족, 직장 등)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48.2%, 40~49세 51.8%, 30~39세 53.3%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3-7>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사례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 측면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전체	5,785	47.9	43.2	8.9	3.5	49.3	44.5	6.2	3.5	52.8	41.2	6.0	3.6

	성별	사례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 측면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남자	2,703	48.4	43.2	8.4	3.5	49.9	44.0	6.1	3.5	52.9	41.5	5.6	3.6
	여자	3,082	47.3	43.3	9.4	3.5	48.7	45.0	6.3	3.5	52.6	40.9	6.5	3.6
연령별	15~19세	343	54.3	38.9	6.8	3.6	53.5	41.9	4.6	3.6	57.6	37.7	4.7	3.7
	20~29세	453	49.3	41.5	9.2	3.5	51.8	40.6	7.6	3.5	52.7	40.8	6.5	3.6
	30~39세	776	47.4	44.8	7.8	3.5	47.6	46.8	5.6	3.5	53.3	40.8	5.8	3.6
	40~49세	1,162	45.4	46.2	8.3	3.5	47.1	46.6	6.3	3.5	51.8	42.9	5.4	3.6
	50~59세	1,064	50.8	40.9	8.3	3.5	52.8	41.5	5.7	3.6	56.9	37.4	5.7	3.6
	60세 이상	1,987	44.9	43.8	11.3	3.4	46.7	46.7	6.6	3.5	48.2	44.4	7.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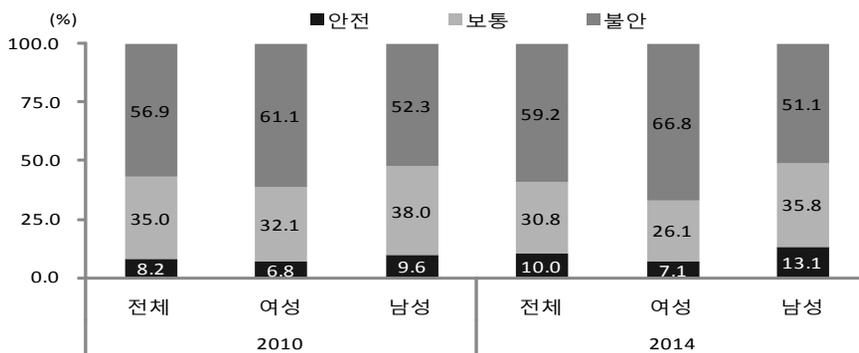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7)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 2014년 기준, 범죄위험 및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질문 결과, 13세 이상 제주도민의 10%만 제주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여성의 경우 불안하다는 인식은 2010년 61.1%에서 2014년 66.8%로 증가함

<그림 3-12>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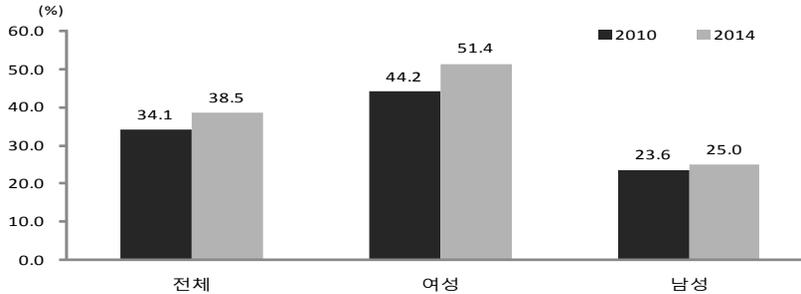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4년 기준, 제주도민 중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38.5%로 2010년 대비 남녀 모두 증가함

<그림 3-13>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 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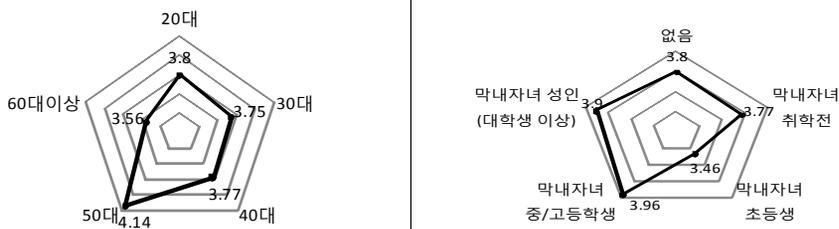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이용 안전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56점, 40대 3.77점, 30대 3.75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막내자녀가 초등학생 3.46점, 취학 전 3.77점 순으로 낮음

<그림 3-14>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안전도

(단위: 점)

○ 우리지역은 교통사고, 재난사고 등 위험요소가 없이 안전하다(M=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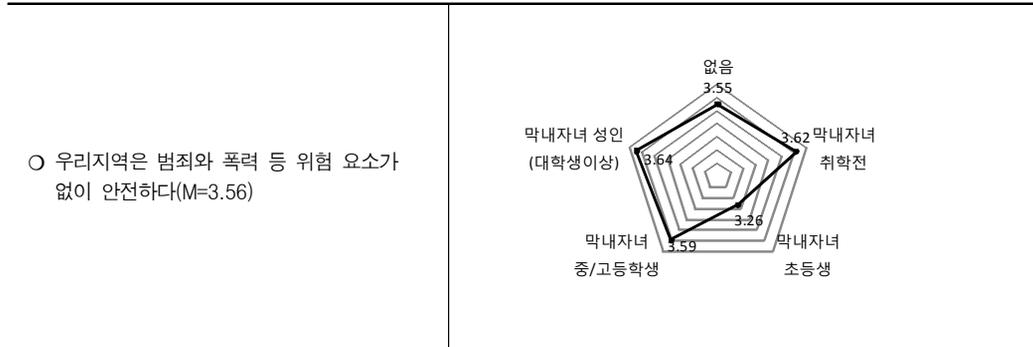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와 폭력 등 위험요소가 없이 안전한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막내자녀 초등학생인 경우가 3.26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3-15> 범죄·폭력 등 위험요소 없이 안전한 정도

(단위: 점)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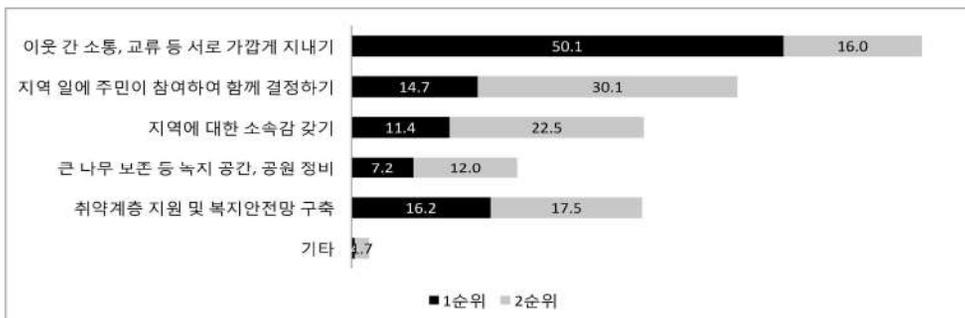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2015년 기준, 제주지역 거주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종합순위(1순위+2순위) 결과, ‘이웃 간 소통·교류 등 서로 가깝게 지내기’가 66.1%로 가장 높음

<그림 3-1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주. N=525(여성=328, 남성=197). 종합순위=1순위+2순위 합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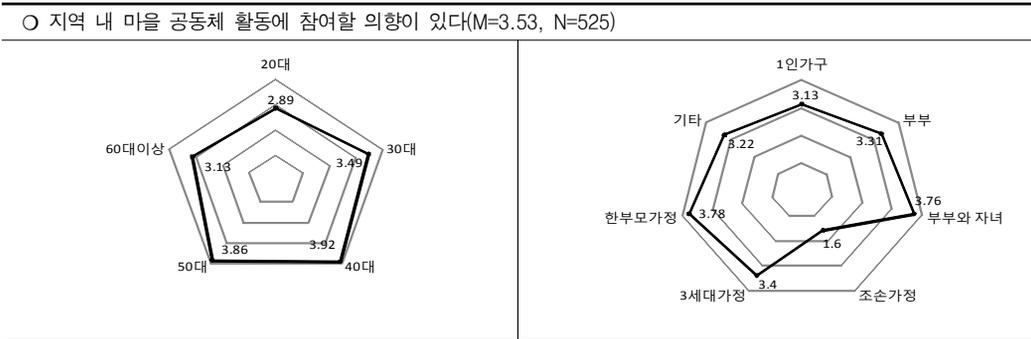
9)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

- 2015년 기준, 제주지역 거주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가 3.92점

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3.78점, 부부+자녀가정 3.76점 순으로 높음

<그림 3-17>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

(단위: 점)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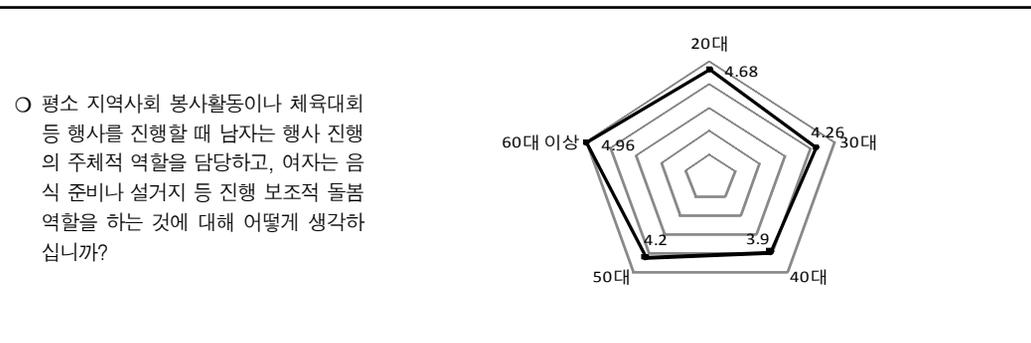
10) 지역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 2015년 기준, 제주지역 거주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체육대회 행사 등에서의 양성평등 점수(10점 척도)는 평균 4.33점으로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40대인 경우 가장 낮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3.90점, 50대 4.20점, 30대 4.26점 순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반면, 20대는 4.68점, 60대 이상은 4.96점으로 평균보다 높음

<그림 3-18> 봉사활동·체육대회 등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N=525.10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10: 매우 평등)의 평균임(4.33).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 물리적 현황

1) 여성 취업 지원기관 현황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의 여성 취업지원기관은 3개소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주시·서귀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취업을 위한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함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 2015년 기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총 4개소이며, 모자보호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자시설 1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환경 1개소임

3) 어린이집 현황

- 2014년 기준, 제주지역의 어린이집은 총 599개소이며, 제주지역의 유형별 어린이집은 전국이나 서울특별시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어린이집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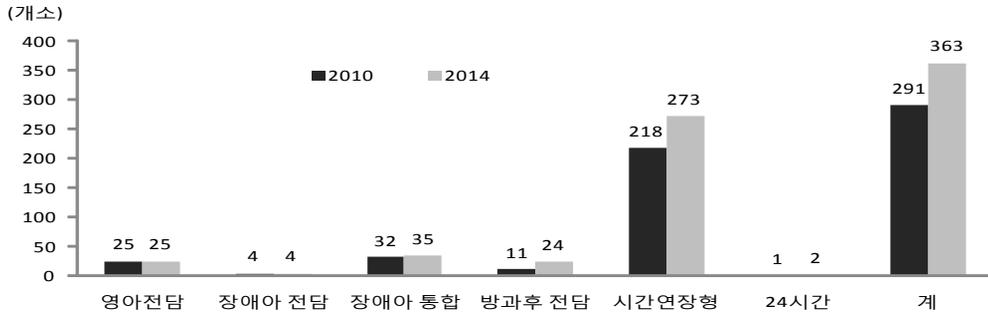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43,742(100)	2,489(5.7)	1,420(3.2)	852(1.9)	14,822(33.9)	23,318(53.3)	149(0.3)	692(1.6)
서울	6,787(100)	844(12.4)	36(0.5)	154(2.3)	2,273(33.5)	3,277(48.3)	27(0.4)	176(2.6)
제주	599(100)	24(4.0)	77(12.9)	40(6.7)	274(45.7)	175(29.2)	0(0.0)	9(1.5)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4 보육통계」.

- 201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 어린이집 수는 2010년 291개소에서 2014년 36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음. 유형별로는 영아전담어린이집 25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4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5개소, 방과후 전담 통합 어린이집 24개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73개소, 24시간어린이집은 2개소임

<그림 3-19> 특수 어린이집 현황(2010, 2014)

(단위: 개소)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초등돌봄교실 현황

- 2014년 기준 제주도내 초등돌봄교실은 103개교, 167개 교실, 3,57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2010년 43개소에서 2014년 103개로 약 2.4배 증가하였고, 운영 교실 수는 같은 기간 53개 교실에서 167개 교실로 약 3.2배 증가했으며, 이용 학생 수는 964명에서 3,572명으로 약 3.7배 증가함(손태주. 2015)

5) 사회복지 시설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 노인복지시설(재가) 50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 여성복지시설 10개소가 있음
 - 연도별 복지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재가복지시설은 2007년 12개소에서 2014년 50개소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 장애인 복지시설은 3개소 증가, 여성 복지시설은 2개소 증가, 아동복지시설은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사회복지 시설(2007~2014)

(단위: 개소, 명)

구 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재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수용인원 (입소자)	시설	수용인원 (현원)	시설	수용인원 (입소자)
2007	5	343	12	1,080	11	365
2010	5	325	49	1,390	12	465
2013	5	303	54	910	13	479
2014	5	286	50	798	14	500

구 분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	수용인원 (입소자)	시설	수용인원	시설	생활인원
2007	8	129	1	216	2	186
2010	9	330	1	209	2	180
2013	9	448	-	-	2	159
2014	10	398	-	-	2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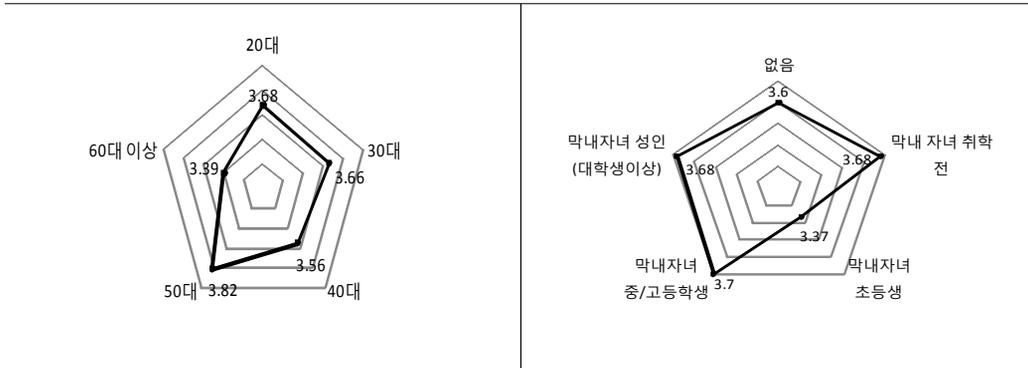
자료: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공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39점, 40대 3.56점 순으로,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3.37점, 취학 전 3.68점 순으로 낮게 인식함

<그림 3-20> 공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생활 실태

(단위: 점)

- 우리지역은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등)를 고려한 공공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M=3.62)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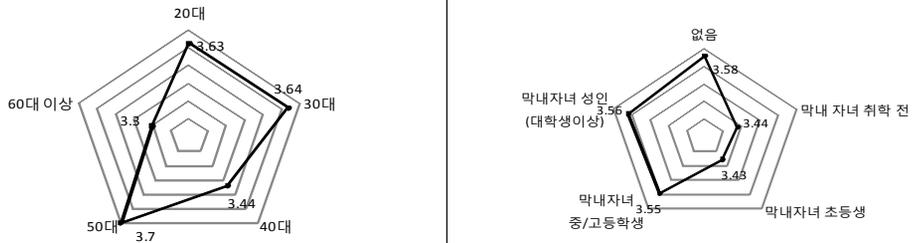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30점, 40대 3.44점 순으로 낮았으며,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3.43점, 취학 전 3.44점 순으로 낮게 인식함

<그림 3-21>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 이용 편리성

(단위: 점)

○ 우리지역은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등 이용이 편리하다(M=3.53).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은 2014년 기준 20개소가 있음. 이용객은 2012년 210,719명에서 2014년 208,324명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연간 문화강좌 수는 2012년 343개에서 2014년 284개, 연간 문화행사 수는 2012년 109회에서 2014년 32회로 크게 감소함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현황

(단위: 개, 명, 회)

년도	시도별	문화의 집 수	이용객 수	연간 문화강좌 수	연간 문화행사 수
2012	도 전체	21	210,719	343	109
	제주시	10	171,300	132	63
	서귀포시	11	39,419	211	46
2014	도 전체	20	208,324	284	32
	제주시	10	161,782	164	18
	서귀포시	10	46,542	120	1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7)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은 총 21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1개소가 있음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개수	좌석수	자료수			도서관 방문자수	자료실 이용자수
				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2013	도 전체	21	7,955	2,050,719	88,528	1,557	3,060,575	2,063,354
	제주시	10	4,599	1,198,889	48,562	1,225	2,120,768	1,668,796
	서귀포시	11	3,356	851,830	39,966	332	939,807	394,558
2014	도 전체	21	6,982	2,132,098	118,333	1,876	2,978,793	2,536,275
	제주시	10	3,940	1,244,623	75,673	1,510	2,074,259	1,725,552
	서귀포시	11	3,042	887,475	42,660	366	904,534	810,72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제주지역 작은 도서관은 2015년 현재 총 20개소이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성되고 있음. 운영주체별로는 ‘마을회’가 14개소, ‘시민·교화·복지관 등’이 6개소로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마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년도	시도별		운영주체		공립·사립 여부	
			마을화자치운영위원회	시민·교화·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공립 (위탁)	사립
2014	도 전체	20	14	6	3	17
	제주시	11	6	5	2	9
	서귀포시	9	8	1	1	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2015.

8) 의료기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은 2012년 642개소에서 2014년 697개소로 증가함

<표 3-13>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

(단위: 개)

년도	시군별	합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 의원
2012	도 전 체	642	6	6	321	0	7	155	1	140	1	5
	제 주 시	498	5	5	247	0	5	122	1	107	1	5
	서귀포시	144	1	1	74	0	2	33	0	33	0	0
2013	도 전 체	691	7	7	343	-	6	166	-	156	1	5
	제 주 시	529	6	5	255	-	5	132	-	120	1	5
	서귀포시	162	1	2	88	-	1	34	-	36	-	-
2014	도 전 체	697	7	6	349	-	8	166	-	160	1	-
	제 주 시	548	6	3	271	-	7	137	-	123	1	-
	서귀포시	149	1	3	78	-	1	29	-	3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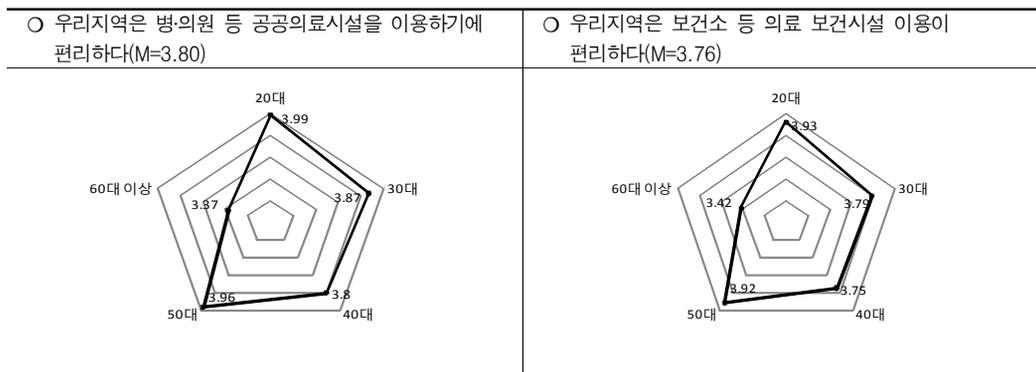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주: 병원은 군인병원 제외, 특수병원에는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이 포함된 자료임(총합계에 보건의료원 이하는 제외됨).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7점 척도), 병의원 및 보건소 등 이용 편리성에 대해 60대 이상이 가장 낮음

<그림 3-22> 지역의 공공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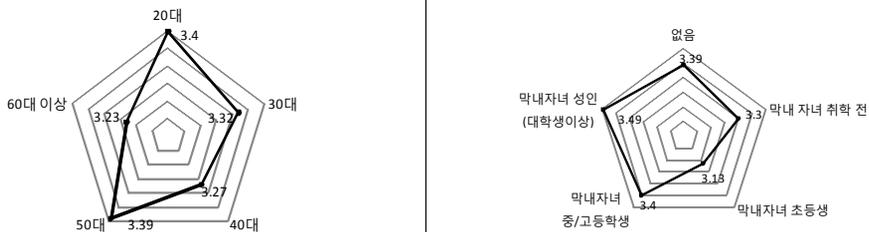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고 있

는 지역에서의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7점 척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3점, 40대 3.27점으로, 막내자녀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3.13점으로 평균수준인 3.32점보다 낮음

<그림 3-23>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

(단위: 점)

○ 우리지역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M=3.32점)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소결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6.11) 제10조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2012.4.6) 제17조에 관련 조항을 명시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2009.1.7 제정)는 제정 이후 2015년 10월 6일 행정환경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등 변화에 따라 전부 개정됨
- 그러나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26조와 제39조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일가정 양립지원과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 중 ‘가족 돌봄’ 사업은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접

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즉,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 형태가 많음

- 이에 비해 가족친화마을은 ‘가족 돌봄’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표면화되어 추진되며, 지역주민의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 인프라의 양적이고 질적인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 추진되는 것임. 따라서 2006년 이후 3년간 추진되었던 가족형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을단위 행정과 관련 깊은 지역리더와 행정 중심 추진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 자발적 공동체 운영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순이동 인구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양수로 변화하기 시작함. 이는 전국 추세처럼 제주지역도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며, 연령별 순이동 인구 중 14세 이하 유년인구가 가장 많게 나타나 주로 자녀를 동반한 30~40대 초반 인구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동시에 부부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율의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따라서 자녀를 동반한 30~40대 인구의 유입과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정책과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선이 요구됨

- 제주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35세 이후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 곡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가사노동 시간과 출산전후 휴가 등 육아와 돌봄 책임은 여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 결과(10점 척도), 40대가 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방안이 요구됨

-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성취, 성격, 건강 등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과 가족, 직장과 관련된 집단 측면에서 60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남. 노인세대를 위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와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범죄위험과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함이 2014년 기준 59.2%로 2010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불안도가 더 높음. 또한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죄와 폭력 등에 대한 안전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가 3.2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과 여성의 범죄와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을 조사하여 안전지도 및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이 요구됨
-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조사한 종합순위(1순위+2순위)결과, 이웃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서로 가깝게 지내기가 66.1%로 가장 높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향은 40대와 부부+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높음. 즉, 마을의 아이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돌봄의 어려움을 이웃 간에 함께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돌봄공동체가 회복되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유형별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객이 증가되는 것과 달리 연간 문화행사 수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5년 기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70세 남녀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질문한 결과, 지역 돌봄 서비스와 공공사회복지시설,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에 대해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학생 및 취학 전인 부모가 낮음
 - 제주지역의 작은 도서관 상당수가 마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과 문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을 내 작은 도서관 및 공공시설 연계 활용방안이 요구됨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1. 면접조사 분석
2. 제주도 사례 선정지역 조사 분석
3. 소결 : 조사결과 요약

1. 면접조사 분석

가. 조사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은 제주 지역의 가족친화마을 구성에 대한 가족유형별 의견수렴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대상자 면접을 통하여 돌봄 생활 경험 자료를 얻고자 실시함
 - 면접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가족친화마을 구성에 대한 모델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면접대상은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구, 즉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1인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30명이며, 본 연구원과 면접원 2명이 응답자별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
 - 조사기간 : 2016. 3. 2. ~ 3. 14.
 - 가족형태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50.0%, 장애인 가족 20.0%, 1인 가구 13.3%, 기타(부부+부모, 부부 등) 10.0%, 다문화 가족 6.7%로 구성됨(제주시 70%, 서귀포시 30%)

- 면접 내용은 가족(자녀, 가족, 자신 등)의 돌봄 해결방법과 어려운 점,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성과 편리성, 돌봄 관련 취약점, 돌봄공동체 참여 의향, 마을공동체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운영비, 공간, 중요한 요소 등임
- 면접조사 결과는 Irving Seidman(박혜준이승연 공역, 2015)의 면담 자료의 분석, 해석 및 공유 방법에 따라 수행함
 - 먼저, 원문의 검토, 축소를 위해 본문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줄이고, 그 다음 대상별로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함

-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학문적 심층연구보다 제주 지역의 가족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모델개발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완벽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못한 것임

○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 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	성별	연령대	거주지	가족형태		주거형태	면접일
				유형	%		
사례 1	여	30대	서귀포시	부부+자녀	50.0	50-100세대 아파트	3.2
사례 2	여	30대	서귀포시	부부+자녀		50-100세대 아파트	3.2
사례 3	여	30대	서귀포시	부부+자녀		단독주택	3.2
사례 4	여	40대	서귀포시	부부+자녀		50-100세대 아파트	3.3
사례 5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49세대 이하 아파트	3.3
사례 6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49세대 이하 아파트	3.8
사례 7	여	40대	서귀포시	부부+자녀		다세대주택	3.9
사례 8	남	30대	제주시	부부+자녀		300세대 이상 아파트	3.10
사례 9	여	50대	제주시	부부+자녀		단독주택	3.10
사례 10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300세대 이상 아파트	3.10
사례 11	여	30대	제주시	부부+자녀		다세대주택	3.10
사례 12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단독주택	3.11
사례 13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단독주택	3.14
사례 14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50-100세대 아파트	3.10
사례 15	여	40대	제주시	부부+자녀		단독주택	3.11
사례 16	여	30대	제주시	1인 가구	13.3	단독주택	3.2
사례 17	여	40대	제주시	1인 가구		임대주택	3.2
사례 18	여	40대	제주시	1인 가구		다세대주택	3.10
사례 19	여	30대	제주시	1인 가구		다세대주택	3.14
사례 20	여	4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20.0	임대주택	3.2
사례 21	여	6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49세대 이하 아파트	3.2
사례 22	여	5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300세대 이상 아파트	3.4
사례 23	여	5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단독주택	3.7
사례 24	여	4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49세대 이하 아파트	3.4
사례 25	여	50대	제주시	장애인 가족		300세대 이상 아파트	3.7
사례 26	남	50대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	6.7	단독주택	3.3
사례 27	남	40대	서귀포시	다문화 가족		단독주택	3.5
사례 28	남	40대	서귀포시	기타	10.0	다세대주택	3.7
사례 29	여	30대	서귀포시	기타		단독주택	3.8
사례 30	남	40대	제주시	기타		300세대 이상 아파트	3.9

나. 조사결과

1) 돌봄 어려움에 대한 의견

■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

○ 재택맘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체력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모들 간 소통공간을 통해 혼자서 고립되어 자녀를 키우기 보다는 양육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대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음

-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체력적 어려움 해소방안 필요

큰 애가 어릴 때는 정말 까다롭고 잘 울어서 정말 키우기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그러면 하지 말라게~~” 라고 해요. 정말 속상하지만 엄마라서 안 할 수 없잖아요(사례 1).

저희 애들은 남자애들이예요. 둘이서 거의 싸우면서 몸으로 노는 경우가 많고, 좋다고 재미있게 놀아도 남자애들이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빠가 놀아주면 좋을텐데 애들은 주로 제가 돌보고 있어서 그런 게 힘들어요.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니깐 그게 힘들어요(사례 3).

자녀양육에서는 서로 조심하고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풀거나 이게 안 되죠. 서로가 육아에 힘들게 여기는, (중략)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 19).

- 양육정보 교환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소통 공간 필요

아파트 안에 놀이터나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중략) 일부러 (애들이 놀 곳을 찾아서)이동을 해야 하니깐 불편한 게 있어요(사례 2).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데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그 마을들이 그런 것들이 해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회복(공동체 회복)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사례 5).

● 아이들의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대 필요

예전 마을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많긴 한데 주변을 보면 애들 학원이나 문화프로그램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 키우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사례 4).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모일 공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주변에 (아이들 관련)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게 없고 방문선생님도 한정되어 있고 뭐 그래서 교육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된다는 거죠(사례 13).

- 이는 동네 자투리 공간을 지역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 중요도(7점 척도)에 대해 30대(5.41점)와 막내가 초등학생인 부모(5.53점)이면서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음. 즉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30대~40대 부모들일수록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 소통 공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손태주, 2015)

〈표 4-2〉 동네 자투리 공간을 지역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

(단위: 명, 점)

		N	평균	
동네 자투리 공간을 지역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 중요도(M=4.97)	전체	525	4.97	
	연령	20대	79	4.70
		30대	101	5.41
		40대	153	5.13
		50대	101	4.92
		60대이상	90	4.49
	막내 자녀	없음	152	4.86
		막내 자녀 취학 전	66	5.24
		막내자녀 초등생	68	5.53
		막내자녀 중/고등학생	69	5.06
	가족 유형	막내자녀 성인(대학생 이상)	170	4.69
		1인가구	63	4.87
		부부	104	4.55
		부부와 자녀	279	5.19
		조손가정	5	4.60
		3세대가정	20	4.85
		한부모가정	27	4.89
기타	27	4.78		

주. N=525 (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또한 지역의 문화센터 공공평생학습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 평균 3.29점(7점 척도)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3.11점, 막내자녀 초등학생인 경우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손태주, 2015)와도 관련이 있음

<표 4-3> 문화센터 등 공공평생학습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N	평균	
우리지역은 문화센터 등 공공평생 학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M=3.29)	전체	525	3.29	
	연령	20대	79	3.61
		30대	101	3.31
		40대	153	3.11
		50대	101	3.43
		60대이상	90	3.16
	막내 자녀	없음	152	3.47
		막내 자녀 취학 전	66	3.29
		막내자녀 초등학생	68	2.96
		막내자녀 중/고등학생	69	3.19
		막내자녀 성인(대학생이상)	170	3.32

주. N=525(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직장맘들은 일가정 양립 어려움 해결을 위한 욕구가 가장 컸으며, 특히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대한 돌봄 품앗이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이 늦게 끝나거나 아이가 아팠을 때 돌봐줄 수 있는 돌봄 공간 필요

뭐라 해도 일하고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려서 아프거나 그러면 일을 하는 도중에 애를 데리고 병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또 일이 늦게 끝날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 (사례 5).

둘 다 일을 해서, 남편은 골프장에 있는 식당에, 시누는 캐디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근무 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한 거지.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밤늦게 퇴근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중략) 우리도 애들이 학교 끝나면 어머니네 집에서 지냈고,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오든가 퇴근 하면서 데리고 오든가 이렇게 하고(사례 7).

이주한 지 이제 2년 넘었거든요. 애 키우면서 어려운 것은 먼저 친정이 멀리 있어서 아이를 어디다 맡길 수 없다는 것.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제가 봐야 되잖아요. (중략) 어린이집 시간연장을 보내는 것도 질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애를 너무 오랫동안 시설에다가 맡기면 애도 힘들어 하고....(사례 14).

아침에는 제가 아이 들을 어린이집 내지는 학교를 등교 시켜놓고 어쨌든 퇴근이 6시니까. 첫째는 1시에 끝나서 오고 둘째는 네 시에 끝나서 오니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시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퇴근 전까지는. 근데 퇴근 후에는 내가 저녁 때 모임이 있거나 남편이 모임이 있으면 한 3-4일 전에 스케줄을 미리 짜놔요. 그렇게 안하면 동시에 그 날 저녁에 둘이 급한 회의가 잡혔다 하면 한 명씩 회의 데려가요(사례 15).

아이들이 어릴 때 주위 부모님이라든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도와준 게 아니어서....(사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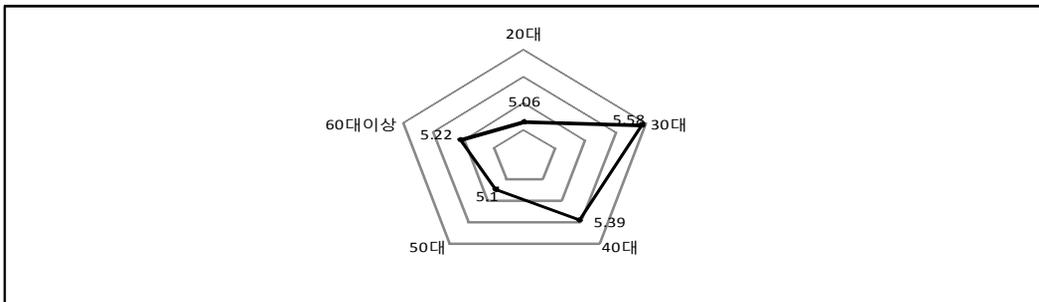
-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돌봄 커뮤니티 형성 필요

애를 처음 키우는데. 그리고 애를 안거나 이런 것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애를 목욕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사례 7).

- 이는 공공시설 내 돌봄 시설 활성화 중요도(7점 척도)에 대해 평균 5.29점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특히 30대~40대 자녀양육 부모들(30대 5.58점, 40대 5.39점)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손태주, 2015)

<그림 4-1> 공공시설 내 돌봄시설 활성화 중요도

(단위: 점)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중요도(7점 척도)에 대해서 평균 5.13점 수준으로 높게 난 것과도 관련이 있음. 즉, 지역 내 공공돌봄 시설 중 한 곳을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와 상담 등에 대해서 부부+자녀(5.39점)로 구성된 30대~40대(30대 5.55점, 40대 5.28점)의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손태주, 2015)

〈표 4-4〉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중요도

(단위: 명, 점)

		N	평균	
지역 내 공공 돌봄 시설 중 한 곳을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상담 등) 제공(M=5.13)	전체	525	5.13	
	연령	20대	79	4.71
		30대	101	5.55
		40대	153	5.28
		50대	101	5.10
		60대이상	90	4.78
	가족 유형	1인가구	63	4.92
		부부	104	4.84
		부부와 자녀	279	5.39
		조손가정	5	5.00
		3세대가정	20	4.40
		한부모가정	27	4.96
		기타	27	4.67

주. N=525 (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장애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외출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휠체어나 승용차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체계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접근편의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기관 개선 및 접근편의성 제고

제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보냈어야 했는데 (가까운 곳에)아이를 보낼 곳이 없었어요. 아이가 다섯 살 거의 끝날 무렵에 장애인어린이집을 찾아 보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멀어서 힘들었어요. 또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학교가 멀고 통학버스 문제로 힘들었어요(사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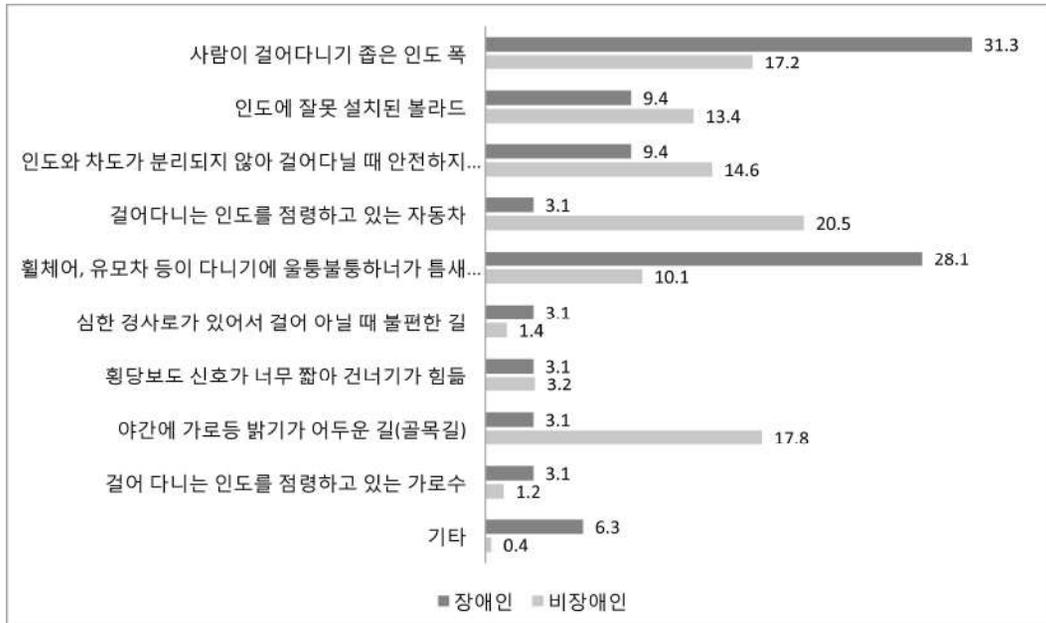
• 장애로 인한 편의시설 이동의 불편함 개선 필요

애가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어 다니면서 양육했죠. 남편이 비장애인이어도 아이를 양육할 때 힘들었어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도 내가 업거나 안아주지도 못하니까. 제가 신혼을 서귀포에서 시작했는데 애가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야할 경우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서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가면 급하니까 입구에 차를 세우고 저만 놔두고 남편이 아이를 안고 가면 그때 차를 빼라고 하면 제가 운전도 할 수 없고 참 난감했어요. 그때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아이가 보챌 때도 안아주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꼬마가 있으면 안아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사례 25).

- 이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보행 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때 ‘좁은 인도 폭’ (31.3%)과 ‘울퉁불퉁한 길’ (28.1%) 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임. 즉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손태주, 2015)

<그림 4-2> 지역에서 보행 시 느끼는 불편함 1순위(장애유무별)

(단위: %)



주. N=525(장애인: 32명, 비장애인 493명).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나라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장난감과 옷, 책 등을 나눠 쓰면서 자녀양육비 절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와 정서적 차이를 개선 할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

아이들이 어릴 때 저기 제 성질부리다가 경한(그렇게) 적은 있지만 -(중략)- 마누라가 꼬박꼬박 말대꾸하니까 집 나가랴(나가라고) 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학교(야간학교)에 간 적도 있고 (중략) 가장 어려운 건 국가별로 사고방식이 틀려서 민주주의 우리나라보다는 정이라든가 '우리' 라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 개인주의니까 '우리' 라는 걸 이해를 못해. (중략) 요새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하고 갑자기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해요(사례 26).

- 자녀양육비 줄일 수 있는 지원 확대

애들이 아픈 게 힘들어요. 애들이 자주 아파서 밤하고 새벽에 큰 병원에 가려면 제주 시까지 가야해서 힘들어요. 분유 값이나 기저귀 값도 많이 드는데...(중략) 장난감이나 책, 옷을 주변에서 물려줘도 좋은데. 부인은 일해서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집세도 그렇고, (5년이 되어도)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애들 세 명을 챙기는 게 힘들어요(사례 27).

■ 노인을 돌보는 자녀의 입장

- 노인을 돌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돌봄 지원과 황혼육아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돌봄의 문제 해결 방안 필요

가까운 곳에 제가 자랄 땐 굉장히 촌이었는데 지금은 외지인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살기는 하지만 원래 마을 토박이들하고 외지인하고는 따로의 생활이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 사시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보니까 다 자식들이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나마 두 부부가 살아계셔서 그러면 좋은데,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도 모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을 주민들을 도우미로 월급을(?)주시는지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몇 분 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 지 관리하는 하지만...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들 문제도 있겠지만...(사례 10).

-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노인들과 교류 및 소통 증진을 위한 복합 공간 필요

어머니께 평생교육이나 여타 프로그램을 받아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는 있지만 오빠 내외가 갑자기 아이들을 맡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고 있습니다. 황혼육아라고 해서 저희 큰오빠 애들은 어머니가 거의 봐주셨고 지금은 작은 오빠 아이도 봐주고 계신데 그런 경우들 때문에 (평생프로그램 등)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들을 데리고 어디 나가려고 해도 갈만한데가 마땅히 없고 부모님들도 손자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16).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지역보다는 고향 지역에 가서서 마을회관이나 특정인의 집에 모이곤 하시는데 이쪽으로 이사해온지 10-15년 지났는데 거의 이쪽 마을 사람들하고는 교류나 노인정에 가거나 하시는 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60세 넘으셔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 온 마을에 정착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시는 거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이 있는 거 같긴 한데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사례 28).

별도로 돌보는 사람은 없는데. 예전에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지금 아버지 몸이 편찮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늘 누군가 수발을 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끼니 챙기는 것도 어렵고 혼자 외로운 것도 있고. 말벗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사례 22).

- 지역 주민을 위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 주민문화센터 조성(7점 척도)에 대해 평균 5.04점 수준으로 높았으며, 특히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정(5.23점), 3세대 가정(5.15점)의 욕구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손태주, 2015)

<표 4-5>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주민문화센터 조성 중요도

(단위: 명, 점)

		N	평균	
지역 주민을 위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 주민문화센터 조성 중요도(M=5.04)	전체	525	5.04	
	가족 유형	1인가구	63	4.98
		부부	104	4.67
		부부와 자녀	279	5.23
		조손가정	5	4.60
		3세대가정	20	5.15
		한부모가정	27	5.00
		기타	27	4.70

주. N=525 (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의견

○ 실제 구현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도민의 요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도시개발과정에서 성, 연령, 장애유무,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도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현된 도시서비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간에 간극이 존재하게 되어 도시의 안전문제로 이어져 옴(손문금 외, 2012)

- 본 조사결과에서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위험한 장소가 있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구축으로 보행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 및 차도와 인도의 분리 개선방안 필요

예전에 이곳에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무섭고, 학교도 바로 옆이어서 저녁에 운동하러 가면 좋는데 혼자 무서워서 도저히 못가요. 대도로는 환할지 몰라도 바로 아파트 앞부터 어두우니깐 저녁엔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 어린이집에 데리고 갈 때도 바로 집 앞인데도 차들 때문에 아이 손을 꼭 잡고 조심히 가야되니~~~(사례 1).

저녁 8시 넘으면 밖에 다니지 못해요. 너무 어두워요. CCTV나 가로등도 없고 해서 못 다녀요. 우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삼거리에 있는데 길에 세운 차들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길은 좁은데 차들이 다 세워져 있고, 차길 한쪽에 차들을 세우게 되고, 인도는 있지만 횡단보도도 없으니깐 불안해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사례 2).

●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 주변 환경 관련 필요

처음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구조나 시설이나 크게 불만이 없었는데 살면서 주변을 보니깐 병원, 학원, 어린이집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지만 애들이 그곳에서 놀지 않아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아예 애들이나 엄마들이나 놀이터에 갈 생각을 안 해요.겨울에는 추워서 나가지 못하고 여름에는 놀이시설이 철로 되어있고 모기가 많아서 안 가게 된 것 같아요(사례 3).

애들이 시골에 오면 밖에서 나가서 놀 것 같은데, 애들만의 모일만한 장소라든가 그

런 게 없어요. ** 운동장이 있긴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위험해요. 도보진입도 힘들고 차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그냥 운동장이예요. 애들 하기에는 힘든 그런 위험한 어른 운동기구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좀 불안해요. 애들끼리 사고 날 것 같고, 주로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걸어 다니기는 좀 위험하고, 위험하더라고요. (사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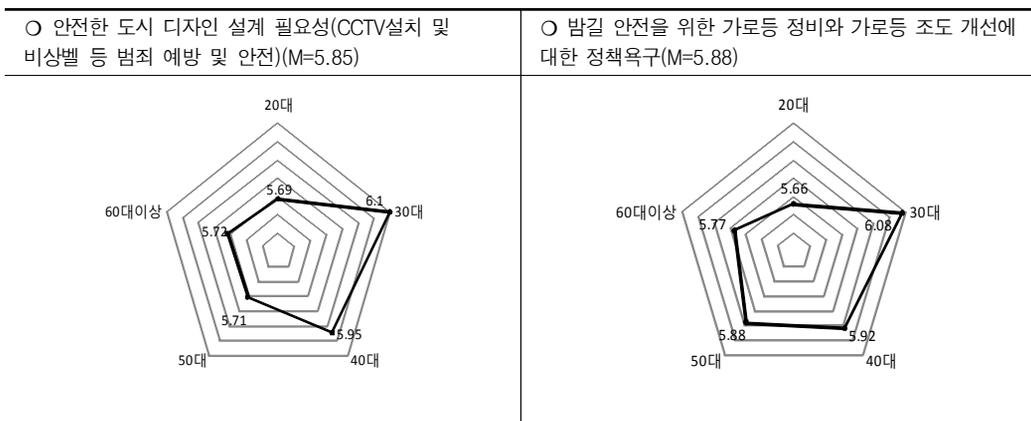
**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에 있는데 옛날 보건소 자리에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동 주소지이긴 하지만 **동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건 개발 택지개발 주공단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니까 거긴 너무 멀고,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이용을 잘 못해요(사례 7)

동네에 놀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지,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를 가려면 차타고 나가야 되요. 이웃들하고 막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러지 않잖아요(사례 14).

- 안전한 도시 조성에 대한 욕구(7점 척도)에서 안전한 도시 디자인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5.85점 수준이며, 30대 6.1점, 40대 5.9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는 평균 5.88점 수준이며, 30대 6.08점, 40대 5.9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손태주, 2015)

<그림 4-3> 안전한 도시디자인 설계와 가로등 정비에 대한 욕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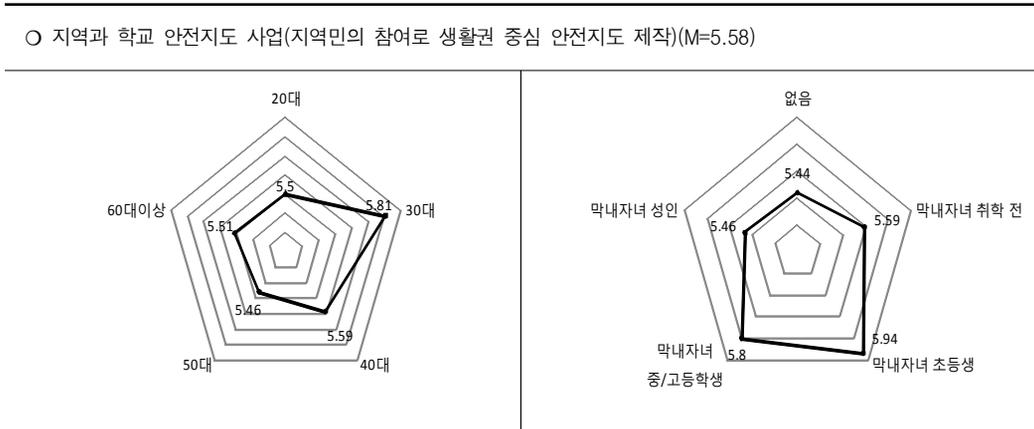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지역과 학교 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욕구(7점 척도)에 대해 평균 5.58점 수준보다 30대 5.81점, 40대 5.5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생인 부모가 5.94점, 중고등학생 5.8점, 초등학교 취학 전 5.59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손태주, 2015).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과 주거지 중심 활동이 많은 30대~40대 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그들의 안전성과 접근성, 쾌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그림 4-4> 지역과 학교 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욕구

(단위: 점)



주. N=525.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가족친화마을 운영에 대한 정책적 욕구

- 운영 주체는 선주민을 중심으로 정착 이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마을사람들의 요구를 잘 알고 동시에 마을의 전통적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역 사람이 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 공동체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인근의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주민조직의 사업계획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음

- 경험이 있고 대상의 요구를 잘 알고 이끌 수 있는 지역주민

지역주민이죠.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노력들을 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 중 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공동체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지들이 있다면 좋지요(사례 5).

사실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상적으로 마을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같이 있다가 보면 그것을 조율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주인의식도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깐 다 같이 주인이지만, 다 같이 조금 해이해 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 그게 바로 주인의식인 것 같아요(사례 14).

육아공동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이 된 사람들이 하면 좋겠죠. 키워봤었던 사람, 고충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해를 할 거고 관리를 할 때도 제일 많이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사례 19).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당사자였으면 딱 좋겠는데. -(중략)- 뭘 하나를 해도 뭔가 부족하게 있으면 채우려고 하고 안 된 거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의 소속을 두다보면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사례 24).

- 제주지역의 가치를 전승 할 수 있는 사람들

도나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주도 토박이인데 자기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여행객들에게 하듯이 (제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중요한 건 저희 어른도 어른이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계속 입시에 시달리면서 우리 고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 대해서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사례 10).

- 선주민을 중심으로 정착 이주민의 참여 유도

당연히 마을 주민이죠. 마을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람을 많이 알게 하고. 결속력도 생각하고, 저희도 그 마을에 것처럼 반상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기에 못 껴요, (중략) 만약 이런 게 (돌봄공동체) 생긴다면 그런 구분 없이 이제 토착민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정착 이주민)하고 같이 화합하는 장이 되도록 운영 목적으로 하여 소통하는 것,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해야 되겠지요(사례 9).

-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와 복지관, 자생단체와의 협력으로 운영

지역 주민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깐 40-50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자신도 없고 잘 모르니깐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2).

쉽게 가는 거는 현재 뭔가를 하고 있는 기관들(지역아동센터, 시니어클럽 등)이 한다고 하면 빨리 뭔가가 될 거 긴한테 뜻이 맞는 사람들, 시민들끼리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나올 거 같아요(사례 6).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만 동별로 있기도 하고, 없는 곳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곳에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마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애들 참여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사례 7).

사회(복지관, 행정관련 기관)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반상회가 있다면 그 시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사례 25).

- 주민조직과 행정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 지원 필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 중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모사업하면 주민들끼리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서포터(컨설팅) 해주는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 프로포절 같은 걸 써준다거나 운영의 주체는 주민들이 하되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할 거 같아요.(중략). 민간과 관을 연결해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을 얘기해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담과 회계업무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어요(사례 22).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청소년들의 스스로 하는 자립공동체 운영의 취지라든지, 청소년문화기획자 공모를 해서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컨설팅을 계속 지원해줘야겠지요(사례 7).

-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 추진의 중요도(7점 척도)에 대해 평균 5.44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5.62점, 30대 5.61점, 50대 5.5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부부+자녀 5.69점, 조손가정 5.6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손태주, 2015). 즉, 30대~40대 부모들과 조손가정 등에서 자녀(손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말함

<표 4-6>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 추진 중요도

(단위: 명, 점)

		N	평균	
지역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중요도 (M=5.44) ※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장애인, 1인 독거노인, 청소년, 미혼부모 등을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 등	전체	525	5.44	
	연령	20대	79	5.01
		30대	101	5.61
		40대	153	5.62
		50대	101	5.53
		60대이상	90	5.23
	가족 유형	1인가구	63	5.33
		부부	104	5.17
		부부와 자녀	279	5.69
		조손가정	5	5.60
		3세대가정	20	4.60
		한부모가정	27	5.22
		기타	27	5.00

주. N=525(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돌봄소통공간에 대한 의견으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후 찾길을 건너지 않고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점에서 학교 근처의 마을회관, 문화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응답함

• 학교 근처 안전한 마을회관, 문화센터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빌릴 수 있으면 초등학교나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을 활용하여 그곳에 있는 것들 이용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1).

청년회,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을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만들고 이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면 소식도 잘 알 수 있고 참여도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지역에 있는 이런 마을회관이 좋을 것 같고요(사례 2).

아이들 학교 주변이 제일 좋지 않을까? 센터면은 각기 다 뿔뿔이 살기 때문에 센터를 잡기도 힘들고 시골이라 학교 근처가 제일 나올 거 같아요. 집 앞 쪽이 아니면 학교 앞이 제일 낫겠죠. 학교 근처. 애들이 걸어서 이동해야 되니까요. (중략) 길 안 건너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길 안 건널 공간이 없다면 마을회관? 거기 정돈 괜찮을 거 같아요(사례 13).

경로당은 마을에 다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해도 되고....-(중략)- 동사무소에 하나의 방이든 한 층이든 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마포구 쪽에 성미산 마을 안에 보니깐 각자 주택은 다 있고 1층에다가 큰 로비처럼 부엌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층에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같이 이렇게 돌보면서 먹더라고요. 순번을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정하고, 일주일 뭐 한달 해서 아이들이 밥 굶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아기든 남의 아기든 간에 아침, 저녁을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고 1층에서 어린이집처럼 돌봐주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그런 성격으로 어른들이 지킴이도우미들이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사례 20).

집에서 하면 장애인들이 가기가 불편한 게 있어서. 복지관이 좀 더 곳곳에 있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복지관에 있는 커피숍 같은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거리를 싸와서 나눠 먹고(사례 21).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공간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요즘은 동네마다 문화센터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깐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될 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같은 데. 안전, 편리성,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어야(사례 22)

장소는 꼭 있어야할 거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어느 곳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사례 25).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마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 내 공간 마련을 통한 소통하는 시간 갖기 등이 있음. 자녀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육아 스트레스 해결법과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자녀들의 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교육건강 프로그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의견이 있음

- 마을리더 역량강화프로그램, 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만드는 게 문제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교육하는 게 마을의 리더들을 교육을 해서 그런 인식을, 이런 공동체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연계를 해 주고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들어 보라 하면 막연한거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마을 체험 학습이라든가 도서관 선생님이라든가 누구 인건비 정도라도 해 줄 수 있으면(사례 14).

- 마을 내 공간을 마련하여 이웃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필요

우선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나야 얘기하면서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프로그램 예시를 들 때 작은 사례들도 많이 넣어줘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처럼 골목문화를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놀이터나, 도서관을 활용해서 애들이 와서 놀게 하거나 애들이 친하면 부모들끼리도 친해지고 하니깐, 드라마에서도 보면 거의 가족처럼 지내잖아요(사례 22).

- 육아 스트레스 해결법, 양육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프로그램

애기가 어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니까 집에는 와야 되겠고 그녀가 서로 간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도 해주고 놀이도 좀 같이 해주고 얘기랑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도 해주고 그런 거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주맘 카페 이런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떠돌고,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공동체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사례 19).

• 주제별 학습(독서) 프로그램 운영

책이 정해져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숙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놀면서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면 좋겠죠. 독서를 해도 한국사면 한국사 별로 이제 만화책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만화책을 안 읽으니까 글로 된 책들을 읽으면서..서로 얘기하고 나누면서 무엇인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비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사례 13).

•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장애인은 아무래도 느려서, 행동이 느리잖아요. 따라가기 어려운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배려하고 양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장애인들 중에서 기술이 있는 분들에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서예나 동화동아리 같은 것들 할 수 있으니까(사례 21).

•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

할머니가 책 읽어 주는 프로그램, 빙떡 만들면서 어른들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애들 운동프로그램, 아빠랑 엄마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애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었는데 할머니가 편안하게 책 읽어주고 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4).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끝나서도 올 수 있는, 남는 시간에 책을 본다던지 학교 숙제 등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면 될 거 같아요. 노인들도 같이 한다면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사례 6).

• 생애주기별 교육건강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소외받고 상처 받은 청소년이나 노인 분들의 아픔과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소외 계층이나 취약계층 포함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사례 16).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명퇴)들이 다시 이어지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고는 상관없더라도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나 주변 친구들 부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쩔 때는 이게 위기인가보다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중략)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친구관계가 이어 질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사례 9).

•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재봉틀로 만들어서 소품 만들기, 잼 만들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0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부녀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부녀회 회장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깐 함께 친해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랑 새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1).

어르신들을 위한 가까운 곳 여행이나 문화체험, 댄스, 어른들이 따라 하기 쉬운 체조 같은 거, 노래교실, 율동교실, 한글교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모자 보내기 운동, 타악기 등 수료증 같은 거 있어서 내가 뭔가 배우고 있다는 그런 것 알게(사례 17).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떻게 문화적인 혜택을 하면서 무엇을 즐기면서 사는 가가 문제인데, 노인들한테도 그 문제가 그대로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00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문화적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더 노인들의 문화가 얼마나 더 소외되어 있을지(사례 29).

- 지역 돌봄 학습모임(양육, 건강, 문화 등) 운영(7점 척도)에 대해 평균 4.90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5.36점, 40대 5.0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부부+자녀 5.15점, 조손가정 5.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손태주, 2015). 즉, 30대~40대 부모들과 조손가정 등에서 자녀(손자녀)를 돌보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운영하는 학습모임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말함

<표 4-7> 지역 돌봄 학습모임(양육, 건강, 문화 등) 운영에 대한 욕구

(단위: 명, 점)

		N	평균	
지역 돌봄 학습모임(양육, 건강, 문화 등) 운영 (M=4.90)	전체	525	4.90	
	연령	20대	79	4.88
		30대	101	5.36
		40대	153	5.04
		50대	101	4.78
		60대 이상	90	4.31

		N	평균
가족 유형	1인가구	63	4.71
	부부	104	4.41
	부부와 자녀	279	5.15
	조손가정	5	5.00
	3세대가정	20	4.85
	한부모가정	27	4.81
	기타	27	4.74

주. N=525(남성=197,여성=328).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의 평균임.
 자료.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운영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과 의식개혁 교육 필요(자발적 참여, 신뢰, 홍보)

정보 공유와 오픈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 첫 번째인 거 같아요. 지역과 같이 참여하고 자기네 내에서만 의논하지 말고 외부에서 고문형식으로 참여하고, 학부모도 모두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안의 공동체가 같이 어울려져 하나의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거 같아요(사례 1, 사례 20).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하고자하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필요할 거 같아요. 홍보와 참여도 중요하죠(사례 6).

여성친화도시나 가족친화마을이나 중요한 건 공동체 회복인데 그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마을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위한 마을. (중략) 사실. 동네 CCTV 백개 만드는 것보다 서로 사람들이 얼굴을 알았을 때 안심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는 거지요(사례 7).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랑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됐을 때의 불편한 게 있어요. 그냥 친해지는 방법 밖에는. 그래서 정기적인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 지금 이렇게 보면 반상회 같은 거죠. 소통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사례 19).

장애든 비장애든 의식개혁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도 남이 도움을 안준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도움을 주지, 내가 먼저 서둘러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략)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사례 21).

●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 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든 한국사회든 마찬가지로지만 경쟁 위에 서는 것만이 제일이라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생각이 돼요. (중략)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뭐 이렇게 가족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폭력적인 언어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같이 더붙어 되면 더 좋겠다는. 정서적 지지를 통한 언어의 변화(사례 5).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배려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불만을 갖는다 해도 전체 회의석상에서 주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는 것(사례 10).

배려~~ 언제든지 후원해주고 박수쳐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차원. 그런 거 보면 항상 단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색깔이 분명한 성격이라, 이거 이거고 저건 아니잖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그걸 고치고 있어요. 내 색깔대로 가면 (조직이)붕괴가 돼요. 사람들을 골고루 막 성격은 화끈하지만 끌어안으면서 같이 가게끔 해야 해요(사례 11).

모이는 사람들끼리 공통의 어떤 관심사가 있었고 해야 되는 거에서 그쪽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본 것도 맞았죠. 저희 팀 아이들이 모여서 저희가 연습할 동안 모여가지고 개네들 놀고 또 이런 게 많았거든요(사례 13).

회의해야죠, 무조건 다수결. 아니 처음엔 공지를 하는 거지. 공지를 한 후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모든 의사결정하고 동의를 받는 거지요. 동의를 받는 거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를 받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일 하는데 마을사람 모두가 이런 일들이 있구나를 공유 할 수 있고, 공유해서 나는 이거 이걸 동의한다. 아니면 우리 마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이런 일들이 되고 있구나. (중략) 원칙이 좋아요. 원칙대로 벗어나지 않고, 더하지도 않게 원칙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의 단체인니까(사례 17).

공동체 회원들이 어느 정도 큰 방향은 같아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중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좋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본인들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거.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문제들은 조금씩 계속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은 그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 문제들을 맞춰가고 조절해가는 것이 필요하죠(사례 18).

가족들끼리도 살다보면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모인 건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해야 하니까 힘들 거 같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방향을 같이하는 철학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돈(사업비, 운영비)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던가(자부담),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마련을 해야죠. 단기적으로는 사업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 같으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고 5년은 해야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체를 이끌어가는 규칙도 있어야할 거 같고.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할 목표들이 나중에 가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게 나중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서 가야.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운영주체의 역량보다는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역량은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일 거 같아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역량은 서로 같이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공간, 소통, 사람(주민)이 중요할 거 같아요. 더불어 사는. 제주형에 맞는 지역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사례 22).

반상회 할 때 서로 의견을 먼저 주고받고 민주적인 절차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단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고 1-2년 연속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사례 25).

•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

지속되어야 할 것 같고, 단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사업비)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청년회나 부녀회랑 하면 좋은 게 그 분들은 계속 마을 일들을 했으니깐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도 쉽게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3).

사람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해요.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리더십도 중요해요. (중략) 리더가 요구하는 게 다 좋을 수는 없어도 마을 리더의 말은 서로 의논하면서 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고(사례 24).

-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세대별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대상별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중에 ‘포노’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 집이 같이 있잖아. 아이들이 어른들 경로당 가서 봉사를 매일 하고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휠체어 밀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따로 하는데 어린이집은 사설도 있고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이러지만 경로당은 사설이 아니잖아. 개인이 하는 건 없잖아. 국가적으로 이런 상호간에 필요한 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사례 7).

-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스템 조성

제주형 가족친화마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같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에서는 어쩌면 힘들게 보이는 일인데, 시골로 약간만 가더라도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서는 가능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마을 안에서 노인이든 아이든 더불어 같이 키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시골에서 도시로 굳이 이사 오지 않아도 시골 안에서 보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고, 교육도 잘되고,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이고, 자기 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시골로 가서 평화롭게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시작하는 것도(사례 26).

- 충분한 준비기간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 같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자리를 잡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미 그런 곳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사례 6).

정말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제도 안에 묻히느냐, 아니면 제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더라도. 정책방향을 가족친화적이라는 것에 대한 방점을 정말 단어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에 공통의 욕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게 마을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정책의 방향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필요한 게 보일 거고 부족한 게 보일 거고, 쓸 수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러면 외부에서 뭐 가져와야 될게 보이지 않을까요(사례 15).

-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한 투명성 제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자기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면 자기가 권력기관이 된 것처럼 까불거든. 그걸 잃지 말아야 하는 데 보편적 사람들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 (중략) 지가(자기가) 관련된 사람들 데려다가 앉히고 자체 감사 받고 뭐하면서~~ 그러니까 외부감사는 좋지(사례 26).

- 장기적 행정지원 전략을 통한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공동체가 잘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학적인 느낌, 인문학적인 느낌으로, 절대로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사례 29).

2. 제주도 사례 선정지역 조사 분석

가. 조사개요

- 사례 선정지역 조사는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지역주민 대상 면접조사와 물리적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대상지 선정은 본 연구 2장 시범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결과(신중진 외, 2013),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추진 역량, 활동의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함. 후보지역은 이미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4개 지역, 즉 구좌읍 평대리, 한림읍 귀덕리, 표선면 가시리, 안덕면 감산리가 추천됨. 후보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시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사업과 주요 사업 추진내용, 거버넌스 기구 및 주민 협력정도 등을 파악함. 최종적으로 2016년 현재 정부 부처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여 주민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2015년~2017년(3년)까지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구좌읍 평대리가 선정됨

<표 4-8> 사례 선정 후보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구분	구좌읍 평대리	한림읍 귀덕리	표선면 가시리	안덕면 감산리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육성사업 · 평대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귀덕1리) ※ 귀덕2리, 귀덕3리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 가시리 권역 사업 (마을만들기 5단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09 감산·대평 권역 사업(마을만들기 5단계사업)
주요 사업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1년('13년)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역량강화워크숍 ② 우수마을 벤치마킹 ③ 마을자원조사/마을의 제발굴 · 평대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3년('15~' 17년)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생활기반, 경관개선, 주민역량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돌담길 조성, 마을보호수 정비, 해녀공원 조성, 평대리100년 발전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귀덕1리) - 사업기간: 1년('15년)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역량강화워크숍 ② 우수마을 벤치마킹 ③ 마을자원조사/마을의 제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 가시리 권역 사업 (마을만들기 5단계사업) -사업기간 : '10~15년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채꽃 단지조성, 농축산물가공시설 ② 목장정비 및 승마코스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09 감산·대평 권역 사업(마을만들기 5단계사업) - 사업기간: '05~' 09년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덕계곡, 해안방문객 편의시설, 청소년수련원 정비 등
거버넌스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대리마을발전추진위원회 - 2013년 구성, 회장과 위원 10명 - 『뱅뒤신문』 발간하여 사업추진 마을주민 홍보 			
주민 협력	부녀회, 어촌계 등 다양한 마을조직과 유기적 협력			

○ 면접조사는 제주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여건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실시한 면접조사(2016.3.2~3.14)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함(3.31~4.15)

- 면접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부모와 노인 및 마을 활

동기이며, 면접 내용은 마을/동네의 범위, 동네에 산 기간 및 거주하게 된 동기, 일·가족 관련 생활사, 마을의 안전성과 편리성 정도, 동네의 인적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공간, 중요 요소 등임

〈표 4-9〉 사례 선정지역 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	성별	연령대	거주지	가족형태 유형	주거형태	면접일
사례 31	여	40대	평대리	부부+자녀+시부모+조모	농가주택	3.31
사례 32	여	40대	평대리	부부	농가주택	3.31
사례 33	남	70대	평대리	부부+자녀+노모	농가주택	3.31
사례 34	남	50대	평대리	부부+자녀	농가주택	3.31/4.15
사례 35	여	30대	평대리	부부+자녀	농가주택	4.15

-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는 사례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과는 물리적 환경에 차이가 있고, 도시 지역 중에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시설 인프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사례지역과 동시에 원도심 중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삼성초등학교 주변을 추가로 실시함
 - 조사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근리주구(Neighborhood Unit)를 설정한 페리의 정의에 따라 주구내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김태일, 2011)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주변 500m범위 내 근린주구를 조사의 범위로 정하여 실시함

〈표 4-10〉 사례지역 일반현황

구분	평대리	삼성초등학교 부근
위치	· 행정구역 상 제주시 구좌읍의 중앙에 위치 · 구좌읍의 서쪽 끝인 동북리와는 10.3km, 남쪽 중산간 내륙지 송당리와는 9.6km 거리	· 정문: 제주시 이도 1동 · 후문: 제주시 삼도 1동
면적	· 8,445km ²	· 이도 1동 : 0.692km ² · 삼도 1동 : 870km ²
인구	· 688세대 1,461명 (남자:729명, 여자:732명)	· 이도 1동 : 3,528세대 7,987명 (남자 3,973명, 여자 4,014명) · 삼도 1동 : 5,911세대 14,684명(남 7,160명, 여 7,524명)
지역 특징	· 동쪽은 세화리와 서쪽은 한동리와 인가가 인접하여 있고, 남쪽은 '돋오름'을 경계로 송당리와 접하여 있으며, 송당으로 들어가는 교차점에 위치	· 이도 1동 : 중앙로타리-남문로타리-광양로타리를 잇는 상가 및 교통문화 중심지이며, 삼성혈, 제주성지 및 오현단 위치 · 삼도 1동 : 제주시 최초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중산층이상 주거 및 상업밀집지역으로 제주시 중심가에 위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16.5.)

주.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현황(외국인제외) 2015.12.31기준 임.

- 조사방법은 먼저, 대상지역의 위치 및 주변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근린생활권 및 보육과 교육, 돌봄, 문화, 여가, 건강, 근린사업, 유희 공간 등 물리적 시설 현황 파악과 동시에 물리적 공간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해 5점 척도(상 5점, 중 3점, 하 1점)로 수치화함. 물리적 환경조사 수행은 조사원 대상 오리엔테이션(5.12)을 실시하여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른 물리적 환경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였고,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인 1조, 2팀으로 구성하여 해당 지역 조사를 실시함

나. 조사결과

1) 사례 선정지역 거주자 면접조사 결과

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동네의 범위’

- 응답자들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의 범위에 대해 공간적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0~20분 내 걸어서 이동 가능한 살고 있는 지역인 리(里)로 인식함

- 살고 있는 마을, 리(里) 전체

00리 전체가 되겠지요. 학교가 딱 중심인데 학교에서 동쪽이나 15분 걸어야 해요. 빠른 걸음으로 15분, 애들이면 더 오래 걸리겠네요. 애들은 곧바로 거길 가는 것이 아니지만, 서동에서 동동까지 1Km정도.(사례 31, 사례 33, 사례 34)

24살 때부터 이곳에 살면서 행사 같은 것도 리 차원으로 해서. 학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도 15분밖에 안 되고요 어른 걸음으로는 10분이 채 안 돼요. 큰길로 가거나 안쪽 길로 가거나 약간 편차는 있는데 여유 있게 잡으면 한 20분(사례 32, 사례 35)

나) 마을 내 인적 네트워크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모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인적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도움요청 가능하나, 정착 이주민들은 안면은 있으나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정도는 아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에 안전한 장치는 없고,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아이니까 우리가 밭에 가 있을 때도 뭘 일이 났을 때 연락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중략) 그런데 3-4년 전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도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보면 모르는 이주해서 오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00리에는 다문화가족보다 정착이주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도와주고, 학교 엄마들은 학부모회의 하면서 대충 얼굴을 알지만 애들이 학교를 졸업한 엄마들은 잘 몰라서 인사는 하지만 막 친밀감이 있는 건 아니어서(사례32)

- 자녀 학교의 학부모들과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만 일 하는 가정이 많은 지역 생활여건 상 심리적 부담감으로 도움요청 쉽지 않음

정착할 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아이 학교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그때가 입학하기 직전이었던거예요. 딸아이가 6년을 보낼 학교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딱 원하는 규모의 초등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인원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를 기준으로해서 제주도 한 바퀴 돌아보고 그중에 여기(00리)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제일 좋은 건 시골마을이라는 느낌이 있는데다가 학교주변으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주도라고 해도 돌아보니까 이렇게 마을 안에 학교가 있는 구조로 된 곳은 많이 없어요. 조금 가면 바로 해수욕장 있고, 해수욕장도 규모가 큰 데가 아니라 딱 그냥 아이가 놀만한 크기가 딱 되는 것도 좋았고 가까이에 00리처럼 막 사람 손을 탄 많이 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큰 거였고 00하고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애들 학교문제로 알고 지내는 분들, (중략) 학교만 가도 모두 애들끼리 언니이고 동생이에요. 유치원 포함해도 전교생이 60명 정도예요. (중략) 전교생이 서로 다 알아요. 그래도 급할 때 말길 만한 그런 동네에 동네 사람들은 없어요. 알고 모르고 떠나서 여기 와서 (살면서) 느꼈던 건 다 농사짓고 나처럼 집에 있는 엄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말길 여건이 좀 그렇고 집들이 보면 새로 지은 집 아니고서야 저희 집처럼 작은집에 거기다가 우리 아이까지 맡겨놓으면 우리도 지금 생활공간이 잘 분리가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녁 때 제가 맡겨야 될 경우에는 다 밭에서 일하는 아빠도 들어 올 거고 할머니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이웃이고 그런데 막상 내가 위급할 때는 친정엄마만 먼저 떠올리지 어디다 말길 수가 없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좀(사례35).

다) 사회적 돌봄의 우선 수혜자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마을 내 경로당 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을 위한 놀이 및 돌봄을 위한 소통 공간은 없는 상태이므로, 마을의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초등학교 방과 후 안전한 사회적 돌봄 공간 필요

예전에 CCTV 설치해서 학교에 나쁜 사람들 들어왔을 때부터 한 오년 된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막 인지는 못해도 학교에서 몇 구간 몇 구간마다 안전지킴이 집을 정해 놓고 만약에 자기가 도움을 요청 한다 그러면 거기를 두드리게끔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집은 표시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당하게 활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사례31).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에 안전한 장치는 없고,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아이니까 우리가 밭에 가 있을 때도 뭘 일이 났을 때 연락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지. 아직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장치나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중략) 만약에 초등학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라도 그 애들이 같이 이제 돌보미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마을의 안전, 아이들과 식구들이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어쨌든 요새 일 안하는 엄마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을 것 이고, 노인들은 거의 노인 회관에 그나마 그것도 좀 마을에 활동은 아니어도 나갈 수 있으니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32).

우리 동네가 그런 게(마을 내 아이들 공간) 요구가 많았어. 학부모들이나 마을사업 같은 것 할 때 왜 아이들 위한 시설을 계획을 안 하느냐, 그런 시설이 채워진다면 거기 먼저 구성해 달라, 그런 구상을 마을 사람들한테도 안 나왔으니깐. (중략) 초등학교 주변마을(중동)은,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 별로 크게 위험하진 않아. 근데 동동이나 서동은 일반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통학거리도 길고 잠깐 아이들 학원차라도 못타는 애들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데 그전에 방과 후에 어디 못가는 애들이 있을 어떤 공간. 근데 그게 필요해(사례33).

• 초등 저학년 방과 후 안전한 놀이 및 돌봄 공간 필요

우리 00는 각 동의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70대도 젊은 청년이거든요. 여자어르신들은 70대도 밭에 가고, 80대도 물질하고 그래요. 각 동마다 경로당이

구성이 되어있고 어른들이 무료하게 가서 노는 것 보다 가서 밥 한 끼 먹고 노는 것이 하루일과 중 큰 거거든요. 경로당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세요.(중략) 오히려 젊은 층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 젊은 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엄마들이 스스로없이 가겠죠(사례31, 32).

여긴 초등학교가 소규모여서 유치원을 다섯 살부터 다녀요. 그래서 5살부터 유치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이 되니까 3년을 유치원생활을 하는 거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을 굳이 떨어트려야 되는 관계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돌봐줘요. 그게 작은 학교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 5-6학년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가고, 자기들끼리 자전거 타서 갈 정도 되니까. 작은 공간에 책 읽게 하고, 놀이 시설이나 엄마 수다방도 되고(사례32).

어른 돌보는 것은 그동안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간 거고, 지금은 농촌지역에 애들이라든지 그런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누가 농촌에서 살겠냐 문제가 되지. 누가 됐든 마을이 됐든 노인들은 막 거동 불편해서 본인이 경로당까지 걸어올 수 있는 분들은 걸어오고 그렇지 못한 분은 시설이 좋으니까 시설로 그런데 다 가서야지. 노인당 와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냐. 그니까 자기발로 걸어서 화장실 출입이라도 본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노인당에 오는 거고. 또 요즘은 각 읍면마다 큰 시설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데 가면 (시설이)더 좋아. 여기 00리 생각할 때 먼저 어린애들 먼저 해야 해, 어른은 돌보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자기 판단이 되어 지니까. 애들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위험해(사례33).

-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돌봄 공간 필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패배자이고, 뛰어난 사람은 더 큰 도시에서 성공한다는 것보다. 여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려면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모일 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면 좀 뭐 해보자 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에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고 실제로 드러나는 게 있고 그래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게 생길 것 같아요.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려면 만나서 말을 먼저 하고, 의논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 특히 젊은 엄마들이 있을 공간이 없죠(사례35).

라) 돌봄 어려움

○ 조사결과, 여성 응답자들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사와 육아 등 집안일

은 여성이 병행하면서 겪는 신체적 어려움과 남성 중심의 농업 경영에 인식은 물론 마을 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부모들을 위한 공간 부재 등에 요구가 있음

-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지만, 가사육아 등 집안일은 여성이 주책임으로, 마을 일과 농가등록 등은 보조적 역할로 여기는 가부장적 마을 문화

처음에 (결혼해서)임신했을 때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고, 애는 둘 있는데 세살터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3년 살다가 분가해서 옆에 몇 백 미터 떨어진 곳 살다가 다시 시어머님 바로 옆집으로 가긴했는데, 저는 밭일도 하고 00사무소에 5년 정도 00장으로 일도 했었어요. 그 후로는 농사만 짓고 있어요. 농사는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으로 치자면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우리(여성) 같은 경우는 보조자의 역할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질적인 일의 양이나 종류는 어찌면 우리 같은 여성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기계를 다룬다거나 근력으로 이용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도 만약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도 남자어른들만 대부분가고 마을행사를 해도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주로고. 남자들은 마시고 놀잖아요. 그렇게 해도 모든 것은 남자 중심으로 가는 이런 것은 우리(여성) 측면에서 그런 것(힘든 것)을 가장 많이 느끼죠. 조합원을 하는 것도, 농촌에서 여성인 나는 농가등록에 농업 경영주 외 농업인이예요. 저희는 같은 경영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많은 것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중략)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것이어서(사례 32).

내가 어릴 적에도 우리는 대가족이라 3대가 같이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독자기 때문에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았고. 애기들 키우는 건 거의 다 우리 집사람이 키웠지. 밭일도 하고, 바다에도 나간. 해녀라~~ 지금도 바다에 나가. 그런 광경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 안타깝지. 근데 가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했어. 나는 주로 돕는다는 게 집안일은 거의 못 도와줬어. 무거운 일, 힘들일, 밭일은 거의 전담해서 했고, 밭에서 뭐 김매는 거나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쉼는 건 거의 여자들이 하거든. 남자들이 좀 힘든 일, 경운작업 한다는 게 옛날에는 소로 작업 했거든,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다 소로 했다고. 그런 일 하다보면 무지하게 힘들지. 남자들이 집에 오면 (부인이) 안타깝지만 못 도와줬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우리 집사람같이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야(사례 33).

- 자녀 양육기 젊은 부모들을 위한 정보교류 나눔 소통 공간 부재

우리 동네는 각 동의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중략)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을 위한 게 없어요. 돈을 내고 어디 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고 간다 해서 마

음 놓고 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애기들 바리바리 데리고 가서 있을 수 없거든요. 오히려 젊은 층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요(사례 31, 32)

저는 여기 처음 온 첫해에 둘째가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갈 때라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뭐든지 다 혼자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애랑 하루 종일 돌아서 말도 못하는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도 계속 혼자인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막 들어오는(정착하려 오는 이주민) 애기엄마들이거나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하는 엄마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애기 키우면서 이제 아이랑 엄마랑 둘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같이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라도 몇 마디 대화 나누는 걸로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사례 35).

-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 공간 미흡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곳도 없지만 애들 뛰어노는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도 엄마들은 거기서 티타임 하면서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큰 곳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옆에서 애들은 놀 수 있는데 엄마들은,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자기의 공간으로 게이트볼도 운영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기엄마들은 애기안고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놀 만한 곳도 없어요. 애들 데리고 갈만한 곳은 학교운동장, 학교 놀이터가 전부인데~~~ 중동에 가면 미끄럼틀 하나 있는 놀이터 하나 있긴 있어요(사례 31, 32).

<그림 4-5> 사례지역 놀이시설 환경



어린이 안전장치 및 관리가 미흡한 놀이터[구좌읍 평대리]

-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 수놓음 돌봄 어려움

여기서 편안하게 살기는 살지만 그래도 딱 어떤 공적인 공간이 있어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저는 신랑하고 계속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신랑은 여기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애들 하고 애들 유년기를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가 제일 컸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왔는데 신랑도 일이 있거나 나도 그럴 때 동시에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그냥 그럴 때는 한사람이 포기 하는 거죠. 내가 내 약속을 미룰게, 취소할게 이런 형식으로(사례35).

마) 마을의 안전성과 편리성

- 조사결과,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도로 환경 정비와 초등학교 주변 유흥시설 및 안전하지 못한 쉼터 정비는 물론 어두운 골목길 안전과 주차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초등학교 주변 시설 정비 필요

여기가 일단은 관광지라서 차가 너무 위험해요. 거기다 여기는 농사짓는 마을이니까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도 그렇고, 경운기는 그래도 안 빨라서 다행인데 트랙터는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 시야가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안보일수 있거든요. 트럭도 그렇고 트럭도 뒤에 아이가 서있으면 안보이거든요. 애들이 인도하고 차도 구분이 없으니까 마을 길 자체가 그게 제일 위험해요. (중략) 관광객들은 지리를 특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개념이 없고 학교주변에서도 위험하거든요(사례35).

<그림 4-6> 사례지역 도로환경



[구좌읍 평대리]
승용차 중심의 교통 환경



[삼성초등학교 주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구좌읍 평대리]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삼성초등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유희시설

- 안전하고 접근 편리한 놀이 공간 및 근린공원 조성 필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곳도 없지만 (중략) 애들이 놀 만한 곳도 없어요. 애들 데리고 갈만한 곳은 학교운동장이예요. 아이들 놀이터가 학교 놀이터가 전부인데(사례 31, 32).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람이에요. 00는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 빼고는 애들 나가서 놀게 하기에는 안 좋아요. 저도 (제주에 살면서)알레르기가 생겼고, 호흡기 질환이 생겼어요. 바람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래요. 그리고 애들도 바람 때문에 기침하는 거 때문에 한 여름에 바닷가 나가서 놀 때 말고는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없다 이런 거 보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로 바깥놀이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예요. (정착할 곳 정하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이걸 보고 선택을 한 건데 바람은 생각 못 했죠. 실내에서 놀만한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사례35).

<그림 4-7> 사례지역 실외 놀이(공간) 환경



[구좌읍 평대리]
도로 사이에 위치한 관리가 미흡한 공원

[삼성초등학교 주변]
눈에 띄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쉼터

• 어두운 골목길 안전을 위한 대안 조명 마련 필요

농촌의 길은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게 고민인데. 저녁에 다닐 때 골목길이 어두워서 밤에는 거의 그래서 안 나가요. 너무 무서워서 위험해요. 그니까 가로등이 있어도 어두운 구간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런 구간은 반드시 지나야 돼서 걸어서 나가는 건 그래서 안 해요. 촌에서는 가로등을 밤에 너무 밝게 하면 농작물이 안자란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모두 전화해서 이거 없애달라고 그래서 불 꺼진 구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쫘 위험해요. 대안 같은걸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골목길이 돌맹이로 되어 있어서 차를 운전할 때 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고. 발에 불이 있으면 어쨌거나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덜 하지 않을까(사례35).

•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주차 환경 개선 필요

제일 애들도 걱정되고 거동 불편한 노인네들도 걱정되는데 지금 00만 하더라도 외지 차량이 중간에 엄청 많아. 그냥 대도시를 방불케 한다니까. 이 렌터카 기사들이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키고 제 멋대로 그냥 막 고속으로 달리고, 여기 앞에서 사고가 수십 번 났어. 렌터카 차를 줄 때 철저한 교육이라도 필요하지, 마을의 어떤 시골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좀 교육을 시켜서 차를 내줬으면 좋겠어. 이 동네 동에서 서쪽까지 해안 쪽에 이미 차량 통행로가 마련돼 있어,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바닷가 쪽 풍경 보러 오니까 그쪽에 차들 다 세워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차가 점령하고 있는데. 공용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좋겠는데 나는 저런 걸 이용해서 공용주차장시설을 했음 하는 바람이야. 통행로 확보를, 지금 해안도로에 통행로 확보를 차가 세우지 못하게끔(사례33).

<그림 4-8> 사례지역 주차환경



[구좌읍 평대리]
해안도로 주변 무분별 주차



[삼성초등학교 주변]
돌봄자가 다니는 동선에 주차된 차들

바) 가족친화마을 운영에 대한 정책 욕구

○ 운영을 위한 주체에 대한 의견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리더는 마을의 정서와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을의 원주민이 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정착 이주민은 조력자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 마을 선주민이 리더로, 정착 이주민은 조력자로 참여

만약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그분들은(자녀교육으로 이주해 온 분들) 지원도 좋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더 넓은 공간(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시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이쪽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깐 구성(마을공동체의 구성)의 중심은 원주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래 남아있을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 구성들을 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야(활동해야) 해요. (중략) 우선은 소규모 학부모회로 가지고 가서 의견수렴을 하면. 전 교생이 60명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접근하면 바로 해결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촌은 공동체마을이잖아요. 먼저 시작하는 곳이 있으면 지켜보고, 나중엔 확장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하다보면 동네마을도 안 깨지고 사람들끼리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일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중략) 마을의 정서와 공동체정서에서 우리는 중간다리 연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고 사업만으로 들이대면 사업은 잘 꾸미면 할 수 있지만 그걸 풀어 나가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걸 가장 중심으로 가야지. 우리학교가 잘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사례32).

- 마을에서 사회적 돌봄공동체에 대해 뜻을 모아 세대통합으로 운영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동육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젊은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리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년회는 아빠들이 일단 여기는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부녀회는 연령대가 60대가 주축이고 (중략) 만약 가능하다면 마을 노인회에서 젊은 엄마들이 시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동네 어른들이 함께 와서 도와주는 형태로 뭐 시간이 조금 지난다음에도 가능하겠고 처음부터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세대통합으로 공동육아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빠나 더 뒷세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그 의미가 부합이 될 거예요. 아마 처음 초기에는 정말 애기 엄마들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아빠들이 같이 참여해줘야 되고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거랑 같이 가야 그때 진짜 가족친화 인거지 그렇게 시설만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랑 똑같거든요(사례35).

아무리 좋은 일도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합의를 이루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호꿈(조금) 몇몇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00가 다른 주변마을보다 합의가 가장 빠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항상 동네사람끼리 서로 불필요한 관계로 사는 거 같지만 00는 합의가 빠르고 수궁도 빨리해준다 생각해요. 어떤 의논을 해서 마을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요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마을 사업하는데 왜 사업시작을 안 해주냐고 요구가 많았어. 문제는 00가 마을 공용시설이 없어서 그런 사회적 돌봄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어. 마을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것이냐, 노인네를 위한 것이냐 아님 재산 가치를 올릴 것이냐 막 문제가 되었거든. 그러다 임대하게 된 거지. 근데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면 그런 어떤 시설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런 장소도 사실 있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깐. 00초등학교 앞에 담벼락 옆자리. 거기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하면 아이들 보육이나 돌봄이나 사실 이젠 무조건 생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운영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주민이 하는 것이고(사례34).

- 돌봄 및 소통 공간에 대한 의견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근처의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세대통합 복합공간으로 마을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수렴됨

- 학교 근처 마을 비료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 활용

아 바로 학교 옆에 붙어있는 공동 마을창고가 있는데 임대하고 있어서. 수익사업으로 리에서, 그런데 그 공간을 이런 공간(돌봄공간)으로 열어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학부모)가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00리의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애들한테 그런 공간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되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는 노년층이 많고 아이들은 적고. 그러면서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학교를 없애버리겠다고 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00는 없어 질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학교를 위해서 왜 마을에서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나 논의가 되었던 거지요. 지금은 이주민들이 늘고 학생 수가 늘고 있지만 마을어른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잠깐 온 거지 지역사람들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마을 애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자꾸 의견이 부딪히니까(사례31).

아이들과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00리가 세 개 동네가 동동 서동 중동 이렇게 되어있고, 학교가 가운데쯤 있어요. 예전에는 동쪽 동네나 서쪽 동네는 큰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오지만 거의 부모님들이 아침에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태워다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는데~~막 넓지는 않은데 학교 옆에~~ 애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또 엄마가 거기를 데려갈 수 있는 정도니까. 그리고 거기서 집까지 엄마들이 일끝내고 가니까 거기 있다면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학교 끝나고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하게 걸어 갈 수 있는 바로 비료창고(사례32).

00초등학교 앞에 담벼락 옆자리. 거기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하면 아이들 보육이나 돌봄이나 사실 이젠 무조건 생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사례34).

저는 일단은 제일 급한 것은 공간의 문제? 공간을 좀 실내공간을 하나 확보 하는 거가 제일 급한 것 같고요. (중략) 공동육아가 마을에서 가능했던 환경이면 서로 봐줄 수 있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마을은 농촌인데 개별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거든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에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학교 근처에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사례35).

- 학교 근처 복지관을 복합공간으로 활용

복합공간으로 그 안에 노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비료공장 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약간 애들이 다니기에는 공간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니깐 거리고 있고, 우선 걸어서 다닐 거리는 아니고 골목 안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으스스한 골목 안에 위치해 있어서 걱정이지만 그런 공간이 있긴 해요.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건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선뜻 자가용이나 이용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선뜻 갈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 4층짜리건물(사례31).

- 마을 경로당에 세대통합 복합공간으로 활용

아이들이 더 위험하난,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심은(있으면) 같이 모아들어 하면 좋겠다 이 얘기지. 여기, 경로당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 왜 그러냐면 돈을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곳에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만 조금 확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중략)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 좀 잘 설득해서 청년회나 학부모들이 어떤 도움요청을 노인회에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지. 협조 요청한다고 부탁하면 뭐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진 않아(사례33).

-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부모 간,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적 돌봄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개선 필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마을 어른들의 약간 깨우침이 필요해요. 마을에 어른 층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 몇 사람이 해서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진짜 농사를 안 지으면 생계가 어렵게 되니까 마을의 어른들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 마을은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청년회면 청년회, 부녀회면 부녀회 단체가 다 있어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마을사업으로 하는데 합의가 잘 안되어도 누가 꾸준히 잡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고령층들이 자기 자식을 다 내보냈잖아요. 이 공간을 내가 어느 정도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없는데 내가 뒷하러하냐 내 자식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쥔 큰 관건이에요. 00리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가려고 노력한 것도 불과 4-5년이에요. 한 50대까지 사람들은 왜 농촌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촌이 더 가부장적인 곳이 더 많아요(사례31).

아까 제주형, 저도 그게 요즘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까지 애들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애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넓은 세계를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릴 때 이곳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가 나를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될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마을에서 아이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집 아이고 누구 집 아이인거 알면 그냥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것 까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아직 어른들도 당신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애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니까 일단 여기는 벗어나는 것만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을 어른신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품어서 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사례35).

●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한시적인 일회성 말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육아에 아빠까지 동참시키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엄마들도 너무 여기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냥 애는 내가 오로지 전담해야 되는 걸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엄마들 스스로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차후에는 아빠도 같이. (중략) 처음

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매월이면 그렇게 항상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다면 한두 번 빠졌을 지라도 다음 달 언젠가면 들을 수 있어가 돼서 계속 자꾸 접하게 그게 좀 공통의 뭐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육아에 대해서 육아관이 너무 특히 우리 신랑처럼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같이 걸어가고 애들이랑 마당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 보면 남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니깐 자기는 그렇게 안하니까 뭐라고 할까봐, 그니까 그거가 되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 참여율이 저조해도 장기적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사례35).

- 마을 내 안전한 돌봄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더불어 아이들 체험 이런 것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귀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만들어보고 해 보는 거 그런 거가 전에는 되게 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가나, 그런데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더 시골이고 하니까 만약에 도자기 해서 거기 그림 그려 넣어서 구워주는 이런 것 한다 해도 어디를 찾아가야지 여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애들이 여기서 안 해본 것, 그런 것을 누구를 모여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체험하면서 얘기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요.(중략) 자녀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돌봄 공백시간에 누군가가 안전하게 봐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 거니깐(사례35).

-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녀 돌봄을 공유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됨

- 자녀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적 돌봄 협력 사업 필요

4~5년전 만 해도 오갈 때가 없는 취약계층이 마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주도 한달 살기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발전이 안 된 곳.. 좀 더 새로운 곳을 찾아서 들어오신 이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애들에게 애착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계층이에요. 예전과 달리 애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학교에 기존의 엄마들과 소통하려 더 노력하시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이곳에 정착하는 것보다 생각한 것과 다르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이 이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원래 살던 사람들과 자녀들과 함께 온 이주민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자주 회의를 열어요. 자질구레하게 말하다가 모든 게 아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사례31, 32)

(정착 이주민) 이런 분 들 하고 지역민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반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으면 (중략) 우리 아이들 손주 같은 아이들 키우는 그 사람들과 같이 화합해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가 아니라 같이하는 게 필요해. 왜냐면 그런 분 들은 우리 정착해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라도 이렇게 잘 돌보지 못 할 것 같아. 왜 내가 같이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같이 합류가 되어 지면은 애들 돌보는 거며, 모든 것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들도 좋고. 같이 공존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건 찬성이야(사례33).

-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작게, 점점 확대 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학교 일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 하세요. 학교 분위기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좋은 취지를 가져서 마을 전체를 다 바꾸면 좋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작게 시작하는 것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작게 시작하면 조금씩 마을사람들도 지켜보다가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사례32).

2) 사례 선정지역 물리적 환경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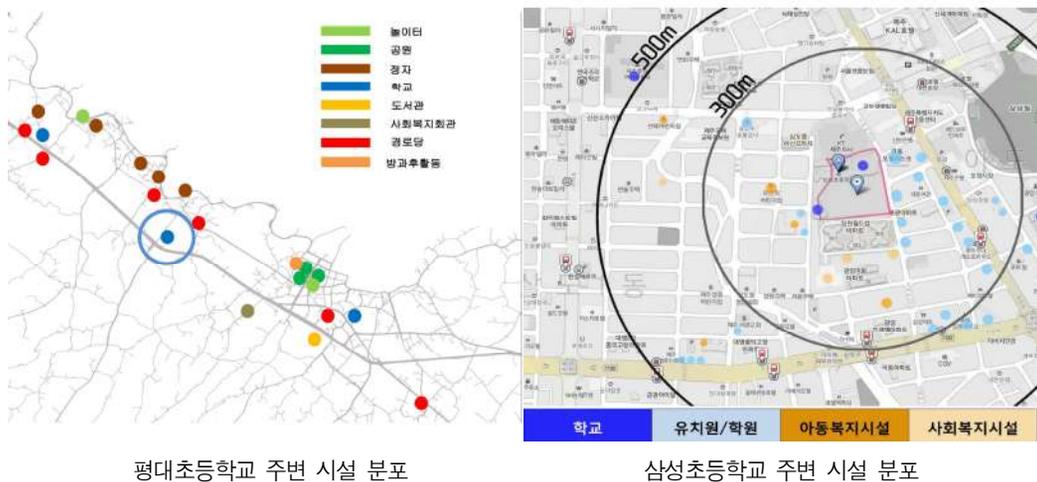
가) 사례 선정지역 위치 및 주변 시설 분포

- 사례 선정지역 주변의 시설 분포를 살펴본 결과, 평대리 주변은 노인돌봄시설과 관련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이 두루 분포해있으나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은 없음 아동을 위한 돌봄 시설은 평대와 인근 세화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각각 반경 1km 내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어서 평대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 문화 관련 시설은 인근 세화초등학교 주변에 도서관과 종합 사회복지관이 위치하여 있지만 평대리에는 부족함. 놀이시설은 초등학교 내 놀이터와 지역아

동센터 맞은편에 1곳씩 설치되어 미흡함. 정자는 마을 주변에 두루 분포됨

- 삼성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으로 보육교육시설인 유치원과 학원들이 분포되어 있고, 방과 후 돌봄 시설은 인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곳이 있음. 노인돌봄시설과 관련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이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이용 시설도 2곳 있음. 그 외에도 근린공원과 학교 내 놀이터를 포함하여 놀이시설과 병·의원 등도 마련되어 있음

<그림 4-9> 사례지역 주변 시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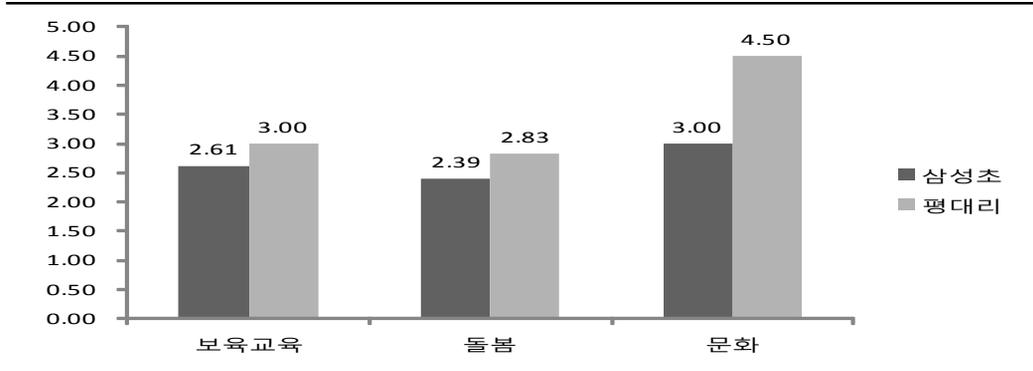


나) 조사지표 적용결과

○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5점 척도(상·중·하)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과 교육시설은 평대리가 3.00점, 삼성초등학교 주변이 2.61점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평대리 2.83점, 삼성초등학교 주변 2.39점으로 나타남.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시설은 평대리 4.50점, 삼성초등학교 주변 3.00점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표 4-9>와 같이, 삼성초등학교 주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의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놀이터와 근린공원 내 안전장치 마련과 노인을 위한 경로당은 삼성초등학교와 평대리 모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그림 4-10>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 : 점)



주. 보육교육: 영유아 보육, 미취학 아동, 초등교육 시설, 돌봄: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문화: 정보이용, 교양 취미 관련임.
 주. 사례지역별 4명의 조사원이 현장평가 실시한 결과임(5점척도: 5:안전함 5↔1안전하지 못함).

<표 4-11>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안전성 평가 결과

(단위 : 점)

구분	프로그램	제공시설	삼성초등학교 주변					평대리 주변				
			안전성(5점 척도)				평균	안전성(5점 척도)				평균
보육 교육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3	3	3	3	3.00	-	-	-	-	-
	미취학 아동	유치원	3	3	1	-	2.33	3	3	3	3	3.00
	초등교육	초등학교	1	3	1	5	2.50	3	3	3	3	3.00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 후 교실	-	3	3	3	3.00	-	-	-	-	-
		지역아동센터	1	1	-	-	1.00	3	5	5	5	4.50
		청소년 문화의 집	3	1	1	-	1.67	-	-	-	-	-
	노인돌봄	경로당	1	3	3	1	2.00	1	3	1	1	1.50
		노인복지관	-	3	3	-	3.00	1	3	3	3	2.50
		주간보호시설	5	3	3	-	3.67	-	-	-	-	-
문화	정보이용	도서관 (작은도서관)	3	3	3	3	3.00	3	3	5	5	4.00
	교양 취미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	3	5	-	4.00	5	5	5	5	5.00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 리사무소, 문화센터 등)	3	1	-	-	2.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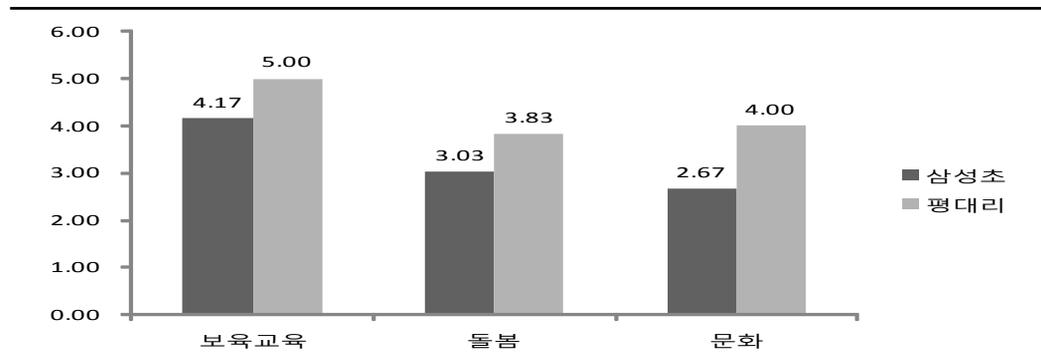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	제공시설	삼성초등학교 주변				평대리 주변					
			안전성(5점 척도)		평균	안전성(5점 척도)		평균				
여가	생활 체육	근린공원	3	-	1	1	1.67	-	-	-	-	-
		놀이터 (학교운동장)	3	1	1	3	2.00	3	3	3	3	3.00
		공공체육관 (간이체육시설)	-	-	-	3	3.00	-	-	-	-	-
건강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병원·의원	5	3	3	3	3.50	3	5	5	5	4.50
		보건소	-	-	-	-	-	-	-	-	-	-
근린 상업	생활품	재래시장	3	-	3	-	3.00	3	3	3	3	3.00
		중소형마트	3	3	3	3	3.00	5	5	5	5	5.00
유희 공간	활용 가능한 공간		-	-	-	-	-	5	1	3	3	3.00

주. 사례지역별 4명의 조사원이 현장평가 실시한 결과임(5점척도: 5:안전함 5↔1안전하지 못함).

-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에 대해 5점 척도로 현장 평가를 한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과 교육시설은 평대리가 5.00점, 삼성초등학교 주변이 4.17점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돌봄과 노인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평대리 3.83점, 삼성초등학교 주변 3.03점으로 나타남.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시설은 평대리 4.00점, 삼성초등학교 주변 2.67점으로 조사됨. 즉, 평대리는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은 3점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삼성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 외에는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근린공원 등의 접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4-11>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접근성 평가 결과

(단위 : 점)



주. 보육교육: 영유아 보육, 미취학 아동, 초등교육 시설, 돌봄: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문화: 정보이용, 교양 취미 관련임.
주. 사례지역별 4명의 조사원이 현장평가 실시한 결과임(5점척도: 5:안전함 5↔1안전하지 못함).

<표 4-12>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 접근성 평가 결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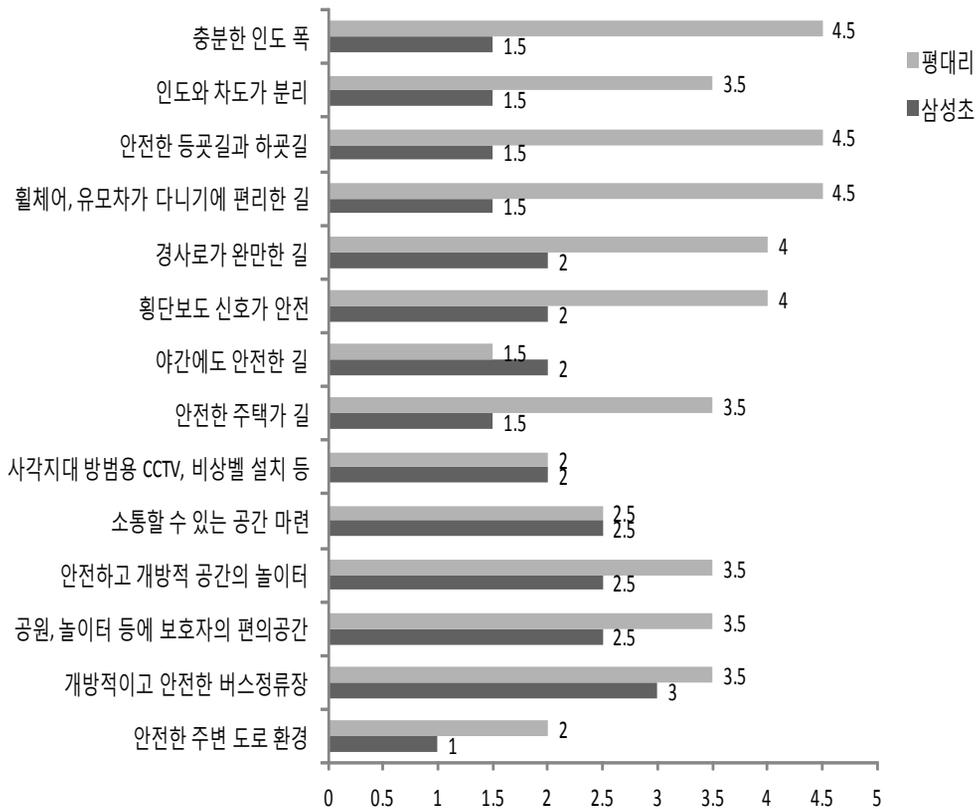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	제공시설	삼성초등학교 주변					평대리 주변				
			접근성(5점 척도)				평균	접근성(5점 척도)				평균
보육 교육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3	5	5	1	3.50	-	-	-	-	-
	미취학 아동	유치원	5	5	5	-	5.00	5	5	5	5	5.00
	초등교육	초등학교	3	5	5	3	4.00	5	5	5	5	5.00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 후 교실	-	5	5	3	4.33	-	-	-	-	-
		지역아동센터	1	3	-	-	2.00	3	5	5	5	4.50
		청소년 문화의 집	5	3	3	-	3.67	-	-	-	-	-
	노인돌봄	경로당	1	1	1	3	1.50	1	5	3	3	3.00
		노인복지관	-	3	3	-	3.00	1	5	5	5	4.00
		주간보호시설	5	3	3	-	3.67	-	-	-	-	-
문화	정보이용	도서관 (작은도서관)	3	1	3	1	2.00	3	5	5	5	4.50
	교양 취미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	3	5	-	4.00	5	3	3	3	3.50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 리사무소, 문화센터 등)	3	1	-	-	2.00	-	-	-	-	-
여가	생활 체육	근린공원	3	-	3	1	2.33	-	-	-	-	-
		놀이터 (학교운동장)	5	3	3	3	3.50	3	5	3	3	3.50
		공공체육관 (간이체육시설)	-	-	-	3	3.00	-	-	-	-	-
건강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병원·의원	3	5	5	3	4.00	3	5	5	5	4.50
		보건소	-	-	-	-	-	-	-	-	-	-
근린 상업	생필품	재래시장	3	-	5	-	4.00	3	5	5	5	4.50
		중소형마트	3	3	3	3	3.00	5	5	5	5	5.00
유희 공간	활용 가능한 공간		-	-	-	-	-	5	3	3	3	3.50

주. 사례지역별 4명의 조사원이 현장평가 실시한 결과임(5점척도: 5:안전함 5↔1안전하지 못함).

- 사례지역 근린생활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근린생활 환경은 평대리는 2점, 삼성초등학교 주변은 1점으로 낮게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야간에 안전한 길(가로등 밝기)과 사각지대 방범용 CCTV·안전벨 장치,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 마련 등이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삼성초등학교 주변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하굣길 스쿨존 확보, 공원 주변 나무들로 가려진 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며, 평대리는 학교 내 놀이터의 안전 확보와 폭이 좁은 골목길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2〉 사례지역 근린생활 환경 평가 결과

(단위 : 점)



주. 사례지역별 4명의 조사원이 현장평가 실시한 결과임(5점척도: 5:안전함 5↔1안전하지 못함).

3. 소결 : 조사결과 요약

가. 마을의 범위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 본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의 범위에 대해 마을 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0~20분 내 걸어서 이동 가능한 살고 있는 동네로 인식함.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을 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라고 응답함. 반면 자녀와 함께 이주해 온 이주민들은 원래 지역 주민과는 달리 알고 지내는 지역민이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친정 부모님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나. 사회적 돌봄의 우선 수혜자에 대한 의견

- 사례지역 조사 결과, 마을 내 경로당은 대체로 시설이 마련되어 마을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아이들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을 위한 공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를 마친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부모들에게 갑작스런 일이 생기거나 야간근무가 있을 때나 농촌 지역의 일손이 바쁜 시기 등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머무를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수렴됨

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 욕구

■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

- 먼저 재택맘들은 혼자서 아이의 양육과 가사로 인한 체력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나, 부모들 간 소통의 기회가 없어 혼자서 고립되어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서 양육정보 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모들의 소통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맘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일이 늦게 끝나거나 아이가 아팠을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돌봄 품앗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결과는 제주지역 워킹맘 고통지수가 직장생활 자체로 힘든 것보다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업무와 동시에 퇴근 후 휴식시간도 없이 해야 하는 가사와 자녀 양육 등 육체적 힘들과 심리적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결과(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7점 척도)에서 부모+자녀로 구성된 30대(5.55점)와 40대(5.28점)의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자녀를 돌보는 입장에서의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재택맘과 직장맘 고려한 차별화된 돌봄 시스템 마련
 - 재택맘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양육정보 교환과 정서적 교류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직장맘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위한 자녀연령, 부모 근무시간 고려한 공보육과 공교육 돌봄 사각지대 시간 돌봄 품앗이 운영
- 부모들의 커뮤니티 돌봄 소통 공간 조성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유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공공시설 내 돌봄 품앗이 활성화
 - 부모에게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아이가 아팠을 때 등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긍심 회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관계 증진
 - 자녀 양육기 부모 대상 육아 스트레스 해결법, 양육방법, 정보 등 제공
 - 자녀 연령별 학습독서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역 돌봄학습 프로그램 :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노인을 돌보는 자녀의 입장

- 다음으로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황혼육아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주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서 지낼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있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 주고, 마을 내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엄마들에게 친정 부모님처럼 위로와 경험에 대한 공유는 물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수놓음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욕구는 농촌의 바쁜 농번기 때 아이들의 급식과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마을 내 사회적 돌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음
- 노인을 돌보는 자녀 입장에서의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시설 내 세대 통합 돌봄 공간 활성화
 - 지역 노인이 혼자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 주기
 -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노인을 위한 돌봄 공간 필요
 -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 노인들과 교류 및 소통 증진을 통한 돌봄 지원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나 방과 후, 농번기 때 등 세대통합 돌봄 운영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성인지적 관점 마을 문화 확산
 -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및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소통 기회 제공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활동하기
 - 지역주민에게 빙떡, 사투리 등 배워주면서 소통하기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활동 프로그램 등

라.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정책 욕구

- 주민들이 거주하고 집 주변에 실제 구현된 물리적 환경은 도민의 성, 연령, 장애유무별로 고려되지 않고 승용차 중심의 도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도민의 요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초등학교 주변 유흥시설과 안전하지 못한 쉼터는

물론 주야간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조사결과, 도시집중 지역인 삼성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성과 접근하기 편하게 관리가 요구됨. 반면 도시분산 지역인 평대리는 마을에 필요한 공간과 기반시설을 계획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을 내 연령, 계층, 가족들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요구를 파악하여, 마을의 여성과 가족,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편의성이 보장된 복합 공간 요구됨
-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평대 초등학교 인근 돌봄 관련 공공시설 연계 활용 방안 필요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곳 설치 불과
 - 정보 이용과 평생학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필요
 - 안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놀이 공간, 간이체육시설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돌봄기관의 안전성 점검 필요
- 삼성초등학교 주변 안전성과 접근성 점검 필요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아동의 놀이공간 안전성 점검 필요
 - 근린공원의 안전성과 접근 용이성 점검 필요
 - 학교 주변 유흥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도로 개선방안 필요

-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사람중심 보행로 확보 방안
 - 안전한 등갯길과 하갯길 조성(학교 주변 유흥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충분한 인도 폭 확보
 - 사회적 약자 위한 차도와 보도 간 단차 높이 및 완만한 경사로 확보
 - 주민 안전을 위한 주차관리 방안(농촌 관광지 렌터카 주차 공간 조성)
- 안전한 보행길 확보
 - 마을 안전지도 제작

- 마을 방법과 안심귀가 서비스
- 밤길 안전한 가로등 정비(농촌지역: 밤길 대안적 조명 마련)
- 안전한 놀이터 및 근린공원 조성
 - 놀이터 및 근린공원 주변 개방적 공간으로 개선
 - 안전한 놀이시설 및 놀이터 바닥 등 정비
 - 놀이터 및 근린공원 내 소통 공간 마련

○ 지역의 접근 편의성에 대한 정책욕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공간
 -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활용)
 - 수놓음 돌봄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 내 유희 공간 등 활용)
 - 방과 후 돌봄 공간(지역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 혹은 세대통합 돌봄 공간)
 -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정보 교환 및 소통 공간
 - 아이들의 실내 놀이 공간 및 돌봄 공간으로 활용
 - 마을 주민 회의장소 및 나눔 공간 활용
 - 건강관리 및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용

마. 가족친화마을 조성 방향과 구성요소

- 가족친화마을은 마을 주민들 중 돌봄 공동체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원래 마을 주민이 리더로 하여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양성평등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임
-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경험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계획은 물론 마을 내에서 안심하고 아이들 키우고 돌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임
- 이러한 방향은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과소평가되었던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 어린이, 노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 공간 및 시설 지원을 통해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임.

또한 그동안 마을 만들기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사회적 돌봄의 가치를 마을 만들기 과정에 결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구성요소를 대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 신뢰관계 형성 •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 • 초심을 잃지 않는 철학 • 국공립 시설의 세대별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지속성과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 • 마을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회복 • 소통과 배려 • 주민 의식개혁 교육 • 장기적 행정 지원 |
|--|---|

○ 본 조사결과, 사회적 돌봄 가능 공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다는 점과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됨. 제안된 곳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13> 사례지역 사회적 돌봄 가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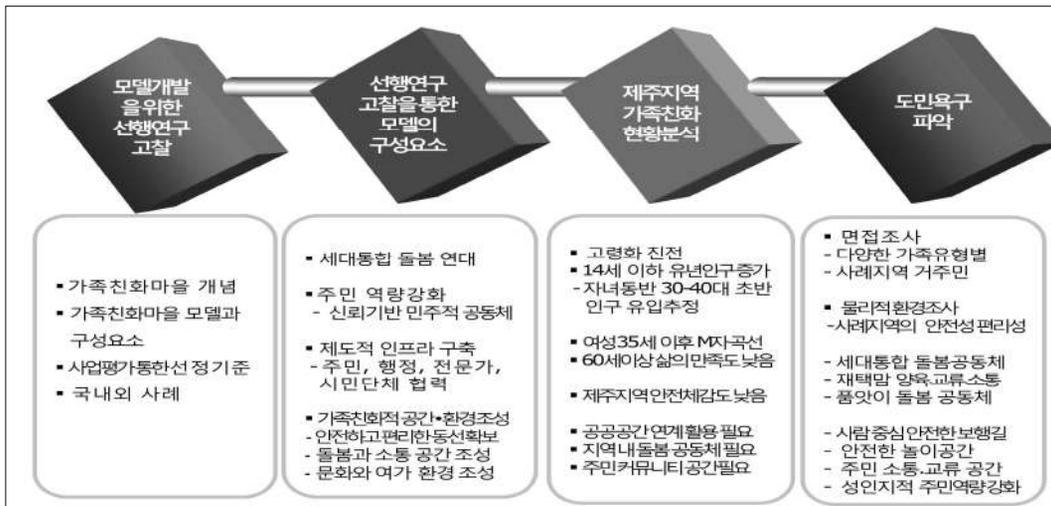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1. 모델개발 과정
2. 구성틀
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4.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추진방안

1. 모델개발 과정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됨
-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친화마을 개념과 모델개발과 구성요소, 시범마을 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파악하고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구성요소와 방향을 설정함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방향의 핵심은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회복,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보장, 행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의 공간환경 조성임

〈그림 5-1〉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과정



-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적 현황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2015년 10월 6일 전부 개정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26조와 제39조 조항이 반영되지 않음
 -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26조와 제39조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일·가정 양립지원과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추세처럼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령별 순이동 인구 중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증가는 자녀를 동반한 30~40대 인구의 유입과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정책과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선이 요구됨
 - ③ 제주지역 여성의 35세 이후 고용률이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출산전후 휴가 등 이용현황을 통해 육아와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개선 요구됨
 - ④ 제주도민 중 60세 이상 노인의 개인적·집단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낮아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와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요구됨
 - ⑤ 제주지역 범죄위험과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이 부모들의 낮아 지역 환경 조사를 통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대응방안 요구됨
 - ⑥ 제주도민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40대와 부부+자녀, 한 부모 가정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남
 - ⑦ 제주지역 돌봄시설은 노인대상 시설보다 아동대상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및 문화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경우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행사 수는 감소한 결과 및 지역의 작은 도서관 상당수가 마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 대상 부족한 돌봄·문화 시설 연계 운영방안 요구됨
- 도민욕구조사와 사례지역 물리적 환경조사 결과를 통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① 마을의 범위와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
 - 마을과 동네의 범위는 마을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걸어서 10~20분 내 이동 가능한 살고 있는 동네로, 마을 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알고 지내는 모든 분은 인적 네트워크 자원임. 그러나 자녀와 함께 이주민들은 알고는 지내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 심리적 부담감으로 쉽게 자녀 돌봄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 ② 사회적 돌봄의 우선 수혜자에 대한 의견
 - 마을 내 경로당 등과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비해 아동과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한 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의 마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아동이 돌봄 공동체의 우선 수혜자가 되어야 함

③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 욕구

-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

- 재택맘과 직장맘 고려한 차별화된 돌봄 시스템 마련
 - 재택맘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양육정보 교환과 정서적 교류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직장맘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위한 자녀연령, 부모 근무시간 고려한 공보육과 공교육 돌봄 사각지대 시간 돌봄 품앗이 운영
- 부모들의 커뮤니티 돌봄 소통 공간 조성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유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공공시설 내 돌봄 품앗이 활성화
 - 부모에게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아이가 아팠을 때 등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긍심 회복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관계 증진
 - 자녀 양육기 부모 대상 육아 스트레스 해결법, 양육방법, 정보 등 제공
 - 자녀 연령별 학습독서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역 돌봄학습 프로그램 :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노인을 돌보는 자녀의 입장

- 공공시설 내 세대 통합 돌봄 공간 활성화
 - 지역 노인이 혼자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주기
 -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노인을 위한 돌봄 공간 필요
 -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 노인들과 교류 및 소통 증진을 통한 돌봄 지원

-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과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나 방과 후, 농번기 때 등 세대통합 돌봄 운영
-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아빠의 가사·돌봄 참여 문화 확산
 - 성인지적 관점 마을 문화 확산
 -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및 부부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소통 기회 제공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활동하기
 - 지역주민에게 빙떡, 사투리 등 배워주면서 소통하기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건강프로그램 운영
 -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활동 프로그램 등

④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정책육구

- 물리적 환경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점 제안

- 평대초등학교 인근 돌봄 관련 공공시설 연계 활용 방안 필요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에서 1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곳 설치 불과
 - 정보 이용과 평생학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필요
 - 안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놀이 공간, 간이체육시설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돌봄기관의 안전성 점검 필요
- 삼성초등학교 주변 안전성과 접근성 점검 필요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 개선 필요
 - 아동의 놀이공간 안전성 점검 필요
 - 근린공원의 안전성과 접근 용이성 점검 필요
 - 학교 주변 유흥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도로 개선방안 필요

-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육구

- 사람중심 보행로 확보 방안
 - 안전한 등굣길과 하굣길 조성(학교 주변 유흥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충분한 인도 폭 확보
 - 사회적 약자 위한 차도와 보도 간 단차 높이 및 완만한 경사로 확보
 - 주민 안전을 위한 주차관리 방안(농촌 관광지 렌터카 주차 공간 조성)
- 안전한 보행길 확보
 - 마을 안전지도 제작
 - 마을 방법과 안심귀가 서비스
 - 밤길 안전한 가로등 정비(농촌지역: 밤길 대안적 조명 마련)
- 안전한 놀이터 및 근린공원 조성
 - 놀이터 및 근린공원 주변 개방적 공간으로 개선
 - 안전한 놀이시설 및 놀이터 바닥 등 정비
 - 놀이터 및 근린공원 내 소통 공간 마련

- 지역의 접근 편의성에 대한 정책 요구

-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공간
 -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활용)
 - 수놓음 돌봄 공간(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 내 유희 공간 등 활용)
 - 방과 후 돌봄 공간(지역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 혹은 세대통합 돌봄 공간)
 -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정보 교환 및 소통 공간
 - 아이들의 실내 놀이 공간 및 돌봄 공간으로 활용
 - 마을 주민 회의장소 및 나눔 공간 활용
 - 건강관리 및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용

⑤ 가족친화마을 조성방향과 구성요소

- 돌봄공동체에 뜻을 가진 초동주체 형성 중요, 이후 조직화 필요

-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 의견까지 반영한 사회적 돌봄 가치 재해석
- 마을의 리더는 마을에서 오래 남아서 살 선주민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로 운영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렴된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 신뢰관계 형성	● 소통과 배려
●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	● 주민 의식개혁 교육
● 초심을 잃지 않는 철학	● 장기적 행정 지원
● 국공립 시설의 세대별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의 지속성과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	
● 마을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 활성화	

2. 구성틀

가. 기본방향

-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 ① 세대통합 공동체 회복
 - 생애주기별 돌봄 문제로 인해 재택맘과 워킹맘이 양육과 가사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내 노인들은 황혼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들 간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회복해야 함
 - ②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보장
 - 제주지역 가족친화마을 조성은 마을 내 아동, 노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야 함

③ 행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성이 잘 작동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제주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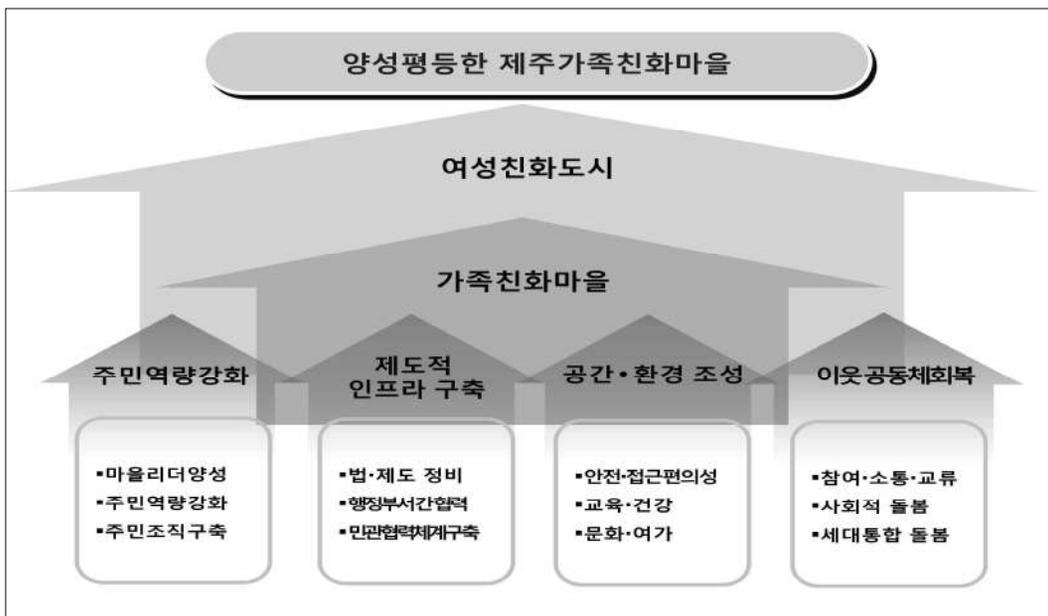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양성평등한 마을 조성

-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가족친화마을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 마을 내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하여 마을 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임

나. 구성요소

- 모델개발을 위한 구성요소는 기존 마을 만들기의 공간·환경 시설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양성평등한 가족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공간·환경 조성, 이웃 공동체 회복으로 설정함

<그림 5-2> 제주형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



- ① 주민역량강화 : 원활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 간 신뢰로 형성된 주민조직을 구축하는 것임
- 마을주민들은 가족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적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이들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독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생적인 모임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축적함으로써 마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음
- ②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가족친화마을 조성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된 주민조직과 지역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되어 다양한 마을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행정의 예산지원과 컨설팅 지원 및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해 가족친화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또한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등 점검을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의 방향에 맞게 여러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③ 공간환경 조성 : 마을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접근성이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함
- 본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 돌봄에 대한 지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이 불충분”, “젊은 엄마들의 소통과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소통 공간이 없다” 고 지적하여,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남
 - 또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욕구로도 “자녀들의 놀이 시설”, “야간 안전”, “소통 공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개인과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은 물론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여가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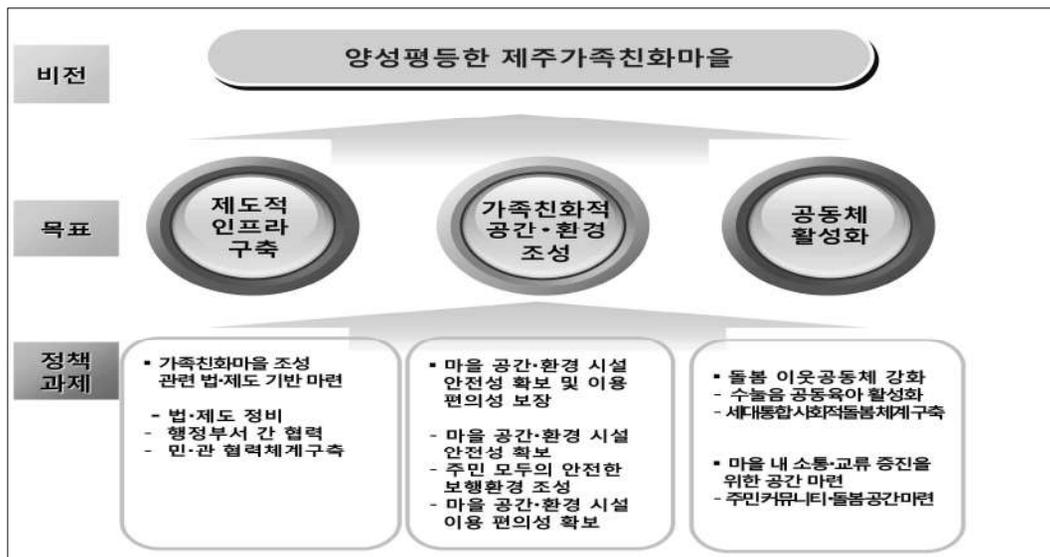
- ④ 이웃 공동체 회복: 이웃 공동체 회복은 가족친화마을의 핵심적인 요소임. 또한 돌봄을 포함한 교육 사업은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초기에 실천할 수 있기에 좋은 사업으로서, 공동육아, 좋은 아빠모임, 청소년 돌봄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음(장임숙권진아, 2015)
- 특히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 돌봄이 필수적인 활동이며, 직장맘과 재택맘 간 연대를 통해 돌봄 품앗이를 실천하거나, 마을 내 젊은 부부와 어르신 간 세대통합을 통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젊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을 출근시간 전이나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에 취업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유연하게 돌봐줄 수 있는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로 연대할 수 있음

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가. 비전과 목표

- 기본방향과 구성틀을 기반으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로 개발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3>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비전은 「양성평등한 가족친화마을」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제도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공동체 활성화’로 제시함
-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제주 여성친화도시와 연계되어 도시 공간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부터 함께 공유되고 마을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마을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이웃 공동체가 실현되도록 구성함
- 동시에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목표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5~2020)의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영역별 정책 방향을 수렴하여 연계하였으며, 연계된 정책영역별 목표는 아래와 같음

〈표 5-1〉 제주 여성친화도시와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간 목표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목표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목표	
제도 기반 정착	1.정책의 성 주류화 2.민·관 협력 기반 구축 강화	제도적 인프라 구축	1.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3.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5.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6.여성친화적 안심 서비스 확대 7.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2.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8.건강한 지역공동체 강화 9.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공동체 활성화	3.돌봄 이웃공동체 강화 4.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 특히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를 통한 양성평등한 제주가족친화마을은 마을 주민 누구나 동등한 참여와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과 민·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은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9개의 세부과제임. 9개의 세부과제는 행정부서 간, 민·관 협력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음

〈표 5-2〉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의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비전 : 양성평등한 제주가족친화마을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추진부서	연계사업
1. 제도적 인프라 구축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⁴⁾		
	1.1.1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1.1.2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중간지원 조직
	1.1.3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포상조례
2.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2.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⁵⁾		
	2.1.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만들기 권역 추진사업
	2.1.2 주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2.1.3 마을 공간·환경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3. 공동체 활성화	3.1 돌봄 이웃공동체 강화		
	3.1.1 수놓음 공동육아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사업
	3.1.2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3.2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3.2.1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 마련	여성가족정책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사업
계 : 3개 정책 목표, 4개 정책과제, 9개 세부과제(9개 연계사업)			

4)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제도 정비는 관련 부서 간의 유사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
 5) 성인지적 관점으로 공간·환경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과, 디자인건축지적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 목표 1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가족친화마을은 도시공간정책과 사회정책 모든 측면을 포괄하므로 여성정책 담당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워 관련 행정 부서 간의 협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 관련 행정 부서 간 진행되는 일련의 진행절차, 체계가 긴밀하게 협조되어 예산의 중복방지와 효율적인 투자계획은 물론 그동안 가려졌던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로 지방자치의 ‘시민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함
- 정책과제 :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목표 2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 가족친화마을에서 추구하는 공간과 환경 조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이동양육과 가족부양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의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 내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공공민간 시설의 양적 제공과 동시에 물리적 안전성과 이용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정책과제 :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 목표 3 : 공동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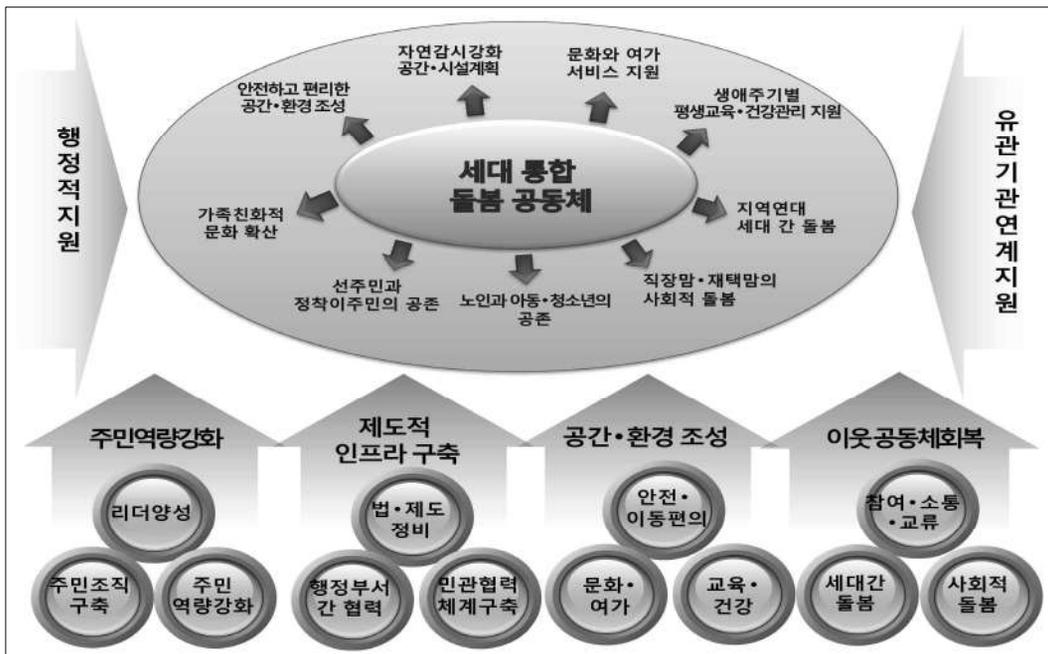
- 가족친화마을에서의 공동체는 마을 내 주민들 간 ‘같음과 다름’이 상호관계 안에서 ‘함께’ 작동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가족과 가족이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웃과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 마을을 말함. 이를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 마을 내 다양한 연령·계층가족 간 삶의 질이 보장되고 협력하는 마을 내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정책과제 : 돌봄 이웃 공동체 강화, 마을 내 소통교류를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나.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

1) 실천모델

-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은 주민들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의 돌봄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등 어려움을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실천됨
 - 실천모델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주민 역량강화와 누구나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추진 전략을 위해 장기적인 행정적 지원과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이 전제될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그림 5-4>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실천모델



- 실천모델의 세부 유형은 초동주체 형성에 따라 부모 중심 돌봄 조직유형(유형1)과 지역사회 돌봄 조직유형(유형2)으로 분류됨. 두 유형은 지역 상관없이 돌봄 공동체 운영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거나 동시에 운영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제주가족친화마을을 만드는 것임

2) 실천모델 유형

■ 유형 1 : 부모중심 돌봄 조직 유형

○ 주체 형성

- 재택맘과 직장맘 상관없이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양육자들 간 돌봄의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돌봄 공동체 형성한 후 사업에 대한 과정과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화하여 지역연대 결성

○ 마을 특성

-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 핵가족 중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 혹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재택맘과 맞벌이 가족이 많은 지역

○ 목표

-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하기 편리한 자연감시 기능이 강화된 공간·환경 조성 및 재택맘의 육아정보와 정서적 지지,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한 지역연대 나눔과 협력이 가능한 공동육아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부모 중심 돌봄 조직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예시는 아래 표에 제시함

〈표 5-3〉 부모 중심 돌봄 조직 유형 적용사업 예시

구분	적용 사업 예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일시·방과 후 공동 육아나눔터(공보육·공교육 귀가장소) · 가사노동 절감 위한 저녁 공동밥상, 방학기간 공동급식 나눔터 · 부모들 간 육아·자녀교육 정보교류 육아 사랑방 · 부모들 간 재능 나눔, 중고 장난감·도서 나눔 장터 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조사를 통한 위험 요소 파악 안전지도 제작 ·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하굣길 만들기 · 보호 관찰이 가능한 안전한 놀이터(공원) 조성
기타 (문화, 여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와 함께 하는 자연친화 체험 놀이 프로그램 · 찾아가는 육아정보,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 놀이터(작은 도서관 등)에서 여는 우리 가족 요리 경연대회(또는 동화 구연 재 활용 만들기 등)

■ 유형 2 : 지역사회 돌봄 조직 유형

○ 주체 형성

- 마을 학부모회와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마을 자생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가정 간 세대 통합 연계로 자녀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형성

○ 마을 특성

- 원 도심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도시와 농·어촌의 복합특성을 가진 지역, 중장년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및 학부모 혹은 마을 사람들과 서로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일하는 가정이 많은 제주 지역 여건 상 필요시 친·인척처럼 자녀를 맡기기 어려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착 이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 목표

-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자연 감시 기능이 강화된 공간·환경 조성 및 세대통합 교류와 소통을 통한 이웃공동체 회복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돌봄 조직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적용 사업 예시는 아래 표에 제시함

<표 5-4> 지역사회 돌봄 조직 유형 적용사업 예시

구분	적용 사업 예시
돌봄	· 방과 후, 방학기간, 농번기 일시·종일 세대 통합 돌봄 사랑방(공보육·공교육 귀가 장소) · 가사노동 절감을 위한 방학기간, 농번기 공동급식 나눔터
안전	· 세대 통합 마을 아동 지킴이 실버 폴리스 활동 ·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기타 (문화, 여가 등)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찾아가는 가족학교, 부모학교 운영 · 마을 어르신과 함께 하는 제주사투리·빙떡·전래동요 배우기 ·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마을 노·소(어르신·아이)어울림 · 자녀 돌봄 통한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놀이문화 축제

3) 실천모델 추진전략

○ 실천모델의 추진전략은 소수의 주체로 시작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향후에는 지역 주

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반대로 현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나 기 추진되었던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에 사회적 돌봄 가치에 대한 재조명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여 실행될 수 있음

- 추진전략은 실천 유형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순서는 아니며, 기존의 마을만들기 경험 여부, 인적 자원의 역량, 물리적 환경 등 마을환경 조성 준비 여건에 따라 서로 교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음

■ 전략 단계 1 : 초기 운영 주체 조직화

- 소수의 몇 명이라도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임이 만들 수 있다면, 이 모임이 그저 자신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이들이 초기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음
- 성미산마을 사례는 맞벌이부부들이 자신의 자녀들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동육아를 하고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부모들 간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녀들의 성장에 맞춰 지역 방과후 학교와 다양한 문화 축제로 확대해 나감. 또한 느티나무 도서관 사례는 초기 운영 주체들이 이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초기부터 운영이 잘 된 사례임
- 이런 점에서 초기 운영 주체를 마을의 자녀 돌봄에 대한 뜻을 가진 주민들과 기존 조직들이 가족친화적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협력 기반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전략 단계 2 : 조성사업 발굴

- 초기 운영 주체가 조직되었다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함. 초기에는 운영 주체들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실행 계획부터 모든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함

〈표 5-5〉 실천모델 워크숍 진행방법(예시)

순서	워크숍 진행 방법(예시)
1	참가자들을 5명 이내로 조를 편성
2	각 조별로 하루나 이틀 동안 마을의 조사할 구역을 지정
3	각 조별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활용하여 자기의 담당 구역을 조사
4	사진자료는 칼라로 인쇄하여 마을의 해당 지역에 붙임
5	각 조별로 조사과정에 대해 느낀 점, 배운 점, 향후 마을만들기에 적용점에 대해 토의
6	1년, 3년, 5년, 10년 후 마을의 모습과 목표, 그에 따른 추진 방향 등 마을에 대한 꿈 나누기
7	조별 자료를 모은 성과를 단기 추진사업, 중장기적 추진사업별로 분류하여 필요 여건 검토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 인원 -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일 등으로 분류
8	사업들 중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마을 자원 가능 타당성 검토 - 소요시간, 필요예산, 가능한 운영조직, 추진할 활동 내용 등
9	우선 사업 선정하고 계획 수립 - 마을의 목표에 부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 - 시기적으로 시급하면서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 자발적 자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사업

자료 : 이승지 외. 2009. p122. 연구자 재구성

-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하는 과정은 성인지적 관점 이해하기, 주민들 간 토론하기, 다른 지역 사례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대개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시작된 모임이 아이디어의 창구가 됨
- 느티나무 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민들 간 신뢰와 소통은 보다 더 두터워질 것이며, 어느 전문가의 강의 이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 전략 단계 3 :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사람들이 조직되어야 하고,

- 추진단이 조직되고 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할 공간과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기존 조직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면 활용 가능한 공간과 예산 지원 등으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초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의 재능 기부로 가능한 돌봄과 교육, 문화여가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참가자들의 참가비만으로도 운영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주민들의 참여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라도 실행력을 지원받게 되면 보다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어 추진되는 사업의 질적 수준이나 주민들의 참여 정도, 홍보효과, 사업의 성과 등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
 - 예를 들어, 성미산마을의 경우 2004년 생협을 중심으로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태마을 만들기를 위해 동아리 활동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골목길 안전 홍보 등을 2년 정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마을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임. 즉, 골목길 안전문제는 골목길 속도 제한이나 도로체계 개편, 자동차주차장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이송지 외, 2009)
 -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은 예산은 물론 인적 자원들을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과 갈등관리는 물론 민주적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성격검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전략 단계 4 :사업 평가·지속 확산

- 사업의 평가는 그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과 지속되어야 할 점 등을 평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때 참여했던 구성원들 중심으로만 평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임

<표 5-6> 실천모델 추진전략

구분		내용
단계 1	초기운영주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시작 · 기존 조직,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 기반 마련
단계 2	조성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활성화 : 수다모임 ·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워크숍 · 주민 대상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 · 다양한 홍보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 SNS 홍보, 설문조사, 토론회, 반상회, 가정방문 홍보 등 · 사업 준비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단계 3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단 조직 : 주체, 공간, 예산, 프로그램 등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사업 혹은 공모사업 등으로 진행 · 사업 과정에 대해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관심 유도, 사업에 대한 홍보 · 민·관 협력 기반을 통한 협력 사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의지가 필요한 사업 등 시너지 효과 · 주민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 발굴 및 양성, 갈등관리, 의사소통훈련, 성격검사 등 · 사업 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단계 4	사업 평가·지속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 마련 · 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비전과 목표 만들기 - 관련 기관 협조와 전문가 의견 수렴 - 계획 수립에 따른 년도별 사업 실행계획 마련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사업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추진방안

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1개의 정책 과제와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은 부서별 협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

〈표 5-7〉 정책 목표 1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정책과제	세부 과제	추진 부서	필요성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1.1.1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법적 연계사업 기반 마련
	1.1.2 가족친화마을 조성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법적 행정협업 기반 마련
	1.1.3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촉진 기반 마련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사업은 아래 표에 제시함

〈표 5-8〉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사업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 : 백만원)	
가칭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마을단위 역량 강화 활성화 ※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 지원	2016-2020 (3,390)	지역균형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2016-2020 (30)	여성가족정책과

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1-1-1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법·제도 정비

■ 필요성 및 사례

-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은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 돌봄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양성평등 원칙과 성별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개선이 필요함
- 마을 만들기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수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이며(손문금 외, 2012),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돌봄 공동체는 자녀의 교육과 돌봄의 어려운 문제에 뜻을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하면서 장기적 마을공동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과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성 평등한 사회참여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 성평등지수 반영 추진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제주지역의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지원 방향과 협의하여 관련 조례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추진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정비
 - 가족친화적 마을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환경 조성과정에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양성평등 목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1조 사업지원 내용과 제15조 위원회 구성 성비를 양성평등 마을 만들기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함

〈표 5-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안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관련 부서	지역균형발전과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제25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26조(알·가정 양립지원),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9조(여성친화조시)에 의거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원되어야 함.		
	개정 전	개정 후	
	<p>제11조(사업의 지원)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언론홍보·연구 등의 공동협력 사업 5. 마을의 문화·복지 증진 6.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원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8.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p>제11조(사업의 지원)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및 공공 돌봄·공동체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언론홍보·연구 등의 공동협력 사업 5. 양성평등 마을의 문화·복지 증진 6.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원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8.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9. 양성평등 마을만들기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p>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마을공동체 대표 3.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마을공동체 대표 3. 양성평등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2 가족친화마을 조성 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체계 마련

■ 필요성 및 사례

-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은 마을의 공간 및 시설 개발과 관리 과정에 행정 부서 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제5조 1항 1에 의하면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6조 1항에는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 2항에는 전담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함

○ 비엔나의 마리아힐프(Mariahilf) 시범지구 프로젝트 사례는 도로과, 조명과, 교통과를 핵심부서로 선정하여 ① 관련된 기술적 지원, ② 부서들 간의 교류, ③ 기본계획, 최소한의 기준 등을 두고 도시개발의 성 주류화 가치를 보여준 사례로,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 대표적인 행정부서간 협업사례임(손태주, 2015)

■ 추진 방법

- 가족친화마을 조성 행정 협력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 정비
 - 주무부서를 주축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조직인 가칭 지원센터를 통해 기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족친화적 관점에서의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함

<표 5-10> 행정 협력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 정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관련 부서	지역균형발전과
개정사유	·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에 의거하여, 지역의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와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8조(성인지 교육)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함.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같은 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9조(여성친화조시)에 의거하여,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을 실천하도록 명시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3.27.)에 의거하여,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2015.3.17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명시된 제9조(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와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의 개정이 필요함.		

개정 전	개정 후
<p>제9조(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p>	<p>제9조(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p>
<p>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p>	<p>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양성평등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양성평등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성인지적 관점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p>

1-2-3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필요성 및 사례

-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은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민, 행정, 시민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 국내외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의 가족정책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모임과 민관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행정의 역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 내 부족한 자원을 중간컨설팅 조직으로 지원하거나, 인근 지역 공적기관과 기업 등의 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임

■ 추진 방법

- 가족친화마을 지구 내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후원에 따른 표창 및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안함

〈표 5-11〉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조항 정비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부서	여성가족정책과
개정사유	·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에 의거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가 없도록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를 명시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3.27.)에 의거하여,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2015.3.17 일부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였으며,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는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2017.3.27. 제15조 제7항), 시행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2016.3.25)에 명시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업·기관·단체	

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은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1개의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기 수행 중 사업은 부서별 협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

〈표 5-12〉 정책 목표 2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정책과제	세부 과제	관련 부서	필요성
2.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2.1.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2.1.2 주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2.1.3 마을 공간·환경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	여성가족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부서 간 연계 추진

-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은 아래 표에 제시함

〈표 5-13〉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백만원)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2016-2020 (8,998)	재난대응과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와 가로등 조도 개선	2016-2020 (23,500)	건설과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지원 강화	2016-2020 (35)	여성가족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16-2020 (2,050)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사업	2016-2020 (600)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지침 활성화	2016-2020 (1,500)	디자인건축지적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2016 (20)	여성가족정책과
주차문제 해결(Green Parking 확대, 주차시설 확충 등)	2016-2020 (106,123)	교통정책과

2-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 보장

2-1-1

마을 공간·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 필요성 및 사례

- 마을 주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방적 자연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함. 특히 본 조사결과, 도심 지역 초등학교 주변 유흥시설 및 안전하지 못한 쉼터·놀이터 등에 대한 불안감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경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대한 욕구(7점 척도)에서 안전한 도시 디자인 설계 및 밤길 안전에 대해 30~40대의 욕구가 높았고, 학교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들의 욕구(5.94점)가 가장 높았음(손태주, 2015)
- 서울 마곡지구는 서울시 CPTED 주요요소를 적용하여 여성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또한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는 ‘마리아힐프 자치구 프로젝트’ 를 통해 그동안 가려졌던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였으며,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변 조명과 유리 및 창문을 많이 설치하여 ‘사회적 눈’ 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손문금 외, 2012)

■ 추진 방법

- 범죄예방 요소 적용한 자연 감시를 통한 마을 내 위험 요소 제거
 - 개방형 자연 감시가 가능한 마을의 공간과 환경 조성
 - ▶ 보호자 관찰 가능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연령별 공간 배려)
 - ▶ 지역 공공 공간·환경 시설의 밝은 조명, 유리 창문으로 ‘사회적 눈’ 확보
 - 마을 방법 지원 시스템 마련 : 마을 조사를 통한 안전지도 제작 활동



<그림 5-5> 비엔나 시 마리아힐프 자치구 도로 시설 배치도



자료. 손문금 외. 2012. p.42

<그림 5-6>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



주택가로와 도로 연결 개방적 쉼터
<스톡홀름>



자연 감시 강화한 밝은 조명의 귀가길
<스톡홀름>



청소년 우범지역을 밝고 화사한 벽화로 변화
<뇌레브로 지역 공원>



주택가 자연 감시 가능한 자연 녹지 공원
<뇌레브로 지역 공원>

주. 연구자 촬영.2016.6.(2016.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 연수)

2-1-2 주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 필요성 및 사례

- 마을 주민 누구나 안전사고 예방과 밤길 여성에 대한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야간에 가로등 밝기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 필요함. 본 조사 결과,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야간에 안전한 길과 학교 주변 도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도는 2010년 61.1%에서 2014년 66.8%로 증가하였으며,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고지영, 2015). 또한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들의 범죄폭력 등 지역의 안전도에 대해 3.26점(7점 척도)으로 가장 낮음(손태주, 2015)
- 시흥시는 안전이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대문구는 이면도로 운행 마을버스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심야 안심귀가를 위한 심야시내버스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음(최유진 외, 2014). 2002년 몬트리올 여성단체와 도시위원회는 국제여성안전회의를 통해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여성의 시정 참여와 안전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시정의 계획과 목표에 도입하여 ‘무장애 도시(barrier-free society)’ 실현을 제안하여 추진함(손태주, 2015)

■ 추진 방법

-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도로환경 확보
 -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보도로 확보(차도와의 분리)
 - 아동의 안전한 학교 통학로 확보(가능한 길을 가로지르지 않는 통학로 조성)
 - 미끄럽지 않은 안전한 보행로 마감재료 사용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단차 및 보행로 주변 불필요한 시설물 등 장애물 제거
 - 야간 안전한 귀가 길 조성(가로등 밝기 및 조도, 안심귀가 서비스 등)

<그림 5-7>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로 요소

- 주행간섭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
 주행간섭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횡단 횡단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도둑 하디 보도블록 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설치사례



- | | |
|---|---|
| 1 | 2 |
| 3 | 4 |
- 1.2m이상 확보 정자블록 설치 완료 | O
 - 1.2m이상 확보 | O
 - 접근로상 장애물제거(전신주, 신호등등) | X
 - 접근로상 장애물제거(벤치등) | X

안전한 보행로 확보

● 설치사례



- | | |
|---|---|
| 1 | 2 |
| 3 | 4 |
- 대지 경계선 내 50% 보행로가 차도와 원천 분리 | O
 - 경계선을 설치하여 분리 | O
 - 고형식 공작블록을 설치하여 분리 | O
 - 보차가 분리되지 않음 | X

차도와의 분리

● 설치사례



- | | |
|---|---|
| 1 | 2 |
| 3 | 4 |
- 회강석 1.잔디돌:O 2.베너구마:O 3.물갈기:X | O
 - 타일 1.미끄럼방지용 소형타일:O 2.미끄러움:X | O
 - 돌 1.고른마감:△ 2.고르지않음:X | X
 - 인조 대리석 1.잔디돌:O 2.베너구마:O 3.물갈기:X | X

재질 및 마감

● 설치사례



- | | |
|---|---|
| 1 | 2 |
| 3 | 4 |
- 경사로 설치로 단차극복(경사로 1/18 이하) | O
 - 수직형 철판이 리프트로 단차극복 | O
 - 접근로에 장애물(블린드) 설치 | X
 - 접근로에 장애물(가로등) 설치 | X

단차 및 장애물

2-1-3 마을 공간·환경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

■ 필요성 및 사례

- 마을 인근 공공시설에 여성과 아동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확보가 필요함. 본 조사 결과, 경로당과 도서관(작은 도서관)과 같은 돌봄 및 문화시설과 근린공원과 같은 여가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나눔 공간 조성이 필요함
- 서울시 마곡지구는 보행으로 가능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모든 지점에서 녹지체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중앙공원은 강서지구 최대의 문화복합녹지공원으로 개발되며, 개별 거점공원은 각 특성을 살린 휴식공간으로 조성함(손문금 외, 2012). 독일의 헤센 주는 지역 내 공원을 자연 친화적인 놀이와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광범위한 아동, 청소년과 어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친가족적인 환경을 만들어 냄
- 덴마크 코펜하겐의 너레브로 지역은 과거 정유소로 사용되던 장소가 문을 닫은 이후로 코펜하겐의 비행청소년들의 소위 아지트가 되어 저소득층과 외국인, 젊은이들이 거주하던 위험하고도 은밀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바나나 파크라는 이름하에 코펜하겐의 가장 유명한 공원(designdb.com. 2011.11.28.리포터 기사)조성 사례임

■ 추진 방법

- 마을 내 보행로와 공원(놀이터)을 연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 문화복합공원 조성
 - 지역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 조성
 - 지역 내 공원(놀이터)을 연령별 놀이와 탐색이 가능한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
 - 마을 내 보행 교차로 연결 구간 개방적 간이 쉼터 공간 조성

<그림 5-8> 이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



보행로와 분리된 접근성 확보한 벤치
<스톡홀름 주택가>



교차로 연결 구간 자연 녹지 공간으로 조성
<스톡홀름>



연령별 놀이와 탐색이 가능한 가족 복합 공원(뇌레브로 공원 내 모습)

주. 연구자 촬영. 2016.6. (2016.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 연수)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추진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는 돌봄 이웃 공동체 강화와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2개의 정책 과제와 3개의 세부 과제임

〈표 5-14〉 정책 목표 3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정책과제	세부 과제	추진 부서	필요성
3.1 돌봄 이웃공동체 강화	3.1.1 수놓음 공동육아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3.1.2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3.2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3.2.1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 마련	여성가족정책과	주무부서 돌봄사업 연계 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은 아래 표에 제시함

〈표 5-1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사업 기간(예산: 백만원)	
(제주형 수놓음 육아 나눔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 교육,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육아나눔 정보 제공 등 지원	2016-2018 (2,618)	여성가족정책과 ※협력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2016-2018 (900)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성장 아카데미)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 ‘찾아가는 학교+가족학교’ 운영	2016-2018 (300)	여성가족정책과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민을 위한 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2016-2020 (536)	평생교육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2016-2020 (1,300)	문화정책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	2016-2020 (20,800)	여성가족정책과

3-1

돌봄 이웃 공동체 강화

3-1-1

수놓음 공동 육아 활성화

■ 필요성 및 사례

- 지역의 돌봄지원시설은 기관별로 시간제 보육, 일시보육,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별 운영시간에 재택맘과 직장맘 각각의 요구에 맞춘 전방위적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시너지 효과는 미흡한 편임
- 공적 돌봄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교를 마친 후나 보육유아 교육시설을 마친 후 안전하게 자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재택맘과 직장맘 간 유연한 공동육아나 가족 및 이웃 간 자발적 나눔 공동체 조성이 필요함
 - 돌봄 공동체 형성에서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서로 모이게 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기 쉬운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내 공간 등 부대시설공간을 통해 가능함(※ 송파구 파크리오맘 사례와 반송 느티나무도서관 사례)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봄 공동체 사례인 성미산 마을은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해 고민하던 마을의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든 일상의 이야기 문화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하나씩 해결하면서 힘을 모아 실현해 낸 산물임

■ 추진 방법

- 재택맘과 직장맘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서로 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돌봄 나눔 공동체 조성
 - 초기에는 지역 내 가능한 부대시설공간을 활용하여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로 돌봄문화 도서관으로 운영(※ 사전 인식조사와 부모, 아동 등 이용자 규율 정함)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 ▶ 부모에게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하는 부모의 다양한 근무시간, 방학기간 등을 위한 공동육아, 가사노동 절감을 위한 공동 식사 등 운영

3-1-2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필요성 및 사례

-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할 수 있고, 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과거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었던 돌봄을 지역의 공동체적 개념의 사회적 돌봄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함
- 느티나무 도서관 사례는 마을의 도서관이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의 공부방이자 놀이터가 되면서 지역 주민 누구와도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목적 소통 돌봄 공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모습은 일본의 고히쿠의 도로뿌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독일과 뉴질랜드는 자녀 돌봄과 양육을 모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여 지역연대의 세대통합 공동 활동과 부모와 아동에 맞춰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모습은 우리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자녀의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학원을 순회하듯이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방법이 될 수 있음

■ 추진 방법

- 가정과 마을 주민들 연계로 자녀 돌봄을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와 주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돌봄 체계 마련
 - 주민참여 및 재능기부로 세대통합 공동 활동 운영(※ 부모, 조모, 이웃 간 규율 정함)
 - ▶ 방과 후, 방학기간 과제물 지도,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할머니 등
 - ▶ 저녁시간이나 농번기 공동식사, 공동육아, 공동돌봄, 세대 간 재능 나누기 등
 - 초기에는 부모중심 돌봄 활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마을주민의 돌봄 참여를 통해 세대통합 사회적 돌봄 공동체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운영
 - ▶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학교+가족학교’ 연계 운영

3-2

마을 내 소통·교류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3-2-1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 마련

■ 필요성 및 사례

- 가족 일을 대부분 담당하는 여성의 일상생활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웃과의 소통,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높음(손문금 외, 2012).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문제해결을 자연스럽게 의논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소통 및 돌봄 공간이 필요함
- 소통과 나눔의 공간을 거주지역 내에 조성한 사례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웃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공동체 회복에 주목함.
 - 송파구의 ‘파크리오맘’의 사례와 공릉동의 ‘꿈마을 공동체’ 사례는 주거지역 내 공공 나눔 공간을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공유하고, 일본의 세타가야 구는 양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보 교환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돌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줌

■ 추진 방법

- 지역의 작은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을 주민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으로 활용
 -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과 유대감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자원 확대
 - 양성평등한 가족중심의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인근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과 주민 연합 마을문화의 장
 - 중고물품이나 장난감 가게 운영, 작은 도서관 등 함께 참여하는 공간 활용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운영방안

1. 추진체계
2. 단계별 운영방안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추진체계

- 지금까지 제주지역 여성정책은 정부시책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특히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확대, 전통적 가족에 의한 돌봄 체계 약화 등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새로운 정책욕구를 수렴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정책이 필요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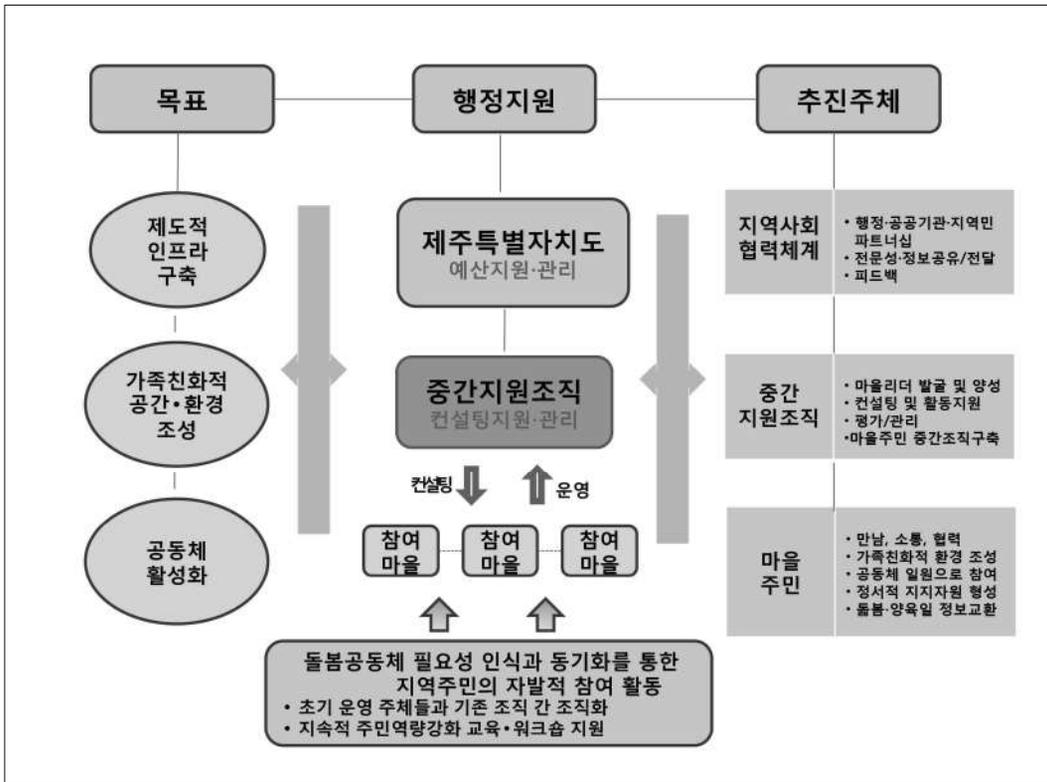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정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15~’17)」을 기본으로 하되, 아이 키우기 좋고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 한 해 동안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함
 - 추진결과,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4대 핵심과제를 도출함

-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 과제 영역에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 과 ‘가족성장 아카데미’, ‘모성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지원’ 등이 세부사업으로 제안됨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6~2020)」의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공동체 영역의 세부사업인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추진과 연동하여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은 도농복합지역 여건과 공보육·공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연대 공동체 회복으로 실천될 수 있는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임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의 추진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참여마을의 주민 조직으로 구성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참여 마을을 선정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파트너십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며 피드백을 제공함
- 행정과 참여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전과 결산보고 제출 전 등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과정 평가 지원을 제공함
 - 참여 마을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만남과 소통, 협력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돌봄, 안전, 기타(문화여가, 교육건강 등)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그림 6-1> 추진체계



- 주요 사업내용은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 안전, 기타(문화여가 등) 분야로 하며, 2개 분야(돌봄+안전, 돌봄+기타 등)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음

<표 6-1> 분야별 사업 예시(안)

분야		사업 예시
돌봄	부모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맘 야간이나 방학기간 등 공동 육아 사랑방(안전한 공보육·공교육 귀가 장소) · 부모들 간 육아·자녀교육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육아 사랑방 · 부모들 간 재능 나눔, 중고 장난감·도서 나눔 장터 등
	지역사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방과 후 세대 통합 돌봄 사랑방(안전한 공보육·공교육 귀가 장소) · 가사노동 절감 위한 저녁 공동밥상, 농번기 공동급식 나눔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관찰이 가능한 안전한 놀이터·공원 조성 · 마을 조사를 통한 위험 요소 파악 안전지도 제작 · 세대 통합 마을 아동 지킴이 실버 폴리스 활동
기타 (문화, 여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육아정보,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 아빠와 함께 하는 자연친화 체험 활동과 놀이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찾아가는 가족학교, 부모학교 운영 · 마을 어르신과 함께 하는 제주사투리·빙떡·전래동요 배우기 ·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마을 노·소(어르신·아이)어울림 · 자녀 돌봄 통한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놀이문화 축제

- 사업선정의 추진절차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작성된 제안서를 심사하고, 심사 후 선정된 마을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과 동시에 사업전반에 걸친 컨설팅이 지원됨
- 사업주체는 지역사회의 기존 공동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통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웃과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각종 마을사업 경험을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제안함

2. 단계별 운영방안

가. 관련 사업 연계방안

-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임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인 세대통합 돌봄 공동체 모델이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

해서는 모델에서 제안한 정책목표와 기존 정책안에서 지향하는 목표 간 연계점을 찾아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추진체계들 간 업무협력이 요구됨

- 실천모델은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음

<그림 6-2> 실천모델 추진전략



- 육아품앗이 사업이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손태주정여진, 2016)을 감안하여, 연계를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즉 마을만들기 유사사업 간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와 기존 관련 부서의 사업들 간 연계는 필수적임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6-2> 실천모델을 위한 연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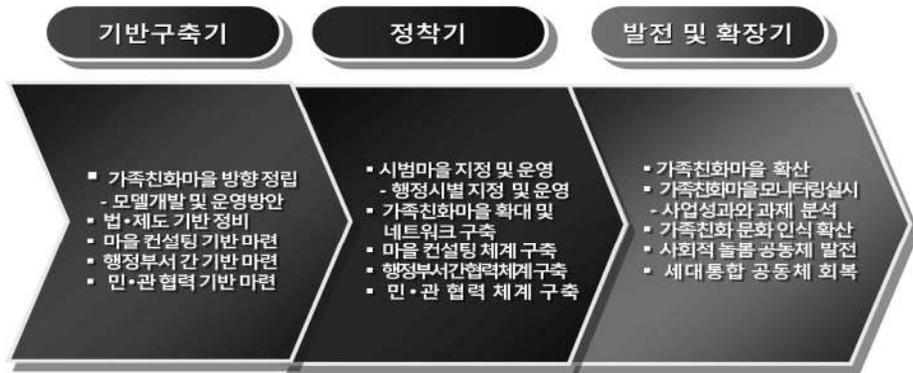
목표	제2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연계 사업	
제도적 인프라 구축	가칭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마을단위 역량강화 활성화 ※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조성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설치	재난대응과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와 가로등 조도 개선	건설과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지원 강화	여성가족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사업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결계 지침 활성화	디자인 건축지적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여성가족정책과
	주차문제 해결(Green Parking 확대,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제주형 수놓음 육아 나눔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육아지원 프로그램 교육,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육아나눔 정보 제공 등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협력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여성가족정책과
	(가족성장 아카데미)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 '찾아가는 학교+가족학교' 운영	여성가족정책과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민을 위한 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교육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화정책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과

나. 단계별 운영방안

-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운영은 기반구축기, 정착기, 발전 및 확장기를 통해 실시됨
- 기반구축기(2016년)에는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과 운영방안에 따라 먼저, 주무부서가 주축이 되어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이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또한 가족친화마을 시범마을을 발굴하여 시범마을이 사업 신청 서류를 준비 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민관 협력 기구도 구성되어야 할 것임

- 법적 연계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흩어져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 자녀의 발달연령별 부모교육, 양성평등 가족학교 및 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NGO 단체 간 협력 기반 마련
- 사업 컨설팅 및 평가 관리 위한 중간지원 조직 기반 마련

〈그림 6-3〉 운영 로드맵



○ 정착기(2017년)에는 시범마을 운영 결과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행정시별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민관 협력 체계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무부서가 소통의 중심이 되어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가족친화마을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임. 또한 행정체계 내에서 지정 시범마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고, 참여 마을의 주민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임

- 공모를 통한 행정시별 시범마을 운영 : 가족봉사단·주민 모니터단 구성·활동지원
- 여성인권단체의 시범마을 주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연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부모교육·상담·양육정보 등 연계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가족학교, 아빠학교 등 연계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족친화센터 연계한 마을만들기 운영 과정 컨설팅 연계지원

- 발전 및 확장기(2018년 이후)는 가족친화마을 모델의 목표에 따라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잘된 점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활성화하고 개선사항은 신규 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 시에 반영하여 지역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범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주민 모니터단 확산
-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와 인식 확산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제도 정비

-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 효과를 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책수행의지와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행정지원은 부서별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내 마을로서 통합적인 공간임을 인지하여 협력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의 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와 조율, 통합과 분산에 대한 조정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과 협력기반이 확보되었을 때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임
- 행정지원은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족의 삶과 관련되어 단기사업보다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송지 외, 2009)이 감안되어야 함. 즉 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분절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하나의 총체적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주민대상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등의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적 공간·환경 정비

- 지역사회의 공간과 환경 시설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성되어야 함

- 더불어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임. 예컨대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이 되도록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놀이 공간, 정보교류 공간, 평생교육과 문화여가건강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 특히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공간은 우수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지만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 낯설음을 느낄 수도 있음. 결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외관상 좋은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자신의 공간이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며,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

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족친화마을의 조성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마을 행사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개선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므로, 마을 소식지와 SNS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나 반상회, 가정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가 필요함
 - 이들의 참여형태는 뜻을 같이하는 개별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주민조직이나 모니터링단 등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함.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가 미래세대 육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아이들을 포함하여 3년간의 여론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사례도 하나의 방법이 됨
- 또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운영을 통한 주민교육이나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임

참고문헌

- 가사기 히로오 저. 황선희 역. 2011. 「마을만들기 매뉴얼」. 아르케.
- 고지영. 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기호·김도년·김세용·김은희·박소현·박재길·안현찬·이영범·이윤석·장옥연·허운주·황희연. 2014. 「우리, 마을만들기(3쇄)」. 나무도시.
- 김선미·이승미·노영주·송혜림·조영희·김순영. 2011. 「지역 돌봄 기능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김성균·이찬연. 2015.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한국형 마을만들기의 역사·이론·실제)」. 지식의 날개.
- 김인춘 외. 2012. 「복지국가시대를 위한 유럽 복지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경험」. 한국유럽학회.
- 김태일. 2011. 「건축 계획론 개정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현희·박진아. 2014. 「지역사회 육아품앗이 활성화 모델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남원석·장운배·이성룡·이승연. 201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남승연·최윤선·김미정·조은별. 2015.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류태희 외. 2014.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이 넘어,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국토연구원.
- 박소현·최이명·서한림. 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재동·김이준수. 2015.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산티.
- 서수경. 2011. “독일의 Family Center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 육아지원시스템 방안 모색”. 2011년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과 이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올해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30여 곳 지원(전자자료)」. 서울특별시.
- 손문금·이재림·이순희·이민주. 2012.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태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손태주·정여진. 2016. 「제주지역 일·가정양립지원체계 운영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신중진·김일영·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9~2009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8권 제6호(2013년 11월), p.43-56.
- 정혜선. 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3호(2010년 6월), p.429-441.
-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 안희정·이갑숙. 2010.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여성가족부.
- 이송지·김혜정·이경란·곽영선·정영화. 2009.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인천광역시 부평구.
- 장임숙·권진아. 2015. 「2015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조한혜정·박영숙 외. 2012.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4쇄)」. 또 하나의 문화.
- 최인수·전대옥·양은경·박소연. 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차성란. 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2호, p.63-76.
- 추용욱. 2010. “강원도 읍·면 단위 마을 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강원논총 창간호. p.115-13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김혜연·류연규. 2007.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김혜연·류연규. 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Irving Seidman 저, 박혜준·이승연 공역(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5판)」. 학지사.

Voydanoff, P. 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and Family. 4(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11.1. "지역단위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한다"

행정자치부. 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사·중복 요인 걷어내야"

고호쿠의 도로뽀 홈페이지(www.kohoku-drop.com)

도토리방과후홈페이지(<http://cafe.daum.net/mapodotor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성미산마을 홈페이지(<http://cafe.daum.net/sungmisanpeople>)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rchives/53301>)

S.K.I.P홈페이지(<http://www.skip.org.nz>)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h1973730&logNo=220367532478>

<http://cafe.naver.com/parkriomom>

<http://designdb.com/dreport/dblogView.asp?gubun=1&oDm=3&page=1&bbbsPKID=20155>

<http://injelibrary.tistory.com/172>

부 록

1. 가족유형별 면접조사 질문지
2. 사례지역 거주자 질문지
3. 물리적 환경조사 평가항목

가족유형별 면접조사 질문지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구성에 대한 요구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마을이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함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 내용과 개인적인 사항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연구 책임	연구원 손태주(아동 청소년/교육학 박사)	☎ 064-710-4975
--------------	-------------------------------	-----------------------

응답자 성명		면접원(면접일)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지역	① 제주시 : 구체적(읍·면·동) _____ ② 서귀포시 : 구체적(읍·면·동) _____	
장애유무	① 장애인 ② 비장애인(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 포함)	
가구형태	① 1인 가구 ② 부부 ③ 부부와 자녀 ④ 조손가정 ⑤ 3세대가정 ⑥ 한부모가정 ⑦ 기타(예: 다문화 가족 등)	
주거형태	① 49세대 이하 아파트 ②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아파트 ③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 ④ 300세대 이상 아파트 ⑤ 단독주택/전원주택/농가주택 ⑥ 다세대주택/연립주택/빌라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⑦ 70대 이상	

1. 선생님은 자녀(또는 주위 가족이나 자기 자신)를 어떻게 돌보고 있나요? 그것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또는 노인이나 집안의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3. 가족친화마을은 법에 1)마을 내에서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것, 2)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공간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법에서 설명한대로 자녀(또는 가족, 환자 등)를 돌보거나 그것에 필요한 시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있나요?(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요?)
4. 살고 있는 곳에서 자녀(또는 다른 가족 등)를 키우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보육, 아이돌보미, 방과후 돌봄, 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요?(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5. 만약에 사시는 동네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나요? 있다면 가능한 시간과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동네에서 공동체 사업이 잘 운영되려면 누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면 좋을까요? 또한 운영비와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요?
7. 동네에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해결하면서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공동체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례지역 거주자 질문지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주형 가족친화 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마을이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함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 내용과 개인적인 사항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연구 책임	연구원 손태주(아동 청소년/교육학 박사)	☎ 064-710-4975
-------	------------------------	----------------

응답자 성명		면접원(면접일)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지역	① 제주시 : 구체적(읍·면·동) _____ ② 서귀포시 : 구체적(읍·면·동) _____	
장애유무	① 장애인 ② 비장애인(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 포함)	
가구형태	① 1인 가구 ② 부부 ③ 부부와 자녀 ④ 조손가정 ⑤ 3세대가정 ⑥ 한부모가정 ⑦ 기타(예: 다문화 가족 등)	
주거형태	① 49세대 이하 아파트 ②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아파트 ③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 ④ 300세대 이상 아파트 ⑤ 단독주택/전원주택/농가주택 ⑥ 다세대주택/연립주택/빌라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⑦ 70대 이상	

1. 선생님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동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생각하시나요?
2. 이 동네에 사신 적은 얼마나 되셨나요?
3. 이 동네에 살게 된 이유가 있나요?
4. 선생님의 일, 가족 직장생활 등은 어떠한가요?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시기에 따라 달라진 생활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5. 선생님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1)아이 키우기(노약자 돌보기)는 안전한가요? 2)이웃끼리 서로 아이들(가족들)을 봐 주나요? 3)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나요? 4) 이 동네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있나요?
6.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동네의 시설에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걸리면 좋을까요?
7. 선생님은 마을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 반상회,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학교 관련 모임/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8. 가족친화마을 환경을 위해 가족단위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은 있나요?
 - 참여한다면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 가족친화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이 잘 운영되려면 누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면 좋을까요? 운영비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10. 동네에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해결하면서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공동체가 잘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리적 환경조사 평가항목]

1. 대상지역 기초 조사

- 위치 및 지역 특징과 주변 현황 등

2. 물리적 환경 조사 지표(1)

구분	프로그램	제공시설	개수	안전성(5점 척도) (상/중/하)			접근성(5점 척도) (상/중/하)			우수한 곳 & 미흡한 곳
보육 교육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5	3	1	5	3	1	
	미취학 이동	유치원		5	3	1	5	3	1	
	초등교육	초등학교		5	3	1	5	3	1	
돌봄	방과후 돌봄	방과 후 교실		5	3	1	5	3	1	
		지역아동센터		5	3	1	5	3	1	
		청소년 문화의 집		5	3	1	5	3	1	
	노인돌봄	경로당		5	3	1	5	3	1	
		노인복지관		5	3	1	5	3	1	
		주간보호시설		5	3	1	5	3	1	
문화	정보이용	도서관 (작은도서관)		5	3	1	5	3	1	
	교양 취미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5	3	1	5	3	1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리사 무스, 문화센터 등)		5	3	1	5	3	1	
여가	생활 체육	근린공원		5	3	1	5	3	1	
		놀이터 (학교운동장)		5	3	1	5	3	1	
		공공체육관 (간이체육시설)		5	3	1	5	3	1	
건강	질병예방 건강관리	병원·의원		5	3	1	5	3	1	
		보건소		5	3	1	5	3	1	
근린 상업	생필품	재래시장		5	3	1	5	3	1	
		중소형마트		5	3	1	5	3	1	
유희 공간	활용 가능한 공간 (폐교, 빈집 사용되지 않는 공공건물 등)			5	3	1	5	3	1	

3. 초등학교 주변 근린생활권(500m 반경) 환경 조사

구분	측정항목	결과(5점 척도) 상/중/하			우수한 곳 & 미흡한 곳
		5	3	1	
안전성과 편의성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충분한 인도 폭	5	3	1	
	등/하교 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걸어 다닐 때 안전한 길	5	3	1	
	학교 인근 주차된 차들이 정리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하굣길 스쿨존 조성	5	3	1	
	휠체어, 유모차 등이 다니기에 편리한 길	5	3	1	
	경사로가 완만하여 누구나 다니기 편한 길	5	3	1	
	횡단보도 신호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안전함	5	3	1	
	골목길에 가로등이 밝아서 야간에도 안전한 길	5	3	1	
	가로수, 간판 등 시설물로 가려진 공간이나 공터 등이 없어 안전한 주택가 길	5	3	1	
	학교 주변, 골목이나 공원 등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안전함	5	3	1	
	공원에 지역 주민이 만나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5	3	1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안전하고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	5	3	1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보호자의 편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5	3	1	
	버스정류장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되어 있음	5	3	1	
	지역 주변 도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함	5	3	1	

연구보고서 2016-5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발행인 현혜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소 디자인 늘(☎064-758-3302)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09-9